THE SAGE INVESTOR

2023 | Volume 72

값 6900원
72
9 772005 521804
ISSN 2005 5218

- **US TECH**
  양자컴퓨터 시대,
  주목할 기업은?
- **LITHIUM GIANT**
  홍콩 증시 상장 성공,
  비상하는 텐치리튬
- **INNOVATION & INVESTMENT**
  고물가 시기에도
  혁신성장 테마는 유효한가?

특집

인도 초고속 성장 기업 4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도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국내에서는 혁신적인 유니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건재한 곳이 인도다.
이런 인도 시장에서도 유난히 빠른 성장률로 눈길을 끄는 기업을 찾았다.
매출 규모별로 현재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기업 4개를 살펴본다.

VIETNAMESE e-COMMERCE

베트남에서도 BNPL이 유행이다!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적립식 펀드시대를 개척한 미래에셋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대도
미래에셋그룹의
투자 전문성으로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퇴직연금 DC/IRP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전(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C/IRP)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금리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2638호(2022.08.08~2023.08.07)

MIRAE ASSET 미래에셋

CONTENTS

34
특집
인도 초고속 성장 기업 4
지난 4년간 인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기업은?

1 슈퍼헤비급 JSW 스틸
2 헤비급 아폴로병원그룹
3 미들급 디팍 나이트라이트
4 웰터급 킬로스카르 페로스 인더스트리

08
SPECIAL INTERVIEW
"이삼년 뒤 인플레는 다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틴 울프

WORLD ECONOMY

16
INNOVATION & INVESTMENT
고물가 시기에도 혁신성장 테마는 유효한가?
혁신은 언제나 필요하다.

22
US TECH
양자컴퓨터 시대가 온다
다시 한번 IT혁명을 꿈꾸는 선두주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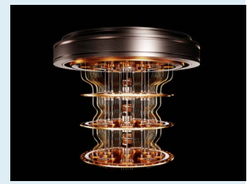
30
JAPANESE REAL ESTATE
미쓰비시지쇼 VS 미쓰이부동산
도쿄 중심가 재개발을 놓고 두 부동산 강자가 맞붙었다.

44
INDIAN MOTORS
야마하, 인도의 고급 오토바이 시장을 개척하다
야마하의 고급화 전략이 통했다.

48
INDIAN CARS
인도 자동차 산업, 친환경 연료 전환에 드라이브 걸다
인도의 전기차 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

72
CHINA OPPORTUNITY
시진핑 3기 시대의 중국 경제,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코로나 이후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76
CHINESE RETAIL
중국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의 악전고투
선두주자였던 미스프레시가 파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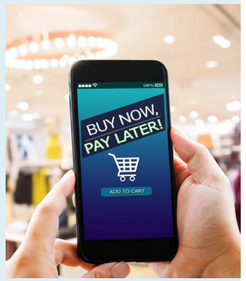


53
특집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차와 배터리 등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산업이 원점으로부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① VALUE CHAIN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사슬
② TIANQI LITHIUM
비상하는 텐치리튬
③ HUNANYUNENG
리튬인산철 공급왕, 후난위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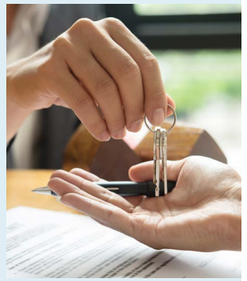
CONTENTS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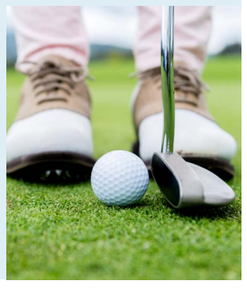


86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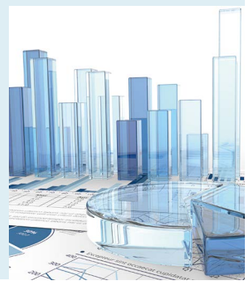

90

92


94

04

06


96

84
KONDO'S VIEW
중국 청년을 읽는 12가지 유행어
유행어를 보면 그 사회가 보인다.

86
VIETNAMESE e-COMMERCE
베트남에서도 BNPL이 유행이다!
온라인 외상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

88
VIETNAMESE ENERGY
베트남 풍력 발전 붐!
풍력 발전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베트남이다.

90
TAX
부담부증여 VS 저가 양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증여할까?

CULTURE

92
WINE
와인의 호흡

94
GOLF
기본, 먼저

PERSPECTIVE

04
WORLDVIEW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 창고 로봇

06
OPINION
세계화의 종말?

96
GLOBAL MARKETS
PRICES & RATES

THE SAGE INVESTOR

편집장 박덕건 duncan7@gmail.com
기자
모은희 hug7482@naver.com
김규림 smartjuhua@naver.com

ART nanabana studio
디자인 디렉터 김현주
디자이너 최지민

특약 파트너
BusinessWorld(인도)
新財富(중국)
商界(중국)
Vietnam Economic Times(베트남)
Indonesia Economic Forum(인도네시아)

CEO
강주연(JTBC Plus 엔터 · 트렌드부문 트렌드총괄)

Contents Business Team Leader 민영
Finance & Accounting Team Leader 최종필
Business Management Team Leader 박원영
Process Management Team Leader 김태근

주소
0604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6
JTBC Plus 빌딩 10층
편집 문의 02-3015-0866
정기 구독 1588-7761
광고 02-3015-0623
인쇄 PACOM(주)
분해&출력 새빛그래픽스

등록
등록 2007년 7월 18일
등록번호 (강남 바 00198)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한 '함초롬체'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THE SAGE INVESTOR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
전화(1588-7761)

정기구독료(국내)
1년(4회) 25,000원 약 40% 할인가 ⇒ 17,000원
2년(8회) 49,000원 약 40% 할인가 ⇒ 34,000원

정기구독 시 약 40% 할인 혜택

40%
4회 신청 시 17,000원
8회 신청 시 34,000원

보내실 곳
우편번호 0604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6 JTBC Plus 빌딩 10층
'THE SAGE INVESTOR 인베스터'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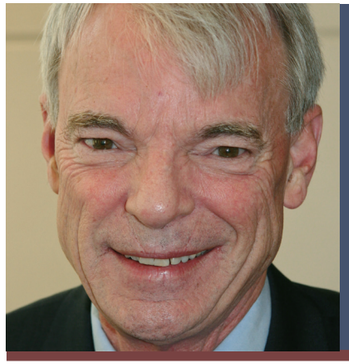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1588-7761

아마존 창고 로봇

아마존이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창고 로봇을 선보였다.

사진 **Gettyimages**

아마존은 2022년 11월 미국 매사추세츠 웨스트버러에 있는 아마존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미래를 배송하기'(Delivering the Future)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다. 이때 선보인 것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이 '프로테우스'(Proteus)라는 이름의 창고 로봇이다. 운반대 밑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녹색 받침대가 바로 프로테우스다. 이 로봇은 평소에는 그냥 혼자 다니다가 옮겨야 할 운반대를 발견하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운반대를 들어 올리고, 박스에 있는 바코드를 읽어서 가야 할 장소로 이동한 다음, 운반대를 내려놓고 자기만 빠져나오는 식으로 움직인다. 이제 물류창고에서 사람 구경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Michael Spence

세계화의 종말?

다시 세계화로 복귀해야 할 때가 왔다.

글 Michael Spence 사진 SHUTTERSTOCK

11월은 굉장한 달이었다. 세계 지도자 회의가 4개나 열렸다. 캄보디아에서의 아세안 회의, 인도네시아에서의 G20 회의, 태국에서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포럼, 이집트에서의 UN 기후변화 콘퍼런스(COP27)가 그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렇게 모임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고, 국제 사회가 대결에서 협력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다자간 협력으로부터 민족주의적 경쟁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다. 몇몇 개도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강대국 간의 대결구도를 거부했지만 그런 노력이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세계화 흐름을 완전히 뒤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국가나 지도자, 특히 미국이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때문에 부분적으로 탈세계화가 일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광범위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플레가 심화되고, 부채 위기가 고조되는 현상 등이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

탈세계화로의 전환 때문에 초래되는 손실이 점증함에 따라 경제적 분단과 파편화에 대한 저항도 강해졌다. 유럽이 딱 그런 경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범대서양 연합을 강화했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의견 일치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중국정책을 놓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미국의 중국 정책이 세계를 또 다시 경쟁적인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버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금융기구들은 무역, 금융, 기술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공격적인 노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적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나 리쇼어링 추진에 반대하는 이는 별로 없지만 첨단기술,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일괄적인 대중국 수출 제한이 미중 관계를 건설적인 전략적 경쟁관계로부터 제로섬 싸움으로 변질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도 꽤 많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마크롱은 미국과는 차별화되는 유럽의 입장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첨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유일한 공급회사인 ASML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의 마크 뤼터 총리도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내세운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중도적인 입장을 표방하며, 11월에 중국을 방문했다.

이머징 국가는 그들대로 11월에 열린 주요한 국제회의에서 국제적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강대국 간 경쟁이 초래하는 분열된 세계 경제는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분열되면 시급한 세계적 에너지 전환에 발맞추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가 설명하듯이 경제적 파편화와 상호 불신 속에서는 효과적인 기후 대책 실행이 매우 어렵다.

이머징 국가만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금융기구들은 무역, 금융, 기술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세계 경제의 파편화는 장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변덕스럽고 모순적인 규칙과 제도, 법적 부담에 대처하느라 고전하는 다국적기업이 많아지고 이런 세계 경제의 핵심부문을 제약하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가 복잡해지고 영업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 의욕도 약해진다. 다국적 기업이 기술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적 생산성과 성장에 상당한 역효과가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세계화의 전환점

이런 위험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점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이 세계화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반복해서 개방과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열적인 행동과 말에 의존하는 러시아 같은 나라와의 연대를 표방한다면 그의 말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는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나 전략적 의미가 있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무역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은 최근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한 중국의 외교적인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어느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2022년 11월이 탈세계화 논란의 전환점이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건설적인 국제적 협조에는 여전히 큰 장애가 존재한다. 우선 협력과 경쟁 사이의 보다 합리적인 균형을 추진하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신뢰와 선의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협력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지도자들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구성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재구성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현실은 새롭고 복잡한 다자주의의 발전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다자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권위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가 이런 조직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다를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세계 경제의 우울한 전망과 거대한 기후 변화의 규모에 직면한 지도자들이 탈세계화가 초래할 위험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인식이 향후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후버연구소 연구원. 노벨 경제학상 수상. 저서에 "시장 신호", "넥스트 컨버전스" 등.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논설위원

“이삼년 뒤 인플레는 다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마틴 울프에게
세계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 **강남규(중앙일보 국제경제 선임기자)** 사진 SHUTTERSTOCK

I remember you left the World Bank in 1981 around the peak of stagflation. Have you ever thought of the differences or similarities between then and now?

Very interesting question! I think that, broadly defined, there are clear parallels between the ’70s and early ’80s and where we are now in the following respects. There was a mixture of very big real economic shocks with monetary excess. It’s not just about 1981, but there were two oil shocks in the ’70s — one in 1973 and one in 1979 — and they were both triggered by wars and now we have a huge oil and gas shock which is also triggered by a war. So that’s an obvious parallel.

And this time, of course, we also have two shocks. The second shock isn’t another oil shock. We have a pandemic shock and a war causing an energy shock. And then we had two energy challenges again in the early ’70s and we have very high monetary growth leading to a very rapid growth in demand, which then interacted with this huge real shock to generate an inflationary process. But in that case, it took, roughly speaking, 10 years to get it under control.

Ten years? Then how long do you think it would take to get inflation under control this time?

I am actually much more optimistic this time. I think there are two reasons for that. The first is, of course, all the central bankers remember this history. They know this history and they don’t want to repeat these mistakes. And of course, they are all independent and they have adopted inflation targets. So that means they are pretty clear they have to achieve it. The second thing is that with the exception of the United States, it’s externally generated. There isn’t much domestically generated inflation. It’s the energy shock.

Now, there is a risk that this will cause a wage price spiral. But again, an important difference from the ’70s is, for better or worse, labor organizations are much weaker. Trade unions are much weaker. There are strikes, but they’re not as fierce. So the probability is that there is a

경제이론사를 읽다보면 18~19세기 부분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그리고 월터 배젓(Walter Bagehot)이다. 배젓은 금융·통화 학설사의 대가이자 19세기 중후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편집장이었다. 또한 런던 금융시장 르포인 “롬바드 스트리트”의 지은이이며 금융통화 이론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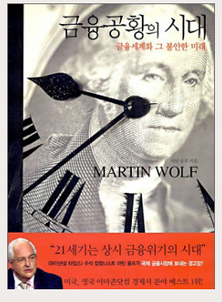
우리가 월터 배젓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론인이면서 이코노미스트라는 그의 특수한 배경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배젓처럼 언론인이면서 이코노미스트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코노미스트가 상당히 긴 시간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터 배젓과 같은 인물이 현재에도 한 명 존재한다. 바로 마틴 울프다. 현재 직책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논설위원이다. 과거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였다. 그의 칼럼이 메이저 중앙은행의 보고서처럼 전문적이고 깊이 있어 보이는 이유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절정이었던 1981년에 세계은행을 그만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다! 폭넓게 보자면, 1970~80년대 초 그리고 지금 상황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우선 통화공급 과잉과 경제적 충격이 동시에 발생했다. (내가 세계은행을 그만두었던) 1981년은 아니지만,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둘 모두 전쟁으로 촉발됐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쇼크도 전쟁에 의해 시작됐으니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래왔듯 두 가지 쇼크에 시달



마틴 울프(Martin Wolf)

1946년생으로 1971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연구석사(MPhil)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에 들어가 경제분석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되어 1981년까지 일했다. 여러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다 87년 파이낸셜 타임스로 자리를 옮겨 ‘저널리즘 이코노미스트’로 변신했다. 그는 언론사 근무에 대해 “아주 독립적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much greater chance that inflation will remain in the goods markets, perhaps in the service sector. So I'm relatively optimistic, not certain, but by 2024, 2025 inflation will be substantially lower in all the major economies. I am not sure whether it will be back to 2%.

People in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and financial markets are very sensitive to the issue of how high the Fed Fund rate will go up because they believe the higher the rate would be the stronger the dollar.

Well, there are two dimensions to this. It's very important to separate the two dimensions. We had a conversation recently with a member of the board. It was off the record. I won't say who it was. But the questions are how high it might go. And just as important, I think, is how long it might remain there. So I think it's a reasonable guess on the basis of what we know now, that the peak rate will be somewhere in the fives. It's not an unreasonable guess. It's not so far from where they are, they would rather do it more quickly than not. The American economy remains strong. The labor market is still very strong.

How long do you think it might remain at peak level, around 5%?

The last inflation reading was very weak. So it would turn out to be better and the Fed won't have to do more. But, it's possible that inflation will turn out to be very resilient. Now, once they got there, I suspect Fed won't start to change until they are reasonably confident inflation is coming under control. So the rates might remain high for quite a while. I don't know yet, but it could be a year or more. One would expect the dollar to remain strong.

The strong dollar has already been a burden for Korean business leaders and investors. How long might the strong dollar last?

This is not a forecast, but it wouldn't be surprising if the dollar remained strong for a couple of years still. And I think businesses should plan on that possibility and plan to survive that possibility. Now, I would have thought that for Korean businesses a strong dollar has advantages as well as disadvantages and improves competitiveness. It obviously makes dollar finance more expensive.

But I'm more worried about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er emerging economies, which have got a very large amount of dollar debt. Obviously, anybody with a lot of dollar debt is going to find the combination of higher rates with a higher dollar very difficult, and clearly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f defaults around the world.

How about Korea? Do you think Korea might face a sort of crisis due to strong dollar?

Well, first of all, I don't consider Korea an emerging market. Obviously not.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In the '90s, the problem was that Korean banks, as you know, had taken on very, very large dollar liabilities and dollar

리고 있다. 다만, 이번의 두 번째 쇼크는 오일 쇼크가 아니다. 전쟁 때문에 발생한 에너지 쇼크, 그리고 팬데믹 쇼크이다. 과거 그 시절엔 70년대의 두 차례 오일 쇼크와 급격한 통화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요 급증은 실물경제 충격과 상호작용해 인플레이션 흐름을 일으켰다. 그때 물가를 잡는 데 어림잡아 10년 정도 걸렸다.

10년? 그렇다면,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릴까?

이번에는 아주 낙관적으로 본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중앙은행가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며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론 (1970년대와 달리) 요즘 중앙은행가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 타깃)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써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물가 안정을 달성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제외하고 외부 변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내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 요인은) 바로 에너지 쇼크다.

에너지 쇼크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70년대와 차이점은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아주 낮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이 아주 약하다. 파업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맹렬하지 않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품 시장, 그중에서도 아마 서비스 섹터에 제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이라고 할 순 없지만 2024년이나 2025년 주요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비교적 낙관한다. 물가상승률이 2% 수준으로 되돌아갈 거라고 자신하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얼마나 높게 올릴지에 민감하다. 미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달러 가치도 오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문제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두 가지를 나눠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최근 연준 이사회 한 멤버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비공식 대화여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아무튼, 두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는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인상될 것인가다. 이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최고치에 이른 뒤 얼마나 오래 머물까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를 때 기준금리는 5%대 어느 지점까지 이른다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다. 비합리적인 추정이 아니다. 그 정점까지 머지않았고, 아주 빨리 인상될 듯하다. 미 경제는 여전히 아주 탄탄하다. 노동시장도 역시 아주 활발하다.

미 기준금리가 5% 정도의 정점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 미 기준금리가 일단 정점에 이르면, 연준 사람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인플레이션이 통제권 아래 들어왔다는 확신 말이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고점에 이른 뒤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 잘은 모르겠으나 1년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고점에 머물 수 있다(역사적으로 미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머문 기간은 9개월 안팎이었다). 기준금리가 5% 대에서 상당 기간 유지된다면, 사람들은 달러 가치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강(强) 달러는 한국 경영자와 투자자에게 이미 부담이다. 강달러가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강달러가 2~3년 이어진다고 해도 놀랄 일

debt, and their assets were not liquid assets. So they had a currency mismatch. And once the dollar fund finance got very expensive and the exchange rate collapsed, that obviously created a huge banking crisis. Since that crisis, the authorities in Korea are very, very well aware of these risks. The banks and the private sector of Korea are very, very well aware of these risks. And they have no need to borrow in dollars.

Let's talk about next year's business cycle in the global economy, in particular the U.S. economy. Where do you think the U.S. economy is heading?

My general expectation over the next year is we're going to have recessions. I mean, Europe is clearly going to have a recession. There's no doubt about that fact. It's in recession. The U.K. is in recession. In the U.S. it's less clear. Of course, it's partly a question of how you define recession, and there is no standard definition of recession. I'm opposed to the definition, say, a couple of quarters of negative growth is recession. But in the U.S. we will have at the very least a significant growth recession.

What do you mean by a growth recession?

A growth recession is a period in which the economy grows well below potential and in which unemployment rises. It is the aim of the Fed that this will happen. They want unemployment to rise because they think the labor market is too strong. I think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it could be quite prolonged given the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we've seen, whether it will actually be a recession as the NBER judges it —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s the organization that decides whether there is a recession — whether they will decide that this was a recession. Clearly not, if this happens and brings inflation under control quickly, as I indicated, that might allow the Fed and other central banks to start cutting interest rates relatively soon. Perhaps even towards the end of next year. And that will mean that this will be possibly a brief recessionary period.

Many business leaders in Korea have been worrying about the Chinese economic activities because there are over 60 million unsold apartments which have been dragging the whole economy into a recession. Do you think Chinese government could lead its economy out of recession?

I think this is a very, very good question. Let me just give you briefly what I think the Chinese problem is. A lot of the investment over the last 10 to 12 years has been unproductive and that's been particularly true in real estate.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investment is no longer sustainable growth. And so the investment in general starts to collapse and the growth in the economy starts to fall. Now it's really low, maybe coming 3% or 4%.

은 아닐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는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고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지금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강달러는 불이익만큼이나 이익이 되는데, 경쟁력을 높여준다. 달러 자금을 조달할 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달러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작은 신흥국이 더 걱정된다. 달러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고금리와 강달러의 조합이 아주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채무불이행이 많이 발생할 듯하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강달러 때문에 어떤 위기를 겪을 듯한가?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이 말을 먼저 하고 싶다. 무엇보다 나는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여기지 않는다. 분명히 아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 한국 시중은행은 알다시피 아주 많은 달러 자금을 빌려다 썼는데, 은행의 자산은 유동성이 아주 떨어졌었다. 그 바람에 시중은행들은 원화와 달러 간 밸런스를 맞추지 못했다. 달러 가격이 매우 비싸지자, 환율도 붕괴됐다. 대규모 은행위기를 겪은 이유다. 위기 이후 한국 금융당국은 외화표시 채무의 리스크를 너무나 잘 알게 됐다. 시중은행과 민간 기업도 잘 알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달러 자금을 (많이) 빌려쓸 필요가 없다.

> 비즈니스 리더는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고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이제 내년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에 관해 물어볼 때다. 미 경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럽 경제는 침체를 겪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영국도 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은 아직 분명치 않다. 물론 침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는데, 표준적인 정의가 없는 상태다. 2~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같은 정의엔 반대한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최소한 상당한 성장 침체가 이어질 듯하다.

성장 침체는 무슨 뜻인가?

성장 침체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실업률이 오른다. 미 연준이 겨냥하는 상태다. 연준은 현재 노동시장이 너무나 활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르기를 원한다. 내가 보기에 여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우리가 보고 있듯이 연준이 돈줄을 바짝 죄고 있기 때문에 성장 침체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상태가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침체라고 보는 그 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전미경제연구소는 경기침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이번 침체는 확실히 전미경제연구소가 말하는 경기침체는 아닐 것이다. 성장 침체가 발생하고 물가가 잡히면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이 비교적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시점은 아마 내년 말 즈음이 될 수도 있다. 침체와 유사한 기간이 단기일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많은 경영자들이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한다. 중국

What do you think could happen from now on in China?

Since investment generates pretty well half of demand in China, reduction of investment generates a massive slowdown which keeps on worsening the debt situation. So there is a generalized debt crisis and the economy slows and this, of course, is made worse by the zero COVID policy, which is stopping production and stopping demand. And that must further weaken the situation of the of the corporate sector and of households, who have borrowed their income, will fall. They can't get the same incomes as before.

My question was originally about what Chinese government could do, in other words, what they have in their arsenal of economy policy tools.

The answer to that, I think, is they can and they have to. But the normal solution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found in the last 30 years, whenever demand has been weakening, is a strategy to promote more investment. But that doesn't make any sense when you've got lots of excess capacity in excess building, as you say, and weak demand. You can't. The basic point I make is in a 4% growth economy you can't invest 40% of GDP. So investment has to fall, and that means they have to substitute investment with consumption. They can't, however, do it with the household sector because household income as a share of GDP is very low compared with other economies, even Germany.

If so, what is to be done in the situation?

They have to increase government consumption and they have to increase the distribution and they have to distribute income from the corporate sector and governments to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incomes so they can consume more.

And that means a very radically interventionist government pursuing really essentially Keynesian type policy to sustain demand. And it has to be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only creditworthy entity left in the system. Essentially, the government goes out and borrows and provides resources to households to consume, and bails out the banks, and lets the real estate sector deflate, which is going to happen.

But restructuring in real estate sector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and politically very unpopular because a very large part of the Chinese middle class has invested in real estate. So,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will see how well the Chinese government is able to respond to these imbalances.

> 중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고,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에서 가계쪽으로 자원 배분을 늘려 가계 소비가 늘도록 해야 한다.

의 미분양 아파트가 6천만 채 이상일 정도로 주택시장 불안이 중국 경제 전체를 침체 늪으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빼낼 수 있다고 보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중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잠깐 말해야 할 듯하다. 최근 10~12년 새에 중국에서 이뤄진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가 비생산적이었다. 더욱이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바람에 경제 전반의 투자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요인까지 겹쳐져서 지금 성장률이 하락해 3%나 4% 수준까지 낮아졌을 것이다.

이제부터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은가?

투자가 내수의 절반 정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투자 감소는 폭넓은 경기 둔화를 일으키고, 이는 부채문제를 계속 악화시킬 전망이다. 그 결과 경제 전반에 부채 위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 도시나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정책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멈춰버려 경기 둔화가 더욱 악화된다. 그 바람에 기업과 가계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소득마저 줄어들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내 질문은 '중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하면 그들의 정책 병기고에 무엇이 있을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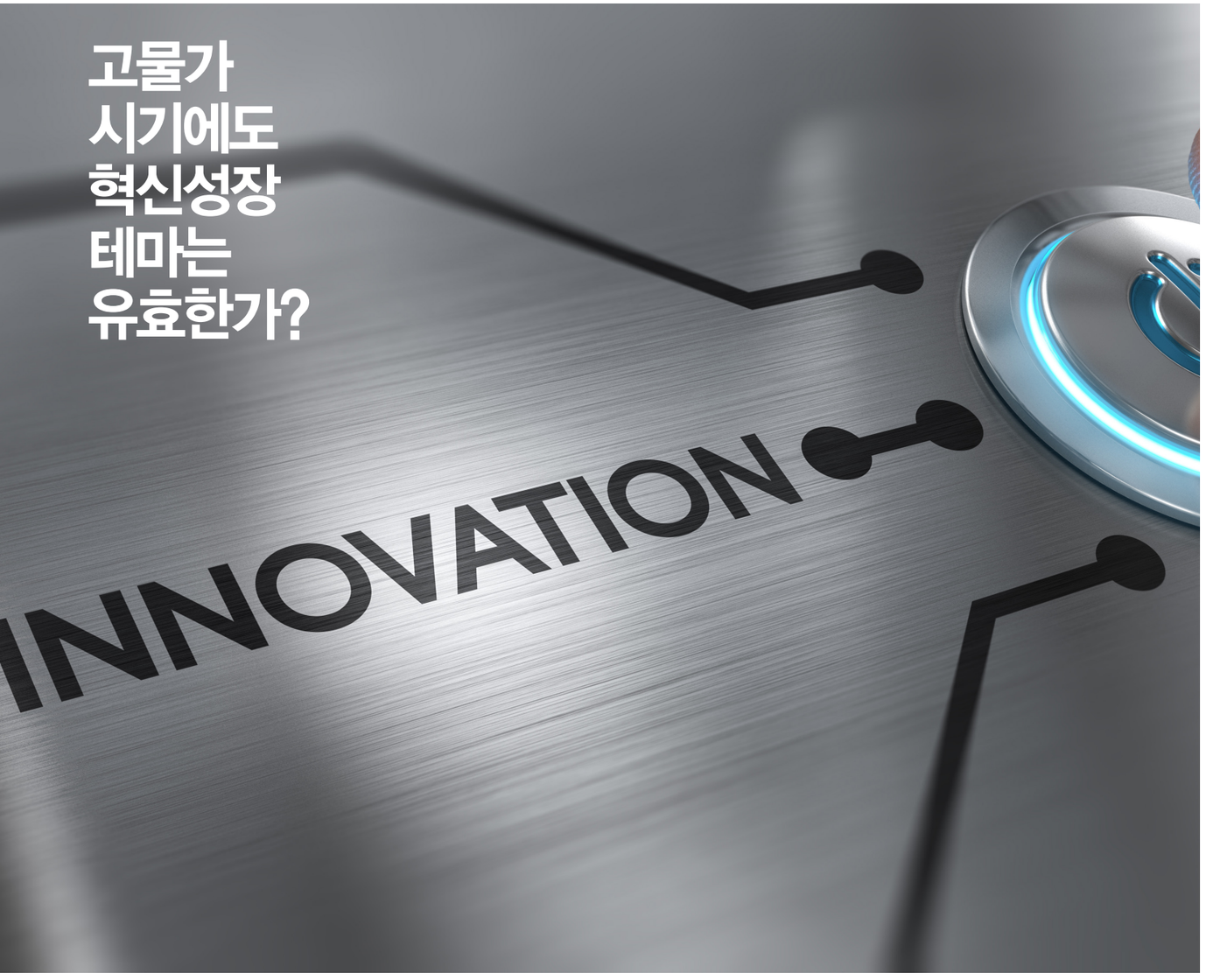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중국 정부)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 30년 사이 수요가 약해질 때마다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투자를 촉진하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질문에서 언급한 대로 팔리지 않는 건물이 너무 많고, 수요가 부진한 시기에 투자를 촉진하는 전략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 말은 경제가 4% 성장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의 40%를 투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투자 저하는 필연인데, 이런 때는 소비로 투자를 대체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 심지어 독일 등과 견줘도 낮아서 가계 소비는 투자를 대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중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고,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에서 가계 쪽으로 자원 배분을 늘려 가계 소비가 늘도록 해야 한다.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케인스 정책을 진짜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유일하게 (재정적으로)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나가서 자금을 조달해 가계에 대주고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시중은행을 구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완전히 빼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은 아주 어렵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 중국 중산층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3년 동안 중국 정부가 경제의 불균형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고물가 시기에도 혁신성장 테마는 유효한가?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많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미래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 한 혁신테마가 와해될 일은 없을 것이다.

글 Pedro Palandrani 사진 SHUTTERSTOCK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성공적인 투자자이다. 워런 버핏이 매년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은 항상 경제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지금과 같이 시장이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을 보면서 그 당시 그의 충고와 통찰력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곤 한다.

2022년 11월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행히 고점을 형성한 후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8%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미연준(Fed)이 추구하는 2%보다 한참 높은 수치이다. 미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문제가 금리인상에 따른 일시적 경기하강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전문가는 금리 인상의 폭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겠지만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까지 주식시장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로보틱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원격진료, 전기차, 클린테크 등 다양한 혁신성장 테마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있고, 이에 대한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주식, 채권, 환율 등 자산시장이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작년까지 높은 성과를 보였던 혁신성장 테마의 낙폭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혁신성장 테마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전혀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 워런 버핏이 1981년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주주에게 보낸 서한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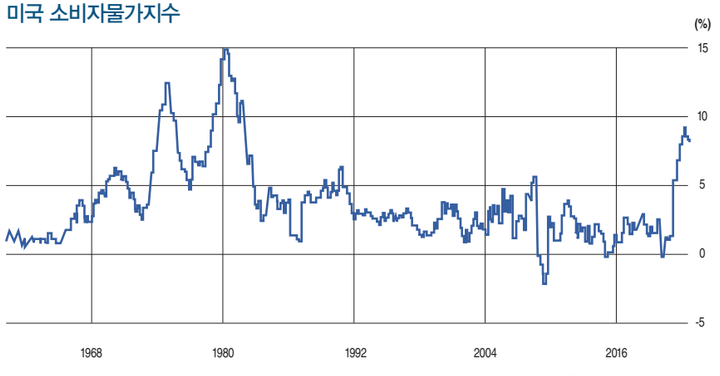
1980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5%에 육박했고 1981년에도 10%에 달했다. 바로 중동발 오일쇼크 때문이었다. 1970년대에 걸쳐 중동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였다. 당시 중동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서방 국가에 대해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오일 가격의 쇼크가 왔다.

그리고 1979년 이란혁명이 발생하여 그때까지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탄생했다. 이란은 팔레비 왕조의 망명을 도운 미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 이로 인하여 1978년 초 배럴당 13달러였던 유가가 1981년 10월 말 38달러까지 상승하는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에 실업률, 경제하강이 더해진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됐다.

그 당시 경제 상황은 현재보다 더욱 심각했다. 물가는 두 자릿수로 오르는데 실업률도 7% 이상이었다.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워런 버핏은 1981년 주주들에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신은 지속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지닌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혹독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 및 인수를 지속하겠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Trading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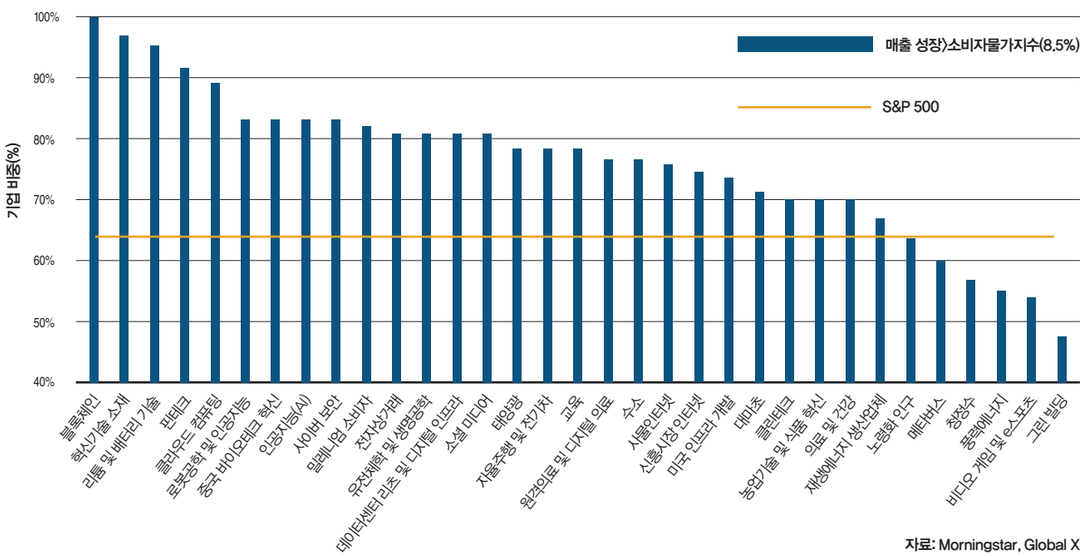
> 작년까지 높은 성과를 보였던 혁신성장 테마의 낙폭도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혁신성장 테마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전혀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

니.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상당히 의아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듯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냉철하게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의 또 다른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느냐 마느냐다. 인플레이션과 경기하강이라는 시점에서도 워런 버핏이 말한 훌륭한 기업의 특성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페드로 팔란드라니 (Pedro Palandrani)
현재 Global X에서 성장테마형 ETF와 혁신기술 부문 리서치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베네수엘라의 UCAB를 졸업하고 세일럼 주립대학교의 버톨론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GLOBAL X
Global X는 전 세계 ETF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는 대표적 ETF운용사 가운데 하나로, 2008년 설립되었다. '평범한 ETF를 넘어서'(Beyond Ordinary ETF)란 모토 아래, 로봇 및 인공지능 종목에 투자하는 BOTZ ETF,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는 CLOU ETF 등 테마형, 인컴형, 액티브 채권형으로 다양하게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23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혁신성장 테마별 기업군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비중



자료: Morningstar, Global X

첫째는 가격 결정력이 뛰어난 기업이며, 둘째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다. 가격 결정력이 높아서 시장에 임팩트가 큰 기업(산업),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산업)은 고물가 시대 그리고 경기하강 시기에도 훌륭한 장기 투자처이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2022년 현재 혁신성장 테마는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로 투자자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지혜를 따라서 잘 생각해 보면 혁신성장 테마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 접근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22년에도 혁신성장 테마의 성장 지속

2022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속해서 축소된 가운데에서도, 혁신성장 테마 기업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왔다. GlobalX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혁신성장 테마 33개 중 블록체인, 리튬배터리, 유전체학, 원격진료, 클린테크 등 대부분이 최근 인플레이션율 8.5%보다 높은 매출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에 반해 S&P 500 기업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63%만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매출 성장률이 높았다.

혁신성장 테마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은 제각기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공통되는 요인이 있다. 경제의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의 혜택을 받아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 혁신성장 테마의 성장을 이끄는 공통되는 요인이 있다. 경제의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의 혜택을 받아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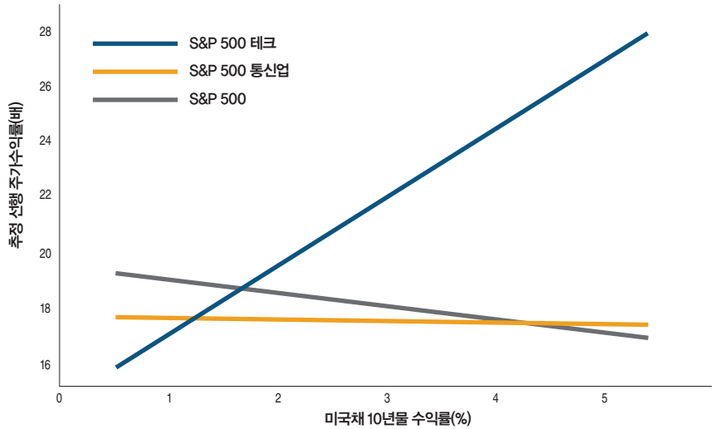
예를 들어 리튬 및 배터리 기술 회사의 경우,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각종 전기차 보조금 및 지원 정책, ▲기업의 전방위적인 전기차 라인업 계획과 이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전기차 수요 급증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게다가 리튬 및 배터리의 생산은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생산능력 확장에는 3~5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원유처럼 바로바로 증산, 감산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리튬과 배터리의 생산량이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다년간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더해지면서 데이터 유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커졌고 이에 따라 정부, 기업, 개인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 양이 방대해질수록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유전체학 및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mRNA 코로나 19 백신으로 큰 매출 성장을 하였고 많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과 S&P 500의 주가수익률 상관관계



자료: Morningstar, Global X(2022년 9월 1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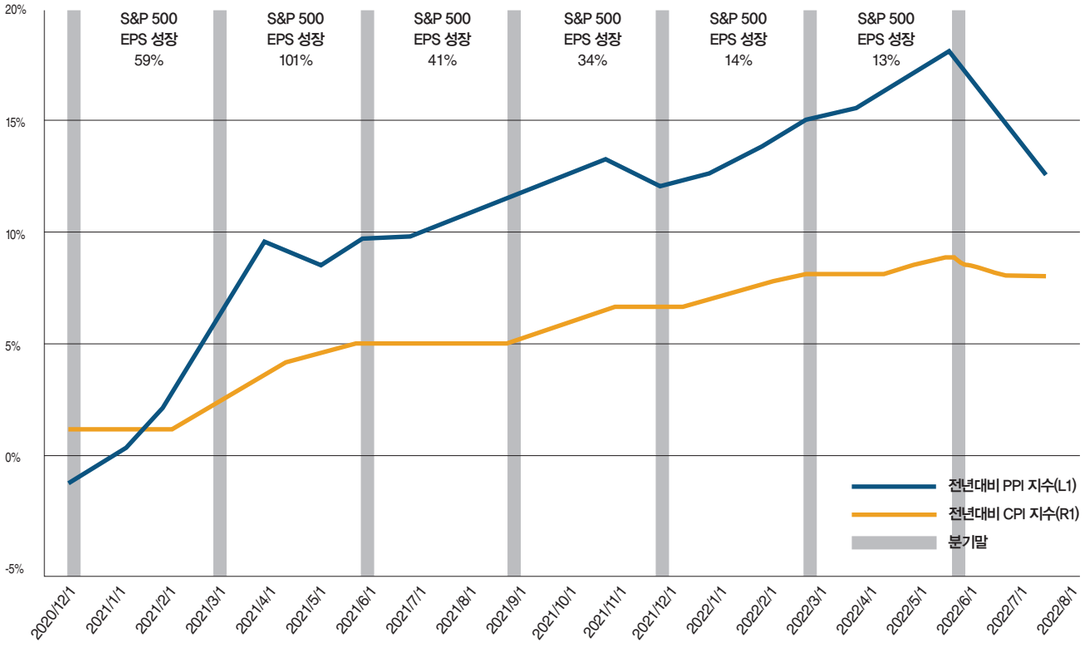
클린테크, 원자력, 수소,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역시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금리 상승은 단기적 위험요소

높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이고 이는 기업의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주식이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그중에서도 미래 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성장 기업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성장을 위해 현재의 수익과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성장 회사는 금리 상승에 민감하다.

회사의 자본 비용과 주식의 가격은 장기 금리에 더 민감하다. 반면, 단기 금리의 변동성이 반드시 기업의 가치 절하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

S&P 500의 주당순이익(EPS)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자료: Bloomberg, Global X(2022년 9월 15일 기준)

상대적으로 부채 수준이 낮은 회사는 단기 금리 변동성에도 타격이 덜하다.

최근의 금리 상승은 단기 채권의 수익률 곡선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는 1.51%에서 3.45%로, 올 초부터 현재까지 190bp 정도 상승한 반면, 6개월 만기 국채는 0.18%에서 3.68%로 상승하여 360bp나 높아졌다.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이 장기 금리에는 영향이 있더라도 적으며, 부채 수준이 낮은 회사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올해 성장주는 이미 큰 밸류에이션 하락을 겪고 있다. 러셀 성장주 지수(Russell Growth Index)의 선행 주가수익률(Forward PER, 추후 12개월간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주가수익률)은 올해 34배에서 24배로 10배가 축소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S&P 500은 겨우 5.5배밖에 줄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은 장기 금리와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금리가 상승할 때 S&P 500의 선행 주가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더 낮았다. 그러나 혁신성장 테마는 예외였다. 금리 상승 시 밸류에이션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또한, 10년 금리와 소셜 미디어 및 스트리밍회사가 포함된 통신 섹터 간에도 과거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물가 환경에서도 성장은 가능하다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의 괴리를 살펴보면, 기업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7% 상승했다. 그러나 생산자, 즉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8개월 전인 2021년 4월에 7%를 경험했다. 2022년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1%, 18.3%로 정점을 찍었다. 둘 사이 격차는 70년 이래 최고였다. 생산자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기업의 이익은 전년과 대비했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더 나은 경영정책과 새로운 기술 적용 등 자체적인 발전과 개선을 통해 고비용 환경을 헤쳐나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고용지표는 미국 소비의 건전성에 가

GlobalX 혁신성장 테마 분류

구분	메가 테마	테마	서브 테마
혁신성장 기술	빅 데이터	머신/딥 러닝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리튬 배터리, 충전 인프라
	디지털 경험	AR/VR	
		비디오 게임	e스포츠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핀테크	모바일 페이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연결성	디지털 인프라	
		5G/차세대 네트워크	
		신흥국 인터넷	
		IoT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 시티/IIoT
	로보틱스	AI/자동화	
		3D 프린트	
		드론	
사람 및 인구	신(新)소비 유형	MZ세대	
		신흥국 소비자	
		도시화	
		E커머스	
		교육	
		공유경제/긱 이코노미	
		안전과 보안	
		대마	
		스포츠 베팅	
		프로 스포츠	
	건강	헬스케어 혁신	원격의료 및 디지털 의료, 유전체학, 면역요법, 공중보건
		고령화	
		헬스 및 웰니스	
		신흥국 헬스케어	
		대체의학	
환경	기후 변화	클린 테크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자원 부족	물, 쓰레기/재활용, 지속가능한 식품
		그린 빌딩	
	혁신성장 소재		
	인프라 개발		

자료: Bloomberg, GlobalX(2022년 9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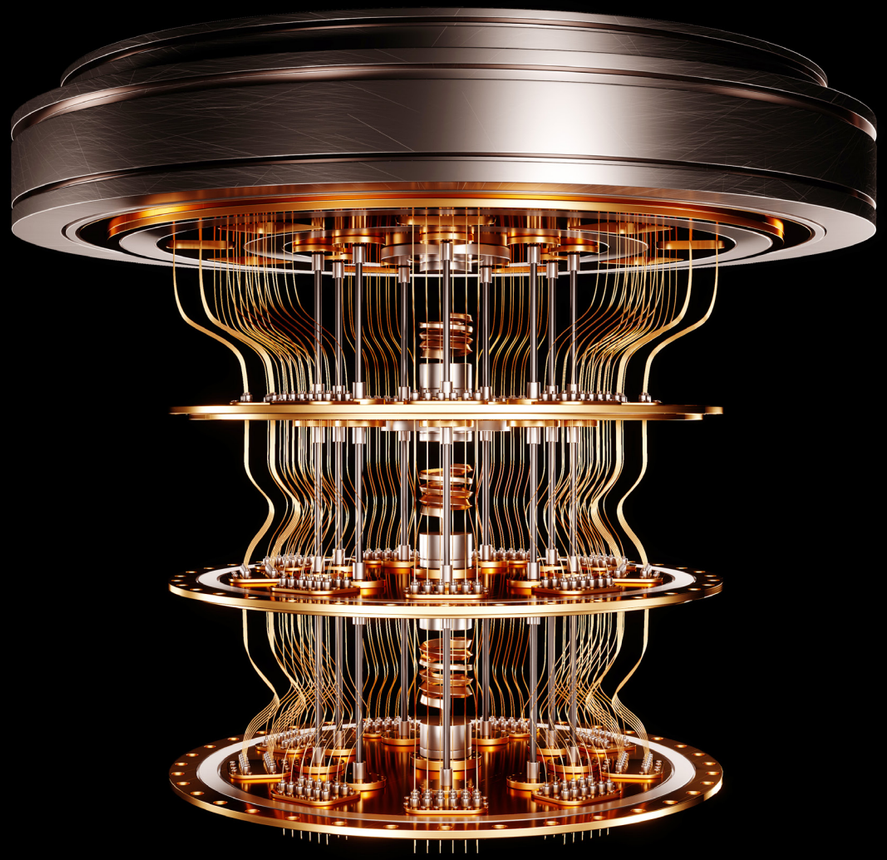
> 혁신성장 테마는 사회에 장기적,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격결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뚜렷할 것이라 예상된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혁신성장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실업률이 3.5%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대규모 해고 등 기업이 비용을 축소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대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혁신성장 테마의 장기 성장성에는 동의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도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다면 다양한 변수를 제거하고 투자 결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답은 1981년 워런 버핏의 메시지(가격결정력과 높은 성장성)에 있다.

혁신성장 테마는 사회에 장기적,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격결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뚜렷할 것이라 예상된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혁신성장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양자컴퓨터 시대가 온다, 주목할 기업은?

기존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양자컴퓨터 개발이 한창이다.
다시 한번 IT혁명을 꿈꾸는 선두주자는 누구인가?

글 **김인순** 사진 SHUTTERSTOCK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컴퓨터(퀀텀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높다. 양자컴퓨터란 현존하는 컴퓨터 중 가장 뛰어난 슈퍼 컴퓨터가 수천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를 단 몇 초 안에 풀어내는 컴퓨터다.

양자컴퓨터를 이해하려면 '큐빗'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큐빗'은 양자컴퓨터의 정보처리 단위를 뜻한다. 기존 컴퓨터의 정보처리 단위인 비트(Bit)는 정보를 0 또는 1로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컴퓨터의 큐빗(Qubit)은 동시에 0과 1로 저장이 가능하다.

양자 역학의 원리인 '중첩'이다. 두 개의 큐빗은 중첩 상태의 4가지 가능한 상태가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문제에 대한 방대한 양의 솔루션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행로를 예로 들면 기존 컴퓨터 방식은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이용하는 반면, 양자컴퓨터는 비행기, KTX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는 셈이다.

실제 구글은 3년 전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푸는 '53 큐빗' 양자컴퓨터 '시커모어'(Sycamore)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양자컴퓨터는 그간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양자컴퓨터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구글 등 빅테크는 양자컴퓨터가 기후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효율성이 큰 배터리를 만들거나 탄소 배출 없이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일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에릭 루세로(Erik Lucero) 구글 엔지니어는 "고전적인 컴퓨터를 이용해 자연의 분자를 시뮬레이션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가 그래서 필요하다"며 "자연은 양자 역학이다. 양자컴퓨터는 현실 세계의 분자 복잡성(complexity)을 분석하고, 분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능이 새로운 AI 아키텍처를 비롯해 더 나은 배터리, 에너지 효율이 높은 비료, 특정 전염병을 타깃으로 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양자컴퓨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기관의 양자컴퓨터 투자 계획 규모는 42억 달러에 달했다. 양자컴퓨터는 제조업, 제약업, 그리고 국방산업에까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왼쪽)와 큐빗(오른쪽)의 개념을 나타낸 그림.

> 양자컴퓨터는 그간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양자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모든 것을 더 빨리 수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컴퓨터는 다른 양자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적합하다. 즉, 기존 컴퓨터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시스템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처리할 수 있다. 모델링할 수 있는 양자 시스템의 예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 전기 저항 없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초전도성, 복잡한 분자 형성 등이 있다.

• 암호화

현재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시스템에는 RSA (Rivest–Shamir–Adleman) 알고리즘이 쓰인다. 방식은 소인수 분해 또는 이산로그와 같은 다루기 힘든 문제를 활용해 암호화하는 식이다. 그러나 양자컴퓨터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만들어

김인순
김인순 더밀크코리아 대표는 전자신문 ICT융합부 데스크 출신으로 20년간 보안 · 소프트웨어 분야를 전문으로 취재했다.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두 차례 수상했고,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들을 취재한 책 "파괴자들 ANTI의 역습"을 집필했다. 현재 실리콘밸리 혁신미디어 더밀크의 코리아법인을 담당하고 있다.

진 암호 중 다수를 풀 수 있다.

양자 컴퓨팅은 암호 해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양자 방식으로 암호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다. 양자암호 역시 양자역학의 특별한 현상을 이용한다. 해커가 중간에 양자 암호키를 측정하거나 정보를 관측하려 하면 양자 상태에 변화가 생긴다. 양자 상태가 변했다는 것은 암호가 변한다는 말이다. 해킹할 수 없는 암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최적화

최적화는 원하는 결과와 제약 조건을 고려해 문제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프로세스다. 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는 비용, 품질, 생산 시간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양자컴퓨터로 이 모두를 최적화할 수 있다. 기존 컴퓨터에서 양자 유도 최적화 알고리즘을 실행해 전에는 불가능했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흐름, 비행기 게이트 할당, 패키지 배달, 에너지 스토리지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양자 머신 러닝

기존 컴퓨터의 머신 러닝은 과학과 비즈니스의 세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머신 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이 분야의 개발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이 영역에서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빠른 머신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양자컴퓨터 개발은 어느 정도 단계인가

양자컴퓨터는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고, 빅테크 기업과 신생 기업이 상용화를 시작하기 직전에 와 있다.

> 양자컴퓨터는 분자의 화학반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과학이나, 약물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가 기대된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구글) CEO도 지난 2019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양자컴퓨터가 자연 세계에 대한 인류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신약과 더 나은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향후 5~10년 이내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서치 회사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의 40%가 오는 2025년까지 자체적인 양자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자컴퓨터의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생 기업들도 잇따라 투자를 유치했다. 양자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초저온에서만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하드웨어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신생 업체가 늘었고, 지난해 벤처 캐피털의 투자 규모는 14억 달러에 달했다.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 코웬(Cowen)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와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간 50%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4억 7,500만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5년까지 약 25억 달러, 2030년 1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양자컴퓨터는 분자의 화학반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과학이나, 약물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제약, 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리시 샨커(Krish Sankar) 코웬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기업이 상용화를 위한 충분한 큐빗을 얻기 위해 향후 3~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자컴퓨터 전쟁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양자기술에 눈독을 들였다. 미국은 국가 차원 연구 지원을 위해 2018년 12월 국가양자연구집중지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통과시켰다. 또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의 연구센터 설립 및 연구 지원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100억 달러를 투자해 양자 시스템을 연구해 왔으며 이에 앞선 2016년 11월에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70억 위안을 들여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양자정보 및 양자과학기술혁신연구원'(量子信息与量子科技创新研究院)을 설립하고, 중국 최초의 통합형 양자 실험실을 건설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 지시로 2018년부터 1천억 위안(약 17조 5천억원)을 투자해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66큐빗 양자컴퓨터 '주충즈(祖冲之)2호' 개발에 성공했다.

양자기술은 나라 간에 공유하지 않는 전략기술이다. 양자기술 보유 여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중이 양자 전쟁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분야는 한국이 잘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뒤처진 상태에서 잘하는 나라를 보고 따라하는 것은 너무 늦다.

양자컴퓨터 개발 나선 빅테크

현재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에 달한다. 구글, IBM 등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D-웨이브 시스템(D-Wave Systems), 리게티 컴퓨팅(Rigetti Com-puting), 아이온큐(IonQ), 그리고 퀀텀 컴퓨팅(Quantum Computing) 등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선 구글과 IBM이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알파벳의 구글은 지난 2019년 시커모어라고 불리는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의 50 제곱 규모의 정보를 연산할 수 있는 '50 큐빗'은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기준점으로 여겨지는데, 시카모어는 54 큐빗의 양자컴퓨터이다. 구글은 시커모어로 이전에 1만 년이 걸렸던 연산을 단 수백 초에 작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글은 100 큐빗 양자컴퓨터를 구축한 상태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퀀텀 AI 캠퍼스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 100여 명의 직원이 20여 대의 양자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9년에는 상업용 양자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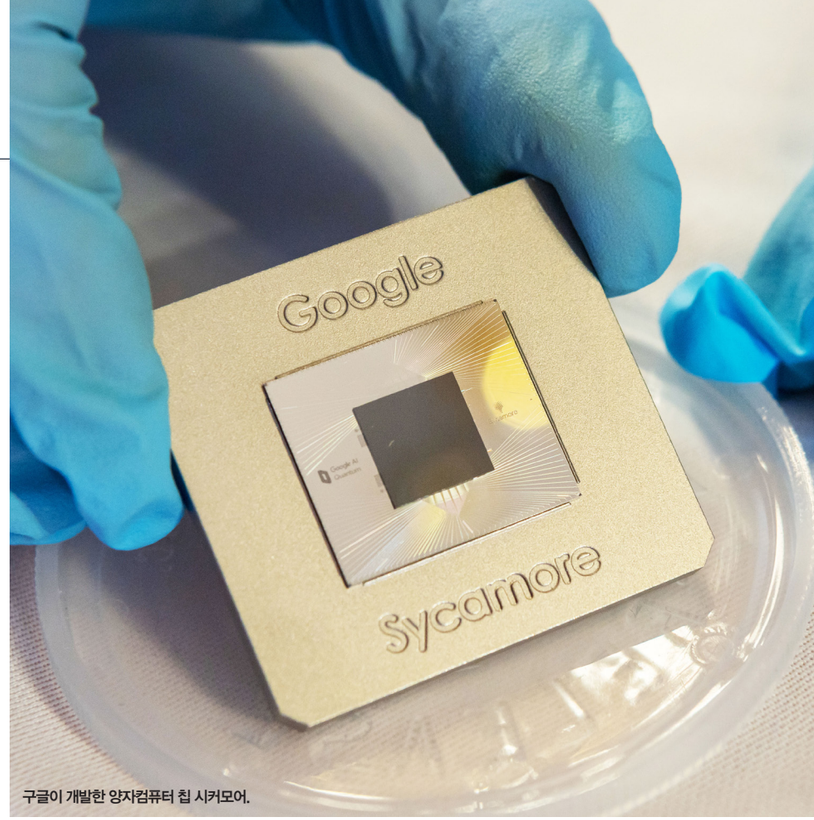
구글 퀀텀 AI랩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양자컴퓨터 개발 연구소 '퀀텀 AI 캠퍼스'를 만들었다. 양자 데이터 센터, 양자 하드웨어 연구 실험실, 그리고 자체적인 양자 프로세서 칩 제조 시설이 있다.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를 만들고, 오류를 수정하면서 목표치의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원스톱 양자컴퓨터 기반을 구축했다.

구글 퀀텀 AI 랩에서는 양자컴퓨터 장치의 작동, 결과 측정을 위한 신호 생성 및 전달, 신호 판독 등에 필요한 극저온 장치와 배선 하드웨어를 개발한다.

연산의 오류를 수정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규모에 맞는 큐빗 성능 개선을 위해 계측 및 보정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초전도 프로세서 개발 작업도 이 랩에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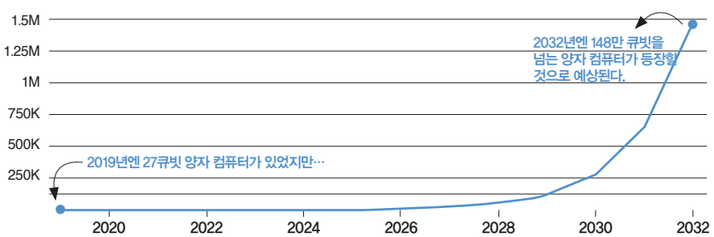
특히 퀀텀 슈프리머시(quantum supremacy)로 불리는 '양자 우위'에 대한 실험도 랩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과정은 세



구글이 개발한 양자컴퓨터 칩 시커모어.

큐빗의 폭발적인 성장

퀀텀 컴퓨팅에서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인 큐빗은 가까운 미래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 IBM, Bernstein)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회로를 선택하고, 양자컴퓨터에서 이를 실행하고, 기존 컴퓨터에서 구동하는 방식이 양자컴퓨터에서는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한다. 이런 회로의 복잡성을 늘려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기존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는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리라고 기대된다.

구글 연구소에서는 20여 대의 양자컴퓨터가 구동되고 있다. 에릭 루세로 구글 엔지니어는 "각 컴퓨터마다 구동 목적이 다르다. 실험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양자 오류 수정 이론 구축, 실험,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BM의 퀀텀 야심

IBM은 2022년 11월 뉴욕에서 'IBM 퀀텀 서밋'을 열고 433 큐빗 정보처리장치(프로세서)인 '오스프리'(Osprey)를 공개했다. IBM은 2019년 27큐빗의 프로세서 '팰컨', 2020년 65큐빗의 '허밍버드', 2021년 127큐빗의 '이글'을 내놨다. 2023년에는 1,121개의 큐빗으로 구성된 '콘돌'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IBM의 오스프리는 이글 프로세서의 127큐빗보다 3배 이상 많은 큐빗을 갖고 있다.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양자 회로를 실행할 수 있다. 기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비트로 IBM 오스프리 프로세서의 상태를 나타내려면 이미 알려진 우주의 총 원자 수보다 많은 수의 비트가 필요하다.

다리오 길(Dario Gil) IBM 수석 부사장 겸 리서치 총괄 책임자는 "오스프리 프로세서로 인해 이전에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게 될 시점이 좀 더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2019년 초 20큐빗의 양자 프로세서를 탑재한 IBM 퀀텀 시스템 I의 등장을 시작으로 IBM 퀀텀 시스템은 2025년 이후 4천 개 이상의 큐빗 제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발전하고 있다. IBM 퀀텀 시스템은 여러 개의 양자 프로세서를 연결해 단일 시스템 안에 탑재된 형태이다. IBM은 IBM 퀀텀 서밋을 통해 모듈식으로 설계된 새로운 시스템인 IBM 퀀텀 시스템 II의 업데이트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IBM은 2023년 말 IBM 퀀텀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중이다. IBM은 IBM 퀀텀 시스템이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은 모듈식 아키텍처와 양자 통신을 써서 컴퓨팅 용량을 늘린다. 퍼블릭 클라우드(전체 공개된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특정 개인/단체 전용 클라우드)를 연결시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미들웨어를 활용해 양자 컴퓨팅과 기존 컴퓨팅의 데이터 입력, 전송 및 처리 체계를 원활하게 통합하는 차세대 양자 컴퓨팅 방식이다.

IBM의 수석부사장 겸 리서치 총괄책임자인 다리오 길이 IBM이 개발 중인 양자컴퓨터 앞에 서 있다.

제이 감베타(Jay Gambetta) IBM 펠로우 겸 IBM 퀀텀 부사장은 "우리가 만들어낸 혁신은 모듈화, 통신 및 미들웨어를 활용해 양자 규모, 연산 성능을 확장하고, 양자 컴퓨팅과 기존 클래식 컴퓨팅을 통합하는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을 차세대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퀀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양자물리학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토폴로지 큐빗'(topological qubits)을 연구하여 차세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에 고객이 양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퀀텀(Azure Quantum)을 출시했다. 애저 퀀텀은 다양한 양자 솔루션 및 기술을 갖춘 애저의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서비스다.

애저 퀀텀은 특정 시스템에 대해 동일한 알고리즘을 테스트 및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며 한 번에 여러 플랫폼에 대한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아마존도 도전장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21년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양자컴퓨팅 센터를 열었다.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내에 위치한 양자컴퓨팅 센터는 약 1,950㎡ 규모의 2층 건물이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과 협력해 지난 2년 동안 건설했다. 양자컴퓨팅 센터 건설에 참여한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연구원은 기술팀으로 양자컴퓨터 연구에 지속 참여한다.

AWS 양자컴퓨팅 센터의 목표는 시스템 일부가 작동을 멈춰도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킬 수 있는 내결함성 양자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양자컴퓨터는 빛 등 외부 자극에 민감한 양자를 이용하는 만큼 오류율이 높은데 양자컴퓨터를 상용화하려면 특정 수준까지 오류율을 낮춰야 한다. AWS는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 양자를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소재를 만들어 둘러 쌓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하는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방식의 내결함성 기능을 탑재해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한다.

양자컴퓨터 개발 신생 기업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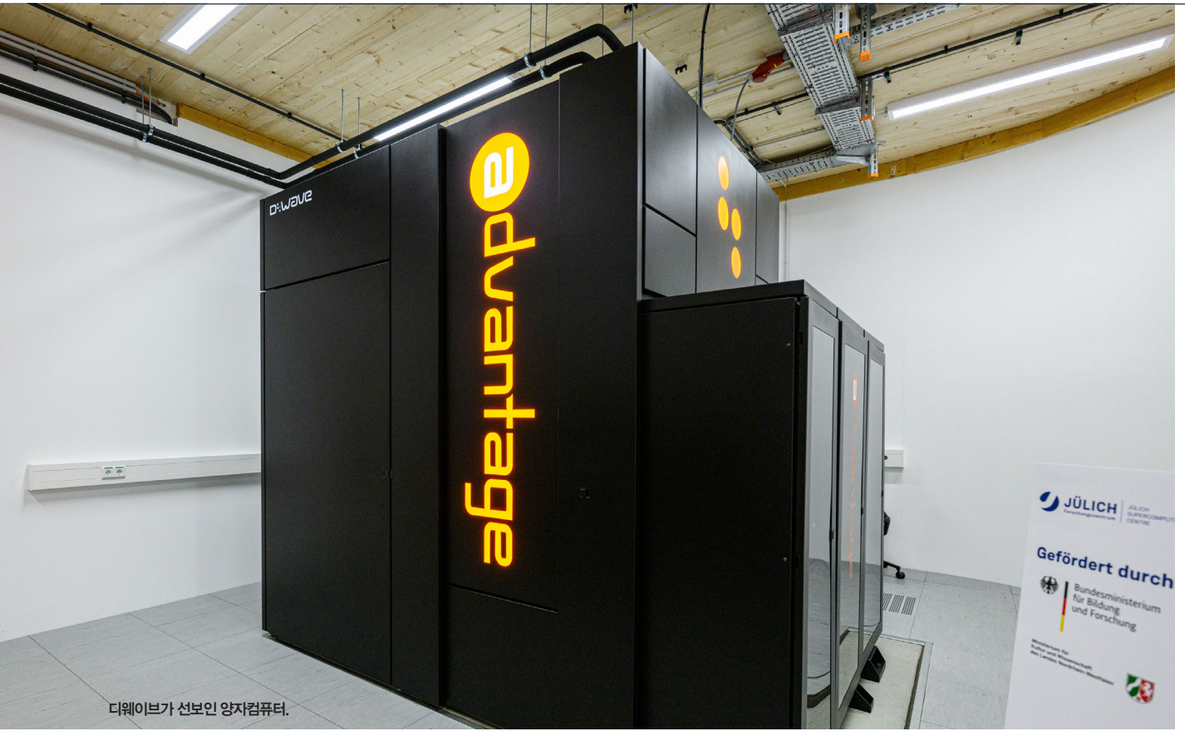
지난 2015년 설립된 미국의 아이온큐는 범용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다. 맞춤형 하드웨어와 펌웨어, 운영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큐빗의 양자컴퓨터를 개발했으며 서비스로서의 양자컴퓨팅(QCaaS) 플랫폼을 제공한다.

아이온큐는 양자물리학을 연구한 크리스토퍼 먼로(Christopher Monroe)와 김정상 박사 등이 2015년에 공동 설립한 회사다. 먼로 박사는 메릴랜드 대학 퀀텀 그룹을 이끌었다. 이 팀은 1995년 첫 번째 성공적인 양자 논리 게이트를 시연했다. 김 박사는 듀크대에서 양자학을 연구했다. 현재 먼로 박사는 아이온큐의 최고과학자(Chief Scientist)이며 김 박사는 최고기술책임자(CTO)다.

2014년 물리학에 관심이 높았던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NEA)의 해리 웰러(Harry Weller)는 먼로와 김 박사의 논문을 읽고 투자를 결심했다. NEA는 두 과학자에게 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아이온큐의 시작이었다.

아이온큐는 2017년 구글벤처스(GV), 아마존웹서비스(AWS), NEA에서 추가

> IBM, 구글, 아마존 같은 빅 테크 외에도 아이온큐, 디웨이브, 리게티 컴퓨팅 등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다.



디웨이브가 선보인 양자컴퓨터.

로 2천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2년 후 아마존 프라임 기술을 이끈 핵심 연구자 피터 채프먼(Peter Chapman)이 CEO로 합류했다. 채프먼 CEO는 아마존 이전에는 현재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웨일(Ray Kurzweil)이 만든 컴퓨터 회사 K-NFB 리딩 테크놀로지(K-NFB Reading Technology)를 경영했다. 그의 합류 후 아이온큐는 삼성전자,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에어버스 벤처스(Airbus Ventures), 로버트 보시 벤처 캐피털(RBVC), 휴렛패커드(HP), 무바다라 캐피털(Mubadala Capital) 등에서 5,5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채프먼 CEO는 2019년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파트너십을 맺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초기 단계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온큐는 애저와 AWS 클라우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양자 컴퓨팅 서비스다.

> 양자컴퓨터 상용화와 관련된 업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10년 안에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거품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아이온큐는 소프트뱅크 투자금으로 엑스박스 비디오게임 콘솔 기기 크기의 퀀텀 컴퓨터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온큐는 하드웨어 판매와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지원, 퀀텀 애플리케이션 공동 개발 등 4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며, 6세대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아이온큐는 지난 2021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순수 양자컴퓨터 개발 회사로 이름을 올렸다.

'D-웨이브 시스템'은 1999년에 설립된 캐나다의 양자컴퓨터 회사다. 지난 2011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양자컴퓨터 '디웨이브 원'(D-Wave One)을 출시했다. 현재 5세대 양자컴퓨터를 출시했으며 개발 중인 6세대 양자컴퓨터는 500개 이상의 큐빗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8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디웨이브 시스템은 양자컴퓨터 어닐링(anealing, 아날로그 방식 양자컴퓨터 작동원리)이 전문이다. 어닐링은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자율차량 경로 설정 등을 간소화하는 데 쓰인다. 디웨이브 시스템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다. 이 회사의 주요 파트너는 딜로이트(Deloitte), 폭스바겐(VW), 존슨앤존슨(J&J), 록히드 마틴 등이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리게티 컴퓨팅은 양자컴퓨터용 회로를 개발하고, 엔지니어가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리게티는 2021년 40큐빗 프로세서 두 대를 함께 모으는 모듈식 디자인을 내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80큐빗 시스템을 발표했다. 리게티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해 2024년에 약 1천 큐빗 시스템, 2026년에 4천 큐빗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나스닥에 상장한 퀀텀 컴퓨팅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로 비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풀스택 양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캐털리스트'(Catalyst) 라는 실행 가능한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양자 광자 시스템을 개발한 큐포톤(QPhoton)을 인수했다.

투자회사 코웬은 리게티 컴퓨팅에 대해 "투자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에드워드 우(Edward Wu) 애스디언트(Ascdiant) 캐피털 마켓 애널리스트는 퀀텀 컴퓨팅에 대해 "마케팅 강화로 인해 내년에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애널리스트는 최근 퀀텀 컴퓨팅에 대한 목표 주가를 9.5달러로 인상했다. 2022년에 이 회사 주식은 33% 가까이 급락했다. 이밖에도 코웬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pplied Materials)와 MKS 인스트루먼트(MKS Instruments)와 같은 회사를 양자컴퓨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꼽았다.

코웬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초전도 칩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자제품 공급업체인 MKS는 양자컴퓨터 개발 분야에 필요한 산업용 레이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자컴퓨터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기업명	티커	의견 평균	종가(9/23)	연초대비	목표가 평균
리게티 컴퓨팅	RGTI	매수	$1.83	-82%	$9.67
퀀텀 컴퓨팅	QUBT	매수	$2.27	-33%	$9.50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AMAT	매수	$84.29	-46%	$128.36
MKS 인스트루먼트	MKSI	매수	$84.82	-51%	$143.89
알파벳	GOOG	매수	$99.17	-31%	$141.76
IBM	IBM	매수	$122.71	-8%	$141.90
마이크로소프트	MSFT	매수	$237.92	-28%	$326.09

자료: 팩트셋, 데이터래퍼, CNBC

투자 리스크, 생명과학 분야만큼 크다

양자컴퓨터 상용화와 관련한 업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양자 전문가로 IBM 출신의 마르코 피스토이아(Marco Pistoia)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 "양자 우위(양자컴퓨터가 전통적인 슈퍼컴퓨터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계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순간)가 10년 안에 실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양자컴퓨터는 아직 강력하지 않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 뒤처지지 않게 그 순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리시 샌커 코웬 애널리스트는 양자컴퓨터의 초기 단계를 약물이 언제 출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생명 공학 회사에 비유했다. 일부에서는 양자컴퓨터가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없는 '과장된 거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물리학자인 니키타 구리아노프(Nikita Gourianov) 옥스퍼드대 교수는 최근 "대규모의 결함 없는 양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언급했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다른 곳에서 위험이 뒤따른다는 의견도 있다. 양자컴퓨터는 웹사이트나 이메일의 암호화 기술을 뒷받침하는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 기업들과 IT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훔치는 등의 부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실제 JP모건 체이스는 양자컴퓨터 개발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팀을 꾸려, 보다 안전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개발에 나섰다.

거시경제 위기에 따른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거래 위축도 불안 요인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는 크게 위축됐다. 대부분의 스팩 상장 기업이 상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용화가 미지수인 양자컴퓨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자칫 투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쓰비시지쇼 VS 미쓰이부동산

도쿄 중심가 재개발 전쟁에서 미쓰비시와 미쓰이가 맞붙었다.

글 마츠자키 다카시
사진 SHUTTERSTOCK, GETTY IMAGES

일본의 수도, 도쿄. 면적은 서울의 3.6배(2,193㎢), 인구는 1.4배(1,400만 명)인 대도시다. 23개의 특별구와 타마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도기능이나 금융기관, 대기업은 지요다구, 미나토구, 츄오구의 도심 3구에 집중되어 있다.

도쿄역 주변 재개발이 포인트

그 도심 3구 중 하나인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1가에 있는 것이 도쿄의 관문인 도쿄역이다. 이곳에서는 일반기차와 신칸센이 하루 3천 회 오가며, 환승 없이 일본 전국 33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직결되는 일본 최대의 터미널역이다. 버스를 타면,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에도 원 스톱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것이다.

이 도쿄역 주변의 마루노우치(丸の内)·야에스(八重洲) 지역에서는 요즘 상업 복합 시설이나 오피스 빌딩이 계속 들어서며 도시의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와 미쓰이부동산(三井不動産)이다. 모두 2차대전 전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재벌을 뿌리로 하는 기업이다.

미쓰비시지쇼는 도쿄역을 중심으로 다이마루유 지구(지요다구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라쿠초)에 30동 이상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루노우치에는 미쓰비시 UFJ은행·미쓰비시상사·미쓰비시중공업 등 미쓰비시그룹 주요 기업의 본사 빌딩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미쓰비시지쇼를 '마루노우치의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마루노우치에는 미쓰비시그룹 주요 기업의 본사 빌딩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미쓰비시지쇼를 '마루노우치의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쓰비시지쇼가 도쿄역 일대의 재개발에 나선 것은 1998년경부터다. 오피스 거리였던 도쿄역 주변의 빌딩을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덧붙여진 초고층 복합 상업 빌딩으로 재건축함으로써, 빌딩의 입주율과 임대료를 높이려 한 것이다. 미쓰비시는 그때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9,500억 엔(9조 1,100억원)을 투입해 재개발을 진행했다.

그 제1단계가 1998년부터 2007년에 걸쳐 진행된 재건축이다. 이때 등장한 것이 마루노우치 빌딩(마루 빌딩), 일본공업클럽회관·미쓰비시 UFJ신탁은행 본점 빌딩, 마루노우치 오아조, 도쿄 빌딩, 신마루노우치 빌딩(신마루 빌딩), 더 페닌슐라도쿄 등 6개 건물이다.

2009년부터의 2단계에는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미쓰비시 1호관(후루카와 빌딩·마루노우치 야에스 빌딩·미쓰비시 상사 빌딩 3동의 동시 재건축), 마루노우치 에이라쿠 빌딩, 오테마치 파이낸셜 시티 노스타워, 오테마치 호토리아(리소나·마루하빌딩과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 오테마치 빌딩의 재건 계획), 마루노우치 이중교 빌딩(후지빌딩·도쿄 아키라빌딩·도쿄 상공 회의소 빌딩 3동의 재건축 계획), 오테마치 파이낸셜 시티 그라인 큐브(오테마치 연쇄형 도시 재생 프로젝트 제3차 사업) 등의 건축이 2018년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미쓰비시의 도키와바시 프로젝트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미쓰비시지쇼는 2020년 이후에도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라쿠초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전력하고 있다. 그것이 앞서 말한 1, 2단계를 넘어 3단계로 나아가는 '마루노우치 넥스트 스테이지'다. 혁신 진작과 디지털 기반 강화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의 발견·해결을 도모하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루노우치 넥스트 스테이지'는 유라쿠초 지역과 도키와바시 지역의 정비가 중심이다. 2030년까지 약 6천억~7천억 엔을 건축과 인프라 정비에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단순히 마루노우치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의 ①유라쿠초에서 긴자·히비야 ②도키와바시에서 니혼바시·야에스 ③오테마치에서 간다 등 3개 주변 지역의 연결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역 재개발의 테마는 '마루노우치 리디자인', '사람·기업이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낳는 무대'를 창조하는 것. 세부 항목으로 '마루노우치형 혁신·에코시스템의 진화', '에코 시스템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CO2 배출량 제로', '폐기물 재생 이용률 100%', '자연 재

마츠자키 다카시(松崎隆司)
경제 저널리스트. 기업경영이나 M&A, 고용, 사업승계, 비즈니스모델, 경제사건 등을 취재. 현재 니케이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 프레지던트 등의 경제지나 종합지, 산케이비즈니스아이, 일간 겐다이 등에 기고하고 있다.

미쓰비시지쇼가 야심차게 선보인 도쿄의 도키와바시타워. 38층의 초고층빌딩이다.

해에 의한 도시 기능 정체 제로', '거리 보행자의 행복도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미 히비야의 '마루노우치 1-3 계획'은 2020년 9월, 오테마치 빌딩 리노베이션 계획은 2021년 3월에 끝났다.

현재 미쓰비시지쇼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도쿄역 니혼바시 앞에 있는 지요다구 오테마치 2가의 '도키와바시 프로젝트'이다. A동-'도키와바시타워', B동-'토치타워', C동-'변전소동', D동-'하수도국동'의 4동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다.

A동 도키와바시타워는 높이 212m, 연면적 약 14만 6천㎡, 지상 38층, 지하 5층의 초고층 빌딩이다. 2021년 6월 30일에 준공했으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있는 상업 존, 도쿄 토치 테라스(TOKYO TORCH Terrace)는 7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업 중이다. B동의 '토치타워'는 높이 390m, 연면적 54만 4천㎡, 지상 63층, 지하 4층으로 도쿄타워(333m)보다 높은 일본 제일의 초고층 빌딩이다. 호텔이나 홀, 상업 시설 등을 가진 일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2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니혼바시의 주인, 미쓰이부동산

한편 미쓰비시지쇼의 라이벌, 미쓰이부동산도 도쿄 야에스 지역의 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미쓰이 부동산은 미쓰이물산, 미쓰이은행과 함께 일본 최대의 재벌이라고 했던 구 미쓰이 재벌의 맥을 잇는 미쓰이 그룹의 핵심 기업 '미쓰이 신고산케'(新御三家, 새로운 3총사라는 뜻) 가운데 하나이며, 일본 최대의 부동산 회사이다.

미쓰이부동산은 니혼바시에 다수의 빌딩을 갖고 있고, 본사도 있기 때문에, '니혼바시의 주인'이라고 불린다. 지난 고도성장기에는 재빨리 지방도시에 진출했고, 1968년에는 일본 최초의 초고층 빌딩 '가스미가세키 빌딩'을 세워 이름을 떨쳤다.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씨(DisneySee)의 사업지주회사이며, 오리엔탈랜드를 게이세이전철과 함께 설립한 것도 미쓰이부동산이다.

미쓰이부동산은 1999년 도큐백화점 니혼바시점(구 시라키야)의 폐점을 계기로 주변지역 재개발에 착수했다. 2000년대에는 '니혼바시 재생 계획'을 주도하고, 2004년에는 코레도 2, 3빌딩(니혼바시 잇초메 빌딩)을 세웠다.

2007년에는 미나토구 롯폰기의 방위청 유적지에 도쿄 미드타운을 만들면서 고급 호텔, 리츠 칼튼 도쿄나 산토리 미술관을 유치해 복합 재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했고, 2018년에는 또 다시 유라쿠초에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미쓰이부동산이 야에스 2가 북구의 시가지 재개발 조합의 일원으로서 선보인 것이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다. 연면적 약 29만㎡, 높이 약 240m, 지상 45층, 지하 4층의 고층 빌딩이다. 지하 1~3층의 상업 플로어에는 57개 점포가 입점 예정이고, 2023년 3월에 그랜드 오픈(지하 1층 13개 점포는 선행 오픈)할 예정이다.

39~45층은 일본에 처음 진출하는 불가리 호텔 & 리조트의 '불가리 호텔 도쿄', 7~38층은 오피스 스페이스다. 오피스 스페이스는 도쿄역 주변에서는 최대급인 기준층 전용면적 약 4천㎡이고, 24층에는 피트니스와 입주자 전용 무료 라운지가 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야에스 지하상가나 JR도쿄역으로 통하고, 지하 2층에는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도쿄역 앞 3지구의 재개발 사업과 이어진다. 이 터미널은 도쿄역 주변의 도로에 분산되어 있는 고속버스 정류소를 모아서, 국제공항이나 지방도시와 연결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버스 터미널이 된다.

또한 초등학교와 육아지원시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육아와 교육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 건물 중에는 주변 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에너지 플랜트를 설치해, 방재 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 부하를 가볍게 만들었다.

미쓰이부동산은 인접한 야에스 2가 중구에서도 가시마건설, 스미토모부동산, 한큐한신부동산, 휴릭 등과 공동으로 2028년 준공 목표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완성되면 지상 43층, 지하 3층, 사무실, 점포, 극장, 아파트, 인터내셔널 스쿨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복합빌딩이 된다. 야에스 미드타운과는 지하 1층의 보도로 연결되어, 에너지 제휴에 의한 환경 부하 저감이나 재해 시 지원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이다.

> '니혼바시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미쓰이부동산은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씨의 사업지주회사이며, 오리엔탈랜드를 게이세이전철과 함께 설립했다.

꼬리를 무는 초고층빌딩 프로젝트

야에스 지역의 재개발에는 미쓰비시지쇼나 미쓰이부동산 이외에 다른 회사도 움직이고 있다. '야에스 1가 동구'에서는 구 야스다 재벌계 기업으로 야스다 젠지로가 설립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부동산 회사, '도쿄건물'이 중심이 되어 2025년 준공 목표로 초고층 빌딩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1만㎡의 부지에 연면적 22만㎡, 높이 250m인 지상 51층, 지하 4층의 고층 빌딩이다. 중고층에는 오피스, 저층에는 극장이나 의료 시설이 들어가고, 지하에는 버스 터미널이 자리잡게 되어 있다.

도쿄건물은 '도키와바시 프로젝트'에 인접한 야에스 1가 북구에서도 사무실, 숙박시설, 점포, 종교시설, 고도 금융 인재 지원시설로 이루어진 연면적 약 18만㎡, 높이 약 235m, 지상 45층, 지하 5층의 초고층 빌딩을 추진 중이다. 준공은 2035년 예정이다. 이 밖에 스미토모부동산도 야에스 후지야 호텔 유적지가 있는 야에스 2가 남구의 재개발 사업 등을 앞두고 있어 향후 야에스 지역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도쿄역 뒤 왼쪽에 있는 미쓰이부동산의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앞에 있는 도쿄역으로 지하로 연결되며 지하 2층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버스 터미널이 들어온다.

인도의 초고속 성장 기업 리스트

최근 인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기업은 과연 어느 곳일까?
상장 기업의 재무상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SYNDICATION/BUSINESS WORLD

팬데믹 이후 인도는 제조업뿐 아니라 전체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의 잠재력이 무섭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 기업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월드가 글로벌 컨설팅 분석업체인 테크사이 리서치(TechSci Research)와 협업하여 상장기업의 재무 상태를 심층 분석한 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2022년 초고속 성장 기업'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업 리스트는 500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은행 및 금융기업과 무역회사는 제외했다. 또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기업을 2021-22년 총수익(Total Income, 매출액에 기타 수익을 더한 수치)을 기준으로 슈퍼헤비급, 헤비급, 미들급, 웰터급 4개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먼저 슈퍼헤비급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은 총수익이 5천억 루피 이상인 기업이다. 두 번째 헤비급의 총수익은 1천억~4,999억 9천만 루피이다. 세 번째 미들급의 총수익은 500억~999억 9천만 루피, 네 번째 웰터급의 총수익은 100억~499억 9천만 루피이다. 총수익 99억 9천만 루피 이하 기업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기업 순위는 지난 4년간의 총수익 및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Profit After Tax, 이하 세후순이익)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초로 하였다. 총수익이나 세후순이익이 마이너스이거나 2018년 회계연도 또는 2022년 회계연도에 손실을 보고한 기업, 2022년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기업도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총수익의 연평균성장률(2018~2022 회계연도 기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고 세후순이익(2018~2022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가중치는 낮추었다. 이는 매출 성장이 성장을 나타내는 최종 순위를 매기는 데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기준으로 208개 기업만이 최종 리스트에 올랐다. 이 중 각 카테고리의 상위 1위 기업을 소개한다.

초고속 성장하는 인도 상장기업 순위

전체 순위	기업명	전체 순위	기업명
1	디팍 나이트라이트 (Deepak Nitrite/화학)	16	진달 스테인레스 (Jindal Stainless)
2	ACG 네트웍스 (AGC Networks)	17	SRF (산업 화학)
3	아폴로병원그룹 (Apollo Hospitals Enterprise)	18	코스모 퍼스트 (Cosmo First)
4	킬로스카르 페로스 인더스트리 (Kirloskar Ferrous Industries)	19	슈프림 페트로켐 (Supreme Petrochem)
5	JSW 에너지 (JSW Energy)	20	디비스 래버러토리 (Divi's Laboratories/제약 바이오)
6	인더스타워 (Indus Tower/통신 서비스)	21	오일 인디아 (Oil India)
7	고쿨 아그로 리소스 (Gokul Agro Resources/식품)	22	크레딧엑세스 그라민 (CreditAccess Grameen)
8	고다와리 파워&이스팟 (Godawari Power&Ispat/금속 및 채광)	23	그래뉼스 인디아 (Granules India/항생제 기업)
9	구자라트 가스 (Gujarat Gas)	24	JSW 스틸 (JSW Steel)
10	JK 락시미 시멘트 (JK Lakshmi Cement)	25	UPL (산업용 화학약품)
11	라우러스 랩 (Laurus Labs/제약)	26	참발 비료&화학 (Chambal Fertilisers & Chemicals)
12	인도 틴플레이트 회사 (Tinplate Company of India)	27	유플렉스 (Uflex/유연포장기업)
13	APL 아폴로 튜브 (APL Apollo Tubes/병원)	28	구자라트 석유 공사 (Gujarat State Petronet)
14	나라야나 흐루다얄라야 (Narayana Hrudayalaya)	29	아르티 인더스트리 (Aarti Industries)
15	PNC 인프라테크 (PNC Infratech)	30	레일 비카스 니감 (Rail Vikas Nigam)

*지난 5년간 총수익 및 세후순이익의 연평균성장률 합산. 총수익에 가중치 자료: 비즈니스월드, 테크사이 리서치

> 이번 기업 리스트는 500대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정확한 비교를 위해 기업을 2021~22년 총수익 기준으로 슈퍼헤비급, 헤비급, 미들급, 웰터급 4개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슈퍼헤비급 1위

인도 최고의 종합철강회사 JSW 스틸

인도의 선두 기업이자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철강회사인 JSW 스틸은 혁신, 디지털화, 지속가능성을 핵심 동력으로 사업 전반적으로 큰 성장을 기록했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효율적 통합 운영 시스템과 명확한 비전을 지닌 JSW 스틸은 전략적인 성장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JSW 스틸의 총수익은 2018~2022 회계연도간 약 19%라는 탄탄한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했고 세후순이익의 연평균성장률은 36%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퍼헤비급 카테고리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

지난해 기준 JSW 스틸의 조강 생산능력은 연 2천7백만톤이며, 올해는 3천7백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JSW 스틸은 13개 이상의 철광석 광산을 보유하고 있고 100개국 이상에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1년 기준 1만 3천 명 이상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JSW 스틸의 기업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JSW 스틸은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비용 최적화 및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효율성을 바탕으로 성장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JSW 스틸의 사잔 진달 회장은 "우리는 저탄소 제품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기술 도입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모든 주주에게 우리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함없는 철강 수요와 전망

지난 6년간 JSW 스틸의 생산 능력은 2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달러표시 지속가능연계채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목표치와 연동해 이자율 구조가 달라지는 채권)을 발행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사잔 진달 회장은 "지난 회계연도는 주요 부문이 코로나 19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차츰 회복하는 단계였다. 비록 글로벌 성장 기대치가 낮아졌지만, 철강과 같은 원자재는 경기가 안 좋아도 수요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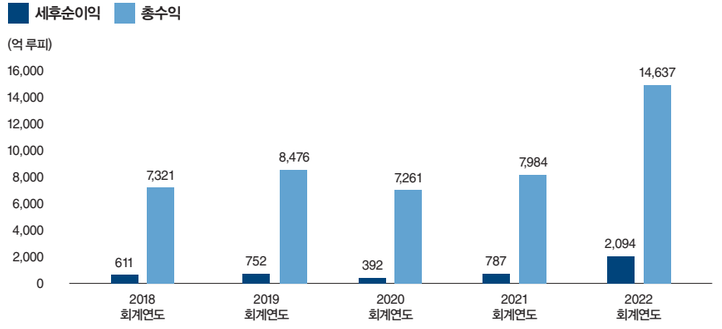
> "우리는 철강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JSW 스틸의 사잔 진달 회장

2021–2022 회계연도에 JSW 스틸의 EBITDA(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순이익)는 3,900억 루피, 세후순이익은 2,094억 루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사회는 또한 주당 17.35루피라는 파격적인 배당금을 승인했다.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탄탄한 현금흐름 및 매우 강력한 신용 지표로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잔 진달 회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의 설비가동률은 8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기록적인 철강 생산량을 달성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부가가치 및 특수 제품에 계속 중점을 두고 있다. 2021–2022 회계연도 매출의 60%가 특수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JSW 스틸은 현재 돌비 제철소(Dolvi Works)의 확장을 추진 중으로, 이는 인도 철강 산업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확장 계획이며, 인도 최대의 용광로 및 철강 공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잔 진달 회장은 "우리는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잔 진달 회장은 "인도는 세계 철강 무역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는 생산능력을 현재 연 2천7백만톤에서 3천7백만톤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전을 밝혔다. 또한 제철소의 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하여 JSW 스틸의 총 생산능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인도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ex) 2018 회계연도: 2017.04.01~2018.03.31

자료: JSW 스틸 홈페이지

기업 현황 JSW 스틸

매출 5천억 루피 이상	
연평균성장률(총수익)	연평균성장률(세후순이익)
2018–2022 회계연도	2018–2022 회계연도
18.91%	36.04%

SYNDICATION/BUSINESS WORLD

헤비급 1위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아폴로병원그룹

인공지능, 3D 프린팅, 디지털화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아폴로병원그룹은 미래로 도약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지난 40년 동안 아폴로병원그룹은 환자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에 필적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아폴로병원그룹의 프라탑 C. 레디 회장은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의료의 미래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이 이끌어갈 것이다. 로봇 공학과 3D 프린팅은 의료계 전반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향상된 의료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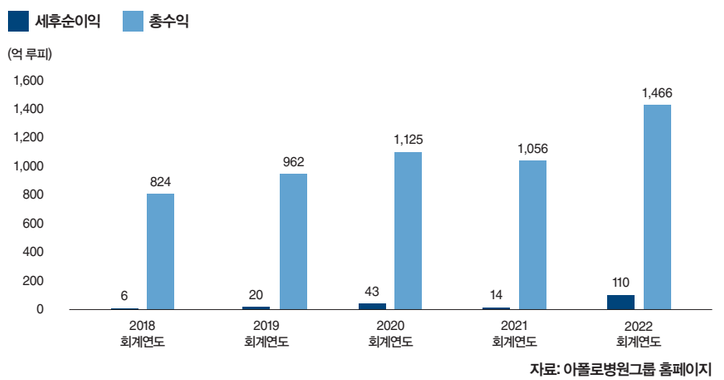
아폴로병원그룹은 2018–2022 회계연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훌륭한 능력을 지닌 의사들이 최첨단 시설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향상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 회계연도에 아폴로병원그룹은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디지털 의료서비스 플랫폼인 아폴로247과 아폴로 헬스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아폴로 헬스코는 1차 진료, 진단, 약국 유통 및 관리 서비스를 넘어 고객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의료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향후 3년 동안 총거래액 30억 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150만 평방피트의 최첨단 웰니스 복합 단지 건설을 위해 첸나이에 7.3에이커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프라탑 C. 레디 회장은 여기에 통합형 병원과 연구소 등을 건립해 차세대 의료 서비스에 중점을 둔 시설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이 외에도 2022 회계연도에 아폴로 다이애그노스틱스는 1분기 동안 10억 루피의 매출을 올렸다. 향후 36개월 내 100억 루피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병원의 네트워크를 두 배로 가동해 향후 12~15개월 동안 2천 명 이상의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점점 더 진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전방위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료: 아폴로병원그룹 홈페이지

> "우리는 첸나이에 병원과 연구소 등을 추가 건립해 차세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설계할 계획이다."

아폴로병원그룹의 프라탑 C. 레디 회장.

이러한 모든 성과는 1983년 프라탑 C. 레디 회장이 인도 최초의 기업형 병원인 아폴로병원그룹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아폴로병원그룹은 16만 건 이상의 심장 수술을 진행하여 인도에서 가장 큰 심장 전문병원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병원이며, 세계 최고의 고형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폴로병원그룹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의료 그룹으로서 71개 병원에 9,911개 병상, 4,529개 약국, 200개 이상의 1차 진료 및 진단 클리닉, 148개 원격의료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현황 아폴로병원그룹

매출 1천억~4,999억 루피

연평균성장률(총수익)	연평균성장률(세후순이익)
2018–2022 회계연도	2018–2022 회계연도
15.48%	107.36%

SYNDICATION/BUSINESS WORLD

미들급 1위

선도적인 화학회사 디팍 나이트라이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화학 산업에서 지속가능하고 성장 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디팍 나이트라이트의 디팍 C. 메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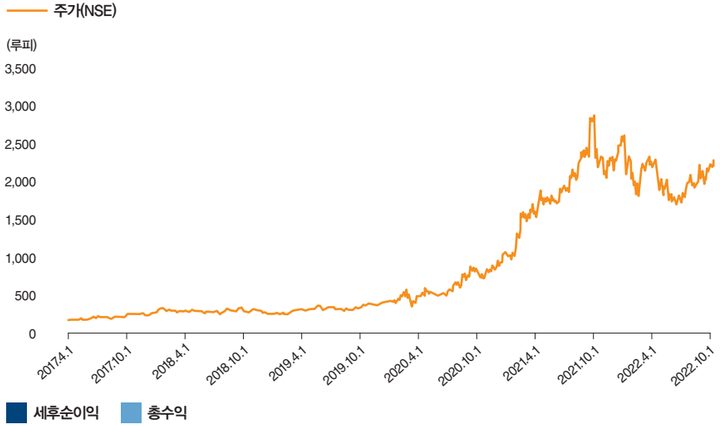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구자라트주, 마하슈트라주, 텔랑가나주 등에 위치한 선도적인 화학회사다. 농약, 색소, 고무 및 의약품부터 특수정밀화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디팍 메타 회장과 그의 아들인 멀릭 메타가 최고경영자로 회사를 운영한다.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인도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제품과 56개 이상의 화학 응용 제품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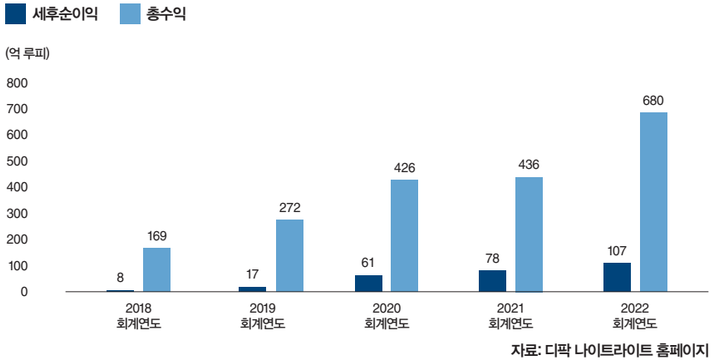
뛰어난 재무 성과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화학 기업이다. 또한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약, 농약, 라미네이트, 페인트 등 최종 소비자를 위한 산업 전반에서 널리 생산된다.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화학 산업에서 지속가능하고 성장 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2018–2022 회계연도 동안 디팍 나이트라이트의 수익은 42%라는 강력한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하였고 세후이익의 연평균성장률은 무려 92%를 기록했다. 뛰어난 재무 성과로 인해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미들급 부문 정상에 올랐다.

2022 회계연도에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여러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사상최고의 매출과 세후순이익, EBITDA를 기록했다. 2022 회계연도에 매출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680억 루피, 세후순이익은 37% 증가한 107억 루피, EBITDA는 전년대비 30% 급등한 164억 루피였다.





자료: 디팍 나이트라이트 홈페이지

>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부채 없이 333억 루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사업 확장에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디팍 나이트라이트는 부채 없이 333억 루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사업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평가기관은 디팍 나이트라이트의 신용등급을 '안정적' 수준에서 '매우 긍정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놀라운 실적과 성장세

신용평가사인 크리실(CRISIL)에 따르면, 인도 특수화학 산업은 곧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인도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21 회계연도에 3~4%에서 2026년 6%로 두 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메타 회장은 이번 회계연도에는 18~19%, 다음 회계연도에는 14~15%의 강력한 수익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주주들 앞에서 연설했다. 페놀류 사업도 68% 성장하여 429억 1천만 루피 매출을 기록했다. 이 부문의 주요 제품, 즉 페놀과 아세톤 등은 2022 회계연도 내내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 메타 회장은 "프로필렌과 벤젠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석탄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탄할 만한 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약 118%의 높은 수준으로 공장을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메타 회장은 "2022 회계연도 실적이 성장세를 탄 것은 우리 회사의 회복 탄력성이 좋고 의사결정이 민첩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는 운영비용 상승, 급격한 인플레이션, 혼란스러운 공급망 등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다"라고 강조했다.

기업 현황 디팍 나이트라이트

매출 500억 ~ 999억 루피

연평균성장률(총수익)	연평균성장률(세후순이익)
2018–2022 회계연도	2018–2022 회계연도
41.67%	91.68%

SYNDICATION/BUSINESS WORLD

웰터급 1위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킬로스카르 페로스 인더스트리

킬로스카르 페로스 인더스트리는 원자재 비용이 급등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자가발전소와 다수의 공장 보유

133년의 역사를 가진 킬로스카르 그룹은 농업, 제조업, 식음료, 석유 및 가스, 인프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킬로스카르 페로스 인더스트리(Kirloskar Ferrous Industries Ltd., 이하 KFIL)는 고품질 선철(Pig Iron, 3.0~3.6%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과 회주철(Gray Iron Casting, 용해로에서 주물용 선철, 고철 등을 용해하여 만든 철) 제조 분야에서 인도의 선두 기업이다. 광산 채굴부터 기계 주조까지 가능한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아시아 유일의 회사다. 인도 내 3개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품질 사양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 "우리는 광산부터 기계 주조까지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아시아 유일의 회사다. 인도 내 3개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품질 사양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KFIL은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거래하고 있다. KFIL이 만든 선철은 각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주철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KFIL은 탁월한 제조 기술력은 물론, 36MW 자가발전소를 비롯해 다수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8–2022 회계연도 동안 KFIL의 매출 및 세후순이익은 각각 연평균성장률 약 20%와 68%로 급증했다. 2022 회계연도 연결 기준 총수익은 376억 루피를 기록했다. 아툴 킬로스카르 회장은 "이번 회계연도에는 원자재 비용이 급등했다. 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단행했고, 투입 비용을 최적화했다.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비한 단계적 시스템을 통해, 마진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 인수와 미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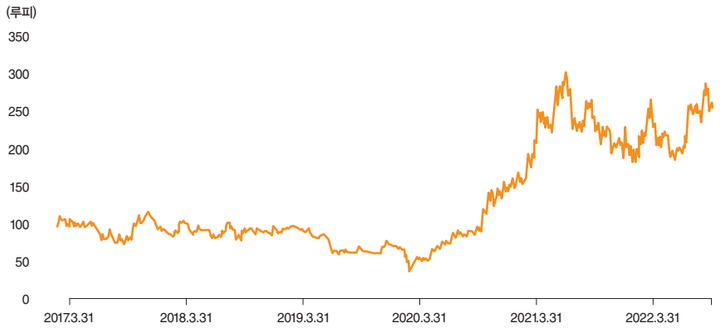
그는 주주들에게 한 연설에서 "단기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2022 회계연도에 견실한 재무 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매출과 순이익 모두 15%의 연평균성장률을 유지했다. 독립 사업에 대한 매출은 77%, EBITDA는 42% 성장했다. 2022 회계연도 순이익은 30억 루피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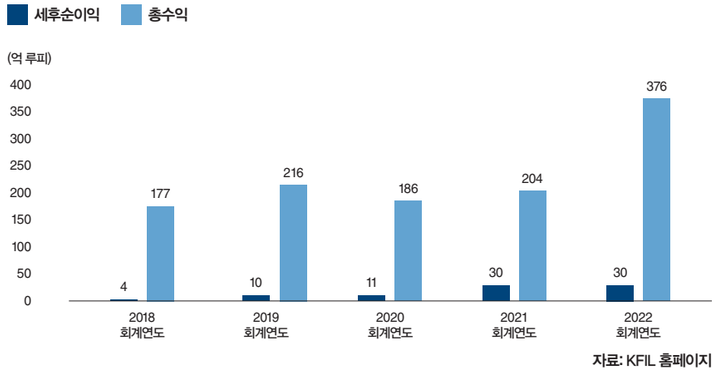
2022 회계연도에 KFIL은 인도 심리스 메탈튜브(ISMT)의 지분 약 51%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킬로스카르 회장은 이번 기업 인수에 대해 "우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다 전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인도 심리스메탈튜브의 제품과 기술로 인해 우리는 이전보다 제품 구성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업 인수가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킬로스카르 페로스 인더스트리의 킬로스카르 회장.

2022 회계연도에 KFIL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역풍을 맞았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외에 석탄 및 전력 비용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위탁한 코크스 오븐 공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킬로스카르 회장은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늘 강조한다. 그는 "조직의 성장은 오로지 사람들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체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사내 역량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료: KFIL 홈페이지

기업 현황 KFIL

매출 100억~499억 루피	
연평균성장률(총수익)	연평균성장률(세후순이익)
2018–2022 회계연도	2018–2022 회계연도
20.81%	67.58%

SYNDICATION/BUSINESS WORLD

야마하, 인도의 고급 오토바이 시장을 개척하다

야마하 모터 인디아는 지난 몇 년 동안 프리미엄 모델을 선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새로 취임한 에이신 치하나 회장 역시, 고급화 전략으로 수익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글 Ashish Sinha 사진 SUTTERSTOCK

야마하 모터 인디아의 성장

2021년 11월 야마하 모터 인디아에 취임한 에이신 치하나 회장은 현재 인도 여러 주를 돌아다니며, 이륜차에 대한 인도인의 요구와 니즈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야마하 모터의 총매출을 두 배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야마하 모터 일본은 1985년 에스코트(Escorts)와 조인트 벤처로 인도에 처음 진출했다. 이 합작사는 2001년 8월 야마하 모터 일본의 100% 자회사가 되었고, 2008년에는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이 야마하 모터 인디아의 공동투자자가 되었다. 이후 야마하 모터 인디아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타밀나두주에 두 개의 최첨단 오토바이 및 스쿠터 공장을 만들었다.

> 야마하는 인도 내 시장에서 700억 루피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이는 이륜차로 이뤄진 대중적 시장보다는 고급 모델에 집중하면서 가능해진 결과이다.

치하나 회장은 "나는 인도 시장이 처음이었다. 2021년 11월 취임 이전에 나는 주로 유럽,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시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사업은 야마하 모터 그룹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공장이 여기 인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치하나 회장은 인도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도시 및 70개 이상의 야마하 대리점을 돌아보았다. 그는 "인도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시장으로 인도인은 이륜차를 좋아한다. 이제 곧 야마하의 가장 대표적 제품인 RX100의 새로운 모델이 다시 도로를 누빌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야마하는 인도 이륜차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으로 꼽힌다. 야마하는 인도 내 시장에서 700억 루피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이는 대중적인 이륜차 시장보다는 고급 제품에 집중하면서 가능해진 결과이다.

고급화 전략과 이후 성과

현재 치하나 회장에게 중요한 것은 프리미엄 가격대 제품에 집중하는 일이다. 그

SYNDICATION/BUSINESS WORLD

현재 인도는 도시 지역의 젊은 층에서 프리미엄 이륜차 수요가 늘고 있다.

리고 이 부문에서 조만간 성과를 낼 전망이다.

야마하의 제조공장 두 곳은 연간 15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분간 확장을 위해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개 공장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도 내 이륜차 및 부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위한 생산도 하고 있다.

야마하 모터 인디아는 고객 친화적인 500개 이상의 대리점을 포함하여 2,200개 이상의 지점을 인도 전역에 두고 있다. 현재 야마하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인도 이륜차 시장의 60%는 통근자가 사용하는 오토바이와 스쿠터다. 치하나 회장은 "인도의 통근용 오토바이 가격은 글로벌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저렴하다. 우리 경쟁 업체 중 몇몇은 대량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야마하가 동일한 가격의 모델을 개발한다면, 낮은 가격 때문에 손실을 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까지 야마하는 저렴한 제품으로 승부하고 오로지 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야마하는 전략을 변경하여 고급 제품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갔다. 그 이후로 야마하의 주력 상품은 125cc 스쿠터와 150cc 오토바이가 되었다.

치하나 회장은 "2017년 이전까지 야마하 모터 인디아는 인도 시장에서 고전했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물량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영업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고급화 전략으로 노선을 바꾸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야마하 모터 인디아는 지난해 놀라운 매출을 기록했다. 2017년보다 판매량이 더 낮은데도 매출은 크게 늘었다. 야마하에 따르면 2021년도에 총 79만 대를 판매했다. 52.2만 대는 인도 내에 판매되었고 26.8만 대는 해외로 수출되었다.

치하나 회장은 "2021년도와 비교해 볼 때 2022년도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다. 지난해에는 스쿠터 판매가 많았지만 올해에는 프리미엄급인 MT-15와 R15 모델이 좋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2022년도에 우리는 매출 면에서 25%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4~5년 동안 매년 25%의 성장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기이륜차 출시와 향후 계획

정상급 이륜차 제조기업 대부분은 이미 시장에 전기이륜차를 출시했다. 전기이륜차 전문 기업들은 이미 전기스쿠터 판매를 늘리고 있다. 그렇다면 야마하 모터 인디아는 왜 전기이륜차를 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이에 대해 치하나 회장은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 전기스쿠터를 생산하고 있다. 타이완 시장에는 타이완에서 생산한 야마하 전기스쿠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 도로와 계절, 소비자 사용 패턴, 여름의 높은 온도 등을 고려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열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타이어부터, 성능, 운행 속도 또는 충전 속도까지 이 모든 것은 열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도에서의 전기이륜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마하는 3년 내에 '메이드 인 인디아' 전기이륜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반면 전기스쿠터의 수입 및 개조에도 열린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마하가 프리미엄급 고급 전기스쿠터를 다음 축제 시즌 동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 야마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이륜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날렵하고 스타일리시한 프리미엄 오토바이를 계속 공급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앞으로 야마하는 소형 도시 지역을 목표로 프리미엄 이륜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치하나 회장은 "야마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이륜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날렵하고 스타일리시한 오토바이를 계속 공급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야마하는 앞으로도 125~150cc 프리미엄급 모델을 원하는 젊은 고객을 목표로 제품 생산에 주력할 것이다. 야마하는 FZ 레인지, YZFR15, MT-15 오토바이 및 AEROX 155, 하이브리드 125cc 파시노, RayZR 스쿠터 등 다양한 상품 라인을 구축해 놓고 있다. 또한 야마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시장 상황에 따라 몇 개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야마하의 프리미엄 전략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야마하 모터 인디아, 에이신 치하나 회장 인터뷰

"우리는 곧 프리미엄급 전기이륜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대도시 이외에 전기이륜차 수요가 실제로 많은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기차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인도 정부도 전기이륜차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 크기는 현재 3~4%밖에 되지 않지만 향후 5년 안에 8~10%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인도의 이륜차 시장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8~10%는 굉장히 큰 규모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전기이륜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출시가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서두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미 유럽과 타이완에서 전기스쿠터를 생산하고 있다. 인도로 수입해 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도 현지에 맞는 전기이륜차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에서 전기이륜차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수입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계획은 머지않아 인도에 프리미엄급 전기이륜차를 소개하는 것이다.

인도에서의 전기이륜차 제조를 위한 투자 계획이 있는가?

우리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인도에 소개하고 싶은 모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야마하 일본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인도에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

물론 그렇다. 다만 투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야마하 두 개 공장의 생산 능력으로는 연간 155만 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연간 50% 이상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생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첸나이에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도 있다. 투자액은 2026년 이후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최종 결정은 협의 후 내려질 것이다.

인도 자동차 산업, 친환경 연료 전환에 드라이브 걸다

친환경 대체연료 전환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인도 자동차 산업 역시 그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글 Utkarsh Agarwal 사진 SHUTTERSTOCK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전기화다. 전기자동차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수많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머지 않은 미래에 곧 대중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이 분야에서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중요성

최근 제62회 인도자동차부품제조협회(ACMA) 정기 총회에서 인도 도로교통부의 니틴 가드카리 장관은 자동차 시장의 혁신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업계의 선두 기업을 향해 신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스타트업과 협력해 자동차 시장의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가변연료차량(휘발유에 에탄올을 85%까지 혼합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 미래형 모빌리티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에게 포용적이며,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제조 관행을 구축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덧붙여 가드카리 장관은 "LNG(액화천연가스)와 녹색 수소는 각광받는 미래 연료로 꼽히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기술 및 LNG, 에탄올과 같은 대체연료를 적극 활용해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LNG와 에탄올로 구동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수소를 운송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소 비용을 kg당 1달러로 낮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드카리 장관은 대체연료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모했으며, 실제로 대체연료 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기대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VMR(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AFV(대체연료차량)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20년 4,056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7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1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2.98%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체연료는 내연 기관 차량에 사용되는 것 이외의 연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기술의 혁신

현재 인도에서는 대체연료가 생산 중이거나 차량 테스트 단계까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용차 생산 기업은 이러한 대체연료 기술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 아쇽 릴랜드(Ashok Leyland)의 N. 사라바난 최고기술책임자는 "대체연료차 기술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CNG(압축천연가스) 엔진을 가지고 있고 LNG 엔진은 CNG 엔진과 거의 비슷하다. 국도에서 LNG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즉시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LNG를 적정 가격에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5~10년 내에 LNG가 시장의 10~1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체연료로 언급되는 것은 바이오 디젤, 전기, 에탄올, LNG, CNG, 태양전지, 프로판 등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자동차 회사가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N. 사라바난 최고기술책임자는 "향후 3~4개월 내에 아쇽 릴랜드는 CNG, LNG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미 LNG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CNG는 중대형 자동차 부문에 적용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대체연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탄소 배출 및 도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연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의 과제는 CNG, LNG 차량

> 현재 인도에서는 대체연료가 생산 중이거나 차량 테스트 단계까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용차 생산 기업은 이러한 대체연료 기술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도는 대중교통 수단의 전기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YNDICATION/BUSINESS WORLD

성능을 디젤 차량만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디젤 차량 성능과 비슷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대체 에너지 차량을 만드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디세 전기차(Odysse Electric Vehicles)의 네민 보라 최고경영자 역시 "인도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인도의 전기차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업용 차량의 7~10%는 2030년까지 전기차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 인도 정부는 유가 상승과 대체연료가 환경에 주는 이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춰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62회 ACMA(자동차부품사업자연합) 정기 총회에서 아미타 칸트(Amitabh Kant)는 "그린 모빌리티 솔루션의 출현으로 관련 업계가 서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륜차와 삼륜차가 주도할 것이며, 업계는 이러한 차량을 100% 전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생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면 곧 인도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배터리 셀과 팩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델리에서 열린 특별 본회의에서 인도 중공업부의 아룬 고엘 장관은 "우리는 전기 자동차, 바이오 연료 등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FAME-II(전기 자동차의 빠른 도입 및 제조 프로젝트) 계획이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인도 정부와 업계는 207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인도가 세계 자동차 제조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인도 정부는 유가 상승과 대체연료가 환경에 주는 이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춰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전기 자동차 채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FAME II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원자재 제조업체, 설계업체, 그 외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되고 있다.

네민 보라 최고경영자는 "정부는 물론 전 세계 여러 기업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충전 시간,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전기차는 점점 대중화될 것이다. 오늘날 모든 제조업체는 자사만의 충전 커넥터 방식, 배터리 사양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도 통일된 코드 또는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해결해야만 전기차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대중화는 어느덧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업,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는 향후 5년 안에 자동차 산업 규모가 15조 루피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녹색 수소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연료 자원의 혁신을 추진하면 차량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 **니틴 가드카리,**
> 인도 도로교통부 장관

해외주식 투자에 필요한 서비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다~해드립니다!

남들 되는 건 기본, 다른 곳에서 안되는 서비스까지
해외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있는 곳,
대한민국 대표 해외투자 전문가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주식 서비스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세요.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1588-6800]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0%(국가별 상이, 국가별 제비용 별도 발생,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국가별 제비용 미국: 매도 시 0.00229%, 중국(상해A/심천A): 매수 0.00987% / 매도 0.10987%, 홍콩: 매수 및 매도 시 각 0.13785% (추후변동 가능, 이외 국가의 제비용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501호 (2022.10.20~2023.10.19)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특집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전기차에 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가 근본적인 에너지 포맷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기기의 에너지 전환은 모두 저절로 가능해진다.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사용에 이르는 공정을 모두 다시 만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두고 모두가 사활을 건 경쟁에 나섰다.

중국의 관련 기업 중심으로 이들이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① Value Chain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사슬
② Tianqi Lithium
비상하는 텐치리튬
③ Hunanyuneng
리튬인산철 공급왕, 후난위넝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사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사슬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

글 Zhao Chunyu 사진 Shutterstock

SYNDICATION/SHANGJIE

① 완성차 제조 분야

배터리 원가의 상승은 신에너지차로 전면 전환한 BYD 등 신에너지차 제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체의 수익률 역시 하락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이끄는 것은 여전히 연료 자동차다. 그러나 테슬라는 예외적으로 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대량 생산과 부품 공용화 등 규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연료 자동차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반면 그 외 완성차 제조업체의 수익성 하락 원인은, 원자재 가격 인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규모와 기술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배터리 분야

배터리는 줄곧 신에너지차 산업사슬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로 여겨져 왔지만, 배터리 기업의 실제 수익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배터리 기업의 총이익률, 순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총이익률과 순이익률 하락이 결코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모를 급속히 확장하면 이익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게 마련이다. 또한 동력 배터리 기업은 이익을 꾸준히 투자해 생산 규모를 늘린다. 이는 고속 성장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다. 다만, 동력 배터리 기업은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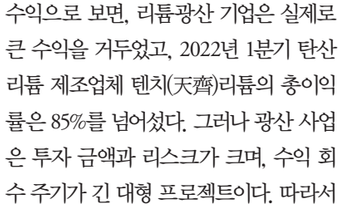
③ 양극재/음극재 분야

양극재와 음극재는 동력 배터리의 중요한 업스트림 산업이다. 최근 동력 배터리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큰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졌지만, 지난 5년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양극재/음극재 기업의 2022년 1분기 이익률 수준이 2017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이 최저점으로, 이익률은 V자형 곡선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양극재/음극재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선도 기업이 독점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④ 전해액과 분리막 분야

2020년 하반기, 전해질 원재료인 육불화인산리튬(LiPF6)이 원재료 가격 상승의 서막을 열지 않았더라면, 외부에서는 이 시장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전해액 분야는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이다. 전해액 기업의 이익률 수치는 모두 2020년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해액 기업 입장에서는, 이는 이익률 '상승'이 아닌 '회복'에 불과하다.

> 배터리는 줄곧 신에너지차 산업사슬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로 여겨져 왔지만, 배터리 기업의 실제 수익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분리막은 조용히 돈을 벌어들이는 분야이다. 총이익률이 40%를 초과하고 순이익률은 20~30%로 매우 안정적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원자재 가격의 큰 변동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⑤ 광업 채굴과 리사이클링 분야

수익으로 보면, 리튬광산 기업은 실제로 큰 수익을 거두었고, 2022년 1분기 탄산리튬 제조업체 텐치(天齊)리튬의 총이익률은 85%를 넘어섰다. 그러나 광산 사업은 투자 금액과 리스크가 크며, 수익 회수 주기가 긴 대형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광산 기업을 제외한 기타 배터리 관련 광물원료 채굴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⑥ 설비 제조 분야

동력배터리 설비 제조는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인 분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업계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자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서, 선도 기업의 우위는 비교적 굳건하다. 다만 순이익률과 총이익율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인데, 제조 설비의 정밀도가 나날이 높아져 설비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경쟁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⑦ 전해액 분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전, 중국에는 전해액 기업이 매우 적었다. 전해액 생산은 거의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의 대형 화학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다 WTO 가입 이후 중국 전해액 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외국 기업을 제치고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 전해액 분야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배합기술은 전해액 산업 기술의 핵심이다. 현재 산업사슬에서 리튬 배터리 선두 기업과 전해액 생산 기업이 서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전해액이 큰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이유는 중요한 원재료인 육불화인산리튬(LiPF6)의 중국 국산화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및 원료 비축 측면에서 해외 기업의 상황을 능가한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전해액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에 육박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비상하는 텐치리튬(天齊鋰業)

텐치리튬은 두 번째로 홍콩증시 상장에 도전하기까지 롤러코스터급 출렁임을 경험해야 했다.

글 Fu Shengbin 사진 Gettyimages, Shutterstock

SYNDICATION/XINCAIFU

2022년 6월 19일, 텐치리튬(天齊鋰業)의 H 주식 발행 신청이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청문회를 통과했다. 텐치리튬은 이번에 4억 2,500만 H주(기존 자본금의 약 28.77%)를 발행하며, 조달된 자금은 주로 칠레 광물생산기업 SQM 인수를 위한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텐치리튬은 약 400억 위안(약 60억 달러)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텐치리튬이 마침내 부채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2018년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쉽게 철회한 이후 다시 야심차게 신청하기까지, 텐치리튬의 실질적인 오너인 장웨이핑은 4년을 기다려 왔다. 지난 4년은 장웨이핑과 텐치리튬에게 인고의 시간이었다.

텐치리튬의 공격적인 인수 전략

텐치리튬이 무대 중앙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두 건의 다국적 기업 인수 덕분이었다.

첫 번째 건은 2013년 탤리슨(Talison) 지분 51%에 대한 '가로채기 인수'다. 당시 미국 리튬 대기업 앨버말(ALB) 산하의 100% 자회사인 록우드(Lockwood)가 이미 호주의 탤리슨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록우드는 45억 5,400만 위안에 탤리슨의 지분을 모두 인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텐치리튬의 대주주인 텐치그룹(天齊集團)이 그 사이에 기습적으로 인수를 가로챈 것이다.

텐치그룹은 먼저 유통시장에서 탤리슨의 19.99% 지분을 은밀히 인수하여, 탤리슨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려던 록우드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뒤이어 텐치그룹은 중국 최대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中投公司)과 함께 탤리슨을 공개매수하며 록우드와 정면대결을 펼쳤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텐치그룹과 록우드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탤리슨의 전체 지분을 공동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텐치그룹은 51%의 지분을, 록우드는 49%의 지분을 인수했다. 그 후, 텐치그룹은 탤리슨의 지분을 텐치리튬에 인계해, 마침내 텐치리튬이 탤리슨 지분의 51%, 록우드가 지분 49%를 보유하는 지분 구조가 형성되었다.

탤리슨이 소유한 그린부시(Greenbush) 리튬 광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과 최고의 품질을 보유한 리튬휘석 광산으로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 반면 업계 침체기에도 그린부시 리튬 광산의 2019년 현금 원가는 지난 5년간 시장의 최저 평균 판매가보다 낮았다. 덕분에 텐치리튬은 지난 5년 동안 경쟁사보다 높은 총이익률을 기록했다.

이 세계적 수준의 광산을 얻기 위해 텐치그룹은 59억 9,600만 위안의 비용을 지불했다. 텐치리튬은 텐치그룹으로부터 재인수하는 방식으로 탤리슨의 지분 51%를 확보했으며, 전체 거래는 철통보안 속에 이루어졌다.

만약 장웨이핑이 탤리슨을 끝으로 인수를 멈추고 기존의 자원에만 집중했다면, 텐치리튬은 아마도 위기 국면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은 없다. 장웨이핑이 2018년에 SQM 지분 25.87%를 인수한 행위는 텐치리튬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SQM의 광산이 있는 칠레의 아타카마(Atacama) 소금호수는 세계 최대의 염수 매장량과 최고 품질의 염수 자원을 자랑한다. 아타카마 소금호수는 탤리슨과 함께 세계 리튬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

텐치리튬은 두 단계에 걸쳐 SQM의 지분 25.87%를 확보했다. 첫 번째 단계는 2016년 SQM 클래스 B주식의 2.1%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2018

> 텐치리튬이 무대 중앙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영향력이 큰 두 건의 인수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텐치그룹이 인수한 탤리슨의 그린부시 광산.

년 SQM 클래스 A주식의 23.77% 지분을 40억 6,600만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두 건의 인수에서, 텐치리튬은 약 42억 7,500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다.

이 두 건의 인수 덕분에 텐치리튬은 업계 선두 지위를 공고히 했지만, 두 번째 인수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SQM 인수와 함께 찾아온 혹한기

텐치리튬이 SQM을 인수했을 때, 텐치리튬의 자산은 178억 4천만 위안, 순이익은 26억 1,200만 위안에 불과했다.

40억 6,600만 달러의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텐치리튬이 설계한 방안은, 우선 은행 대출로 인수 자금 문제를 해결한 후, H주(홍콩 증시)에 상장해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은행 대출 이자는 SQM의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신은행(中信銀行)의 주도 아래, 텐치리튬은 35억 달러를 조달했다.

그러나 텐치리튬이 H주 상장을 신청한 결정적인 순간, 리튬 산업이 돌연 침체기에 진입했다. 리튬 제품의 가격은 2018년 초 고점에 도달한 후 계속 하락하여, 톤당 약 17만 위안에서 2019년 6월에는 8만 위안으로, 2020년 초에는 5만 위안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되자 텐치리튬은 상장을 포기하고, SQM 인수 거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중 충격 속에서 텐치리튬은 절벽으로 내몰리며 위기에 직면했다.

가장 먼저 기업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자산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과 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텐치리튬의 자산부채비율은 2017년 말 40.39%에서 2018년 말에는 73.26%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더 나아가 2020년에는 82.32%로 늘어났다. 순이익은 2017년 이익 26억 1,200만 위안에서 2019년에는 손실 54억 8,200만 위안으로 반전했다.

다음으로 기업 현금흐름이 극도로 경색되었다. 2017년 텐치리튬 영업활동의 순현금흐름이 30억 9,500만 위안이었던 것에서 2020년에는 6억 9,600만 위안으로 감소했으며, SQM의 이익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9년 SQM은 2억 8,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지분 비율에 따르면, 텐치리튬은 2019년 7,300만 달러의 배당금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35억 달러의 M&A 대출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약 20억 위안(약 3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 텐치리튬이 H주 상장을 신청한 결정적인 순간, 리튬 산업이 돌연 침체기에 진입했다. 텐치리튬은 절벽으로 내몰리며 위기에 직면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SQM 인수 외에도 텐치리튬은 해당 기간에 국내외 많은 리튬 프로젝트를 인수하거나 투자했다. 예를 들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 15억 6,2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해 탤리슨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수산화리튬 생산기지를 신규 건설했다.

또한 3억 1,100만 위안을 출자하여 티벳 지역의 자부예리튬(扎布耶鋰業) 지분 20%를 인수하고, 장쑤성 장자강시의 리튬 공장에 12억 위안을 출자하였으며, 쓰촨성 동부에 있는 쑤이닝현의 리튬 공장에 14억 3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연간 생산량 2만 톤의 탄산리튬 생산라인을 신규 건설했다. 이러한 연이은 투자는 자금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런 요인이 겹치면서 텐치리튬은 힘겨운 3년을 보냈다. 날로 압박해 오는 채권자들은 텐치리튬을 궁지로 몰았으며, 이는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텐치리튬이 탤리슨의 지분 24.99%를 매각한 것이다. 텐치리튬은 원래 텐치잉궈(天齊英國, TLEA)를 통해 탤리슨의 지분 51%를 보유했다. 부채 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0년 텐치리튬은 텐치잉궈의 지분 49%(탤리슨의 지분 24.99%를 간접 양도)를 IGO(호주 자원 개발 관련 상장 회사)에 양도했다.

IGO는 이를 위해 텐치리튬에게 약 14억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다. 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 상환을 하는 것은 텐치리튬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

두 번째는 텐치그룹의 증자와 텐치리튬에 대한 자본 투입 계획이다. 텐치그룹에는 3명의 주주가 있는데, 장웨이핑과 그의 딸 장안치(蔣安琪)가 총 9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텐치그룹의 CEO인 양칭(楊青)이 나머지 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초, 텐치그룹은 증자를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한 후, 텐치리튬에 이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 자본 운용 규모는 16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성공하면 텐치리튬의 부채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거래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 두 건의 자금 조달 시도 외에도, 부채 상환을 위해 장웨이핑은 텐치리튬의 지분을 저당 잡아 일부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약 16억 달러의 부채 원금을 상환한 후 남은 원금은 약 19억 달러였다. 또한 대출 상환 기간 역시 연장했다.

나머지 19억 달러의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지가 장웨이핑이 이어서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장웨이핑에게 남아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다.

텐치리튬의 자산부채비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수익성은 낮아지고, 핵심 자산인 탤리슨의 재매각 가능성도 낮았다. 장웨이핑이 거액의 채무 상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는 지배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텐치리튬, 텐치그룹 또는 SQM의 지분을 좋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전에 장웨이핑은 꽃피는 봄을 맞이했다.

돌아온 봄

2020년 9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탄소피크, 탄소중립'이라는 '쌍탄'(雙碳: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로 국가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우대 정책을 포함하여,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많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각종 정책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이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의 원자재로서 리튬의 위상도 높아졌다. 리튬 산업사슬 기업은 재빨리 침체기를 벗어나 빠른 상승기에 진입했다.

배터리급 탄산리튬을 예로 들면, 평균 가격은 2021년 초에 톤당 약 5만 위안에서 연말에는 톤당 27만 4천 위안으로 계속 급등했고, 최근에는 톤당 약 47만 위안까지 상승했다. 이제 '호황'이라는 말로도 리튬 업계의 상황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텐치리튬에도 봄이 찾아왔다. 2021년 텐치리튬의 매출은 76억 6,3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36.56% 증가했으며,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20억 7,900만 위안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두 지표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2년 1분기, 텐치리튬의 실적은 더욱 눈부셨다. 매출은 52억 5,700만 위안,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33억 2,800만 위안이었다. 이는 2021년 전체를 뛰어넘는 수치로, 행복한 비명이 나오는 성과였다.

텐치리튬의 현금흐름 상황도 완전히 바뀌었다. 2022년 1분기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38억 3,700만 위안으로, 2021년 한 해 전체의 20억 9,400만 위안의 두 배 가까이에 달했다.

이런 우수한 경영 성과는 텐치리튬의 부채 압박을 크게 줄여 주었다.

탤리슨의 일부 지분을 매각한 후, 텐치리튬의 부채 총액은 2020년 말 280억 8,100만 위안에서 2021년 말 204억 4,100만 위안으로 감소했으며, 자산부채비율도 82.3%에서 58.9%로 감소했다.

2022년 1분기에 들어서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텐치리튬의 부채는 173억 8,900만 위안으로 더욱 줄어들었고, 자산부채비율은 51.85%로 줄었다. 173억 8,900만 위안의 부채에 대한 연간 재무비용은 10억 위안 정도로 예상된다. 이제야 텐치리튬은 정해진 기간에 지불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텐치리튬의 자체 실적이 향상되는 동시에, 지분을 보유한 SQM의 실적도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SQM은 각각 18억 1,700만 달러, 28억 6,200만 달러, 20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실현했으며,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1억 6,800만 달러, 5억 8,500만 달러, 7억 9,600만 달러를 실현했다. 텐치리튬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SQM의 23.66% 지분(SQM 증자, 텐치리튬의 주식 매각과 부채 상환으로 인한 지분 비율 감소)은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높은 투자 수익과 배당을 기록할 수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만큼 장웨이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다.

> **텐치리튬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리튬 정광(lithium concentrate)의 100% 자급과 수직 통합을 실현한 리튬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다.**

업계의 고점에서 고가에 SQM을 인수하고, 업계의 저점에서 핵심 자산인 탤리슨을 매각하고, 다시 업계 고점에서 고난을 벗어난 것을 돌이켜보면, 패배도 성공도 모두 그에게 달렸다는 생각이 든다. 장웨이핑은 다시 꿈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갔고, 텐치리튬은 화려한 실적으로 다시 H주 상장을 신청했다.

경쟁자 간펑리튬

고품질의 풍부한 리튬 매장량은 텐치리튬이 줄곧 강조해 온 경쟁력이었다. 많은 기사에서 언급되었듯, 텐치리튬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리튬 정광(lithium concentrate, 리튬 함량을 6%까지 끌어올린 광석)의 100% 자급과 수직 통합을 실현한 리튬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중국 동종 업계에서 텐치리튬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텐치리튬의 자원은 주로 4개의 광산 또는 소금호수에 분포되어 있다. 2021년 말까지 텐치리튬의 지분 자원량은 약 1,492만 톤 LCE(Lithium Carbonate Equivalent, 탄산리튬 단위)였다. 텐치리튬은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간펑리튬 등 동일 규모의 업계 선두 기업과 비교할 때 반드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간펑리튬의 자원 매장량은 텐치리튬보다 많다. 2021년 말까지 간펑리튬의 지분 자원량은 2,660만 LCE에 달했으며, 이는 호주,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걸쳐 '4개의 산, 2개의 호수, 1개의 진흙구역'에 분포되어 있다.

둘째, 간펑리튬의 자원 구조는 텐치리튬보다 뛰어나다. 텐치리튬이 SQM에서 보유한 지분 자원량은 1,076만 7,600톤으로, 전체 지분 자원인 1,492만 2,900톤의 약 72.2%를 차지한다. 그러나 SQM에 대한 텐치리튬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70%의 지분 자원량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없다.

텐치리튬의 SQM 인수는 높은 채무 부담과 동시에 시장 하락이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텐치리튬이 SQM 인수 당시 서약한 내용에 따르면, 텐치리튬이 지명한 SQM 이사는 텐치리튬의 이사, 고위임원, 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지명된 이사는 SQM의 관리자 역할을 맡지 않으며, SQM의 민감한 사업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사업상 서약은 SQM에 대한 텐치리튬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약화시킴에 틀림없었다.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텐치리튬은 향후 SQM을 통제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SQM을 버리면 텐치리튬 지분의 자원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에 반해, 간펑리튬의 자원 분배는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리스크 통제 구조가 더 우수하며 통제력이 강한 제1군 자원도 있고, 제2·3군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셋째, 간펑리튬은 수익을 얻는 능력이 텐치리튬보다 우수하다. 간펑리튬은 투자한 해외 자원 대부분에 대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카우차리-올라로즈(Cauchari-Olaroz) 투자에서 간펑리튬은 지분 46.67%를 보유하고 있지만, 독점판매 권한은 76%를 확보했다. 이에 반해, SQM은 시장 논리에 따른 리튬 제품 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텐치리튬은 자신의 의도대로 SQM 리튬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어렵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텐치리튬의 리튬 정제 공장.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텐치리튬은 자원량 측면에서 중국 1군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텐치리튬은 리튬 정광을 100% 자급자족하는 등 여전히 중상급 규모의 고품질 리튬 광산 기업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 속에 여전히 문제를 내포한 일시적 '서프라이즈'를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언제쯤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텐치리튬은 현재 5개의 리튬염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은 4만 4,800톤이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장의 생산능력은 7만 톤으로, 모두 합치면 총 11만 4,800톤에 달한다.

5개 공장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퀴나나(Kwinana)에 있는 제련소이다. 017~2018년, 텐치리튬은 잇달아 탤리슨의 생산확대 계획 2단계를 실시했으며, 탤리슨의 생산 능력을 연간 18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탤리슨의 생산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텐치리튬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퀴나나(Kwinana)에 7억 2,6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고, 총 생산능력이 연간 4만 8천 톤인 배터리 등급 수산화리튬 프로젝트를 2단계로 나눠 신규 건설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각각 2016년 4월과 9월에 시작되었으며, 2018년 10월과 2019년 말에 준공을 완료하여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4개 프로젝트 중, 탤리슨의 1단계 생산확대 계획만이 2019년 10월(4개월 지연)에 실현되어 가동에 들어갔고, 나머지 3개 프로젝트는 모두 정체상태다. 탤리슨의 2단계 생산확대 프로젝트의 가동 시기는 2025년으로 미뤄졌다. 퀴나나 1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3억 9,800만 호주달러에서 7억 7천만 호주달러로 증가하여, 원래 투자 계획의 거의 두 배를 넘어섰다. 원래 2018년 10월에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전체 라인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다.

1단계 건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2단계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주요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완공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언제 가동을 시작할지 아직 미지수이다. 심각한 프로젝트 지연은 부정적인 재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비용 처리가 미뤄져 고정 자산 가치가 비합리적으로 높아지고, 당기이익은 비합리적으로 높아지는 등, 가동 후 생산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 상각, 자산감가 등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텐치리튬이 건설 중인 공사 규모는 60억 위안 이상으로, 자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퀴나나 1단계 프로젝트는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정식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텐치리튬이 건설 중인 공사에서 고정자산으로 이전된 금액은 0이었다.

텐치리튬은 언제 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묵은 체증이 내려가다

텐치리튬의 사업은 그린부시 리튬 광산을 핵심으로 한 리튬 산업사슬과 SQM에 대한 재무 투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리튬 산업사슬의 경우, 그린부시 리튬 광산은 세계 정상급의 우수한 리튬 광산이지만, 텐치리튬은 26.0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고 생산 규모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드스트림에서 리튬염 제품 생산은 대부분 건설 중이거나 계획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퀴나나 프로젝트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다운스트림에서, 텐치리튬은 상하이항공우주전원(上海航天電源)과 베이징웨이란(北京衛藍) 등 소수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 텐치리튬이 리튬 산업의 승자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텐치리튬의 2021년과 2022년 1분기 수익 구성도 사업 특징을 잘 보여준다.

2021년 텐치리튬의 이익 총액은 39억 6,400만 위안이며, 6억 7,100만 위안의 부채 구조조정수익(SQM의 M&A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수익)을 제외한 이익은 약 22억 9,300만 위안이다. 그중 SQM에 대한 지분 투자 수익이 7억 5,300만 위안으로 약 32.8%를 차지한다.

2022년 1분기, 텐치리튬의 이익 총액은 50억 5,100만 위안이며, 그중 지분투자회사 SES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파생상품 사업, SQM 가치 변동 등 사유로 인한 수익은 약 10억 위안으로 25%가량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텐치리튬의 리튬 산업사슬의 이익은 총이익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 이익은 주로 지분 투자 등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텐치리튬의 H주 상장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장웨이핑의 오랜 바람도 결국 실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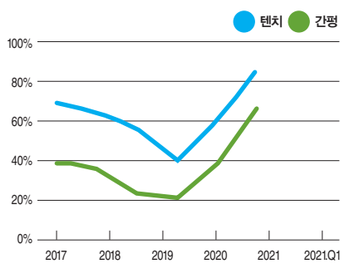
텐치리튬은 이번에 4억 2,500만 H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주식 발행 가격은 주당 95위안가량이며, 예상 자금 조달 규모는 약 400억 위안이다.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텐치리튬의 SQM 인수에서 비롯된 부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텐치리튬은 부채의 안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백억 위안의 현금을 손에 넣게 된다.

> 홍콩 시장에 상장한 장웨이핑이 노리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외 자금 조달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리튬업체에 대한 평가가 다른 시장에 비해 낮은 홍콩 시장에 상장한 장웨이핑이 노리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외 자금 조달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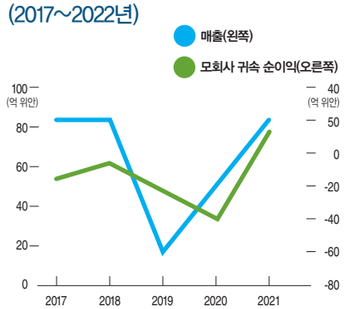
홍콩에서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면, 텐치리튬의 총 발행 주식 수는 19억 200만 주로 증가하게 된다. 홍콩 증시 상장이 완료된 후, 거액을 손에 쥔 장웨이핑이 다시 텐치리튬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텐치리튬과 간펑리튬의 총이익률 (2017~2022년 1분기)



자료: 공개 자료 정리

텐치리튬의 매출과 순이익 (2017~2022년)



자료: 텐치리튬 공고

리튬인산철 공급왕, 후난위넝(湖南裕能)

CATL과 BYD의 주요 리튬인산철 공급사 중 하나인 후난위넝이 IPO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개된 후난위넝의 기업 상황은?

글 바오여우빈(鮑有斌) 사진 Gettyimages, Shutterstock

2022년 상반기,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64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테슬라를 뛰어넘어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왕에 등극했다. 그 뒤를 이어 높은 실적을 낸 업체 중 절반가량이 산업체인의 업스트림에 위치한 공급업체였다.

BYD의 상위 5대 공급업체 중 하나이자, 리튬인산철 업계의 선두주자인 후난위넝 신에너지배터리소재(湖南裕能新能源電池材料, 이하 '후난위넝')는 최근 IPO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2016년 설립된 후난위넝의 차스닥(創業板, 중국판 나스닥) 상장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2021년 9월 접수해 2022년 6월 승인을 받아 현재 상장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후난위넝은 경쟁업체인 다이나노닉(Dynanonic, 德方納米)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한편, 중국 리튬인산철 시장점유율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출하왕'이 되었다.

2021년에는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후난위넝은 동종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3배 증가하며, 매출과 이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본 시장의 수혈을 받은 이후, 후난위넝은 차세대 확장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SYNDICATION/XINCAIFU

> 2021년에는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후난위넝은 동종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3배 증가했다.

높은 성장성, 주가수익률은 6배에 불과

이번 차스닥 IPO에서 후난위넝은 18억 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다. IPO 이후, 총 주식 수는 7억 5,700만 주로 증가하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72억 1천만 위안에 육박할 것이다. 후난위넝의 2021년 매출은 70억 3천만 위안에 달하며,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11억 7,500만 위안이며, 주가매출액비율(PSR: 매출액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주당 매출액'으로 주가를 나눈 수치)은 2배, 주가수익률은 6배다. 이는 주요 경쟁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후난위넝은 중국 A주에 상장한 동종 기업 중 다이나노닉, 당셩커지(當升科技), 룽바이커지(容百科技), 창위안리커(長遠鋰科) 등 4개 회사와 견줄 수 있다. 단순히 2021년 매출과 모회사 귀속 순이익(모회사의 순이익과 지분비율 만큼의 자회사 순이익의 합) 규모를 비교하면, 후난위넝의 매출은 룽바이커지와 당셩커지보다는 낮지만, 다이나노닉보다는 높으며 순이익은 경쟁사를 압도한다.

지난 3년간의 성장성을 보면, 후난위넝의 매출은 42배 이상 성장했고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거의 97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야말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후난위넝의 총이익률은 26.35%로, 다이나노닉보다 2.5% 낮지만 당셩커지, 룽바이커지, 창위안리커보다 현저히 높다. 후난위넝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21년 55.43%에 달했으며, 이 역시 4대 경쟁사를 압도한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경쟁사 평균 주가수익률은 44.6배, 평균 주가매출액비율은 7.8배이다. 다이나노닉의 주가매출액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는 5~6배 사이에 있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후난위넝은 주가수익률이 6배로, 아직 6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으며 주가매출액비율도 5~7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

후난위넝의 주요 사업은 리튬인산철로, 2021년 전체 매출의 약 99%를 차지했다. 관심이 뜨거운 분야로 고성장이 기대되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수익률 6배는 상당히 낮아 보이며, 신규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전격 투자를 단행한 CATL, BYD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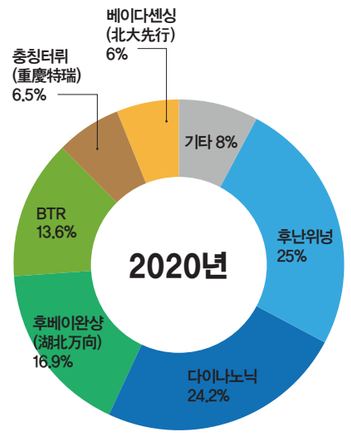
리튬인산철 출하량 2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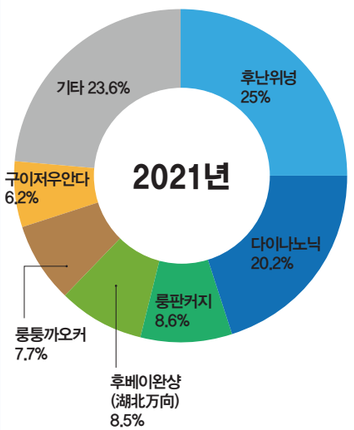
2021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354만 5천 대로, 2020년 전년동기대비 1.6배 증가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이 1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다운스트림인 신에너지 자동차의 급속한 성장으로 업스트림에 위치한 배터리 및 리튬인산철 소재 공급업체는 자연스럽게 공급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현재 동력배터리는 주로 리튬인산철과 삼원계(Ternary) 소재로 나뉜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높은 안정성과 뛰어난 사이클 성능을 바탕으로 일찍이 신에너지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출하량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테슬라 저가형과 BYD는 주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다. 삼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주요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등을 수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

중국 리튬인산철 시장점유율





자료: 후난위넝 투자설명서

후난위넝의 주력 제품인 리튬인산철은 2021년 69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8% 이상을 차지했다.

지 신에너지 자동차의 설비용량에서 삼원계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9%, 82%, 60%로 축소되었고,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각각 4%, 15%, 40%로 빠른 점유율 상승을 보였다.

차이신증권(財信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리튬인산철이 원가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중국 리튬인산철 설비용량은 60%에 달하고, 세계 리튬인산철 중장기 보급률은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진증권(華金證券)은 2025년 세계 리튬인산철 수요가 265만 톤에 달해, 2021~2025년 연평균성장률이 5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후난위넝은 주로 리튬인산철, 삼원계 소재 등을 생산한다. 그중 리튬인산철이 메인 사업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줄곧 95% 이상에 달한다.

2021년 중국 내 리튬인산철 소재 출하량은 48만 톤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하였다. 그중, 후난위넝의 출하량은 12만 톤을 넘어 시장점유율이 25%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 연속 다이나노닉을 제치고 출하량 1위를 거머쥐었다.

2020년 시장 선두 6위까지의 시장점유율이 92.2%였는데, 2021년에는 76.4%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며, '2곳의 초강세 기업과 여러 강세 기업'이라는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후난위넝과 다이나노닉이 상위 1,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격차는 1% 미만에서 4%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밖에, 업계 3위에서 6위까지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6~9% 구간 내에 있어 격차가 적다. 룽판커지(龍蟠科技)는 BTR(貝特瑞)의 관련 자산을 인수한 후 2021년 바로 3위로 진입했다. 6위 내에 있던 충칭터뤼(重慶特瑞), 베이다센싱(北大先行, Pulead)은 룽퉁까오커(融通高科)와 구이저우안다(貴州安達)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는 기존 선두기업의 시장 포지션도 안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후난위넝의 리튬인산철 제품은 높은 에너지 밀도, 높은 안정성, 긴 사이클 수명, 저온 성능 우수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CATL, BYD, 이브 에너지(Eve Energy), 에스볼트(SVOLT, 蜂巢能源), 엔비전(Envision) AESC, 간펑리튬(贛鋒鋰電), 루이푸에너지(瑞浦能源), 암페렉스 테크놀로지(ATL), 나라다 파워(Narada Power), 중싱파이넝(中興派能), 그레이트 파워(Great Power, 鵬輝能源) 등 다수의 유명 리튬배터리 기업에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난위넝의 매출은 5억 8,100만 위안에서 70억 2,700만 위안으로 3년 동안 42배 증가했으며,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5,700만 위안에서 11억 7,500만 위안으로 3년간 97배 증가했다.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은 후난위넝의 가격 인상폭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원자재 가격에 따른 변동

후난위넝의 주력 제품인 리튬인산철은 2021년 69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8% 이상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일부 삼원계 소재와 인산철은 전체 매출의 약 1.5%를 차지했다.

리튬인산철은 후난위넝에 수익을 안겼지만, 삼원계 사업의 총이익은 마이너스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난위넝의 종합 총이익률은 23.64%, 15.29%, 26.35%로 변동폭이 컸으며, 이는 주로 원자재 가격의 영향에 기인했다. 2021년 후난위넝의 탄산리튬, 인산, 무수인산철의 구매액은 각각 37억 위안, 4억 8천만 위안, 2억 6천만 위안으로, 3대 원자재가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46%에 달한다.

후난위넝은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의 주요 공급업체다.

리튬 가격은 후난위넝의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1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후난위넝의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산리튬의 경우, 톤당 3만 2,900위안에서 239% 인상된 11만 1,600위안으로 급등했다. 그 외 무수인산철 가격은 33%, 인산 가격은 40% 인상됐다.

후난위넝의 삼원계 소재 사업은 2019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정식 생산에 들어갔으며, 지난 3년 동안 총이익은 마이너스였다. 다행인 것은 현재 CATL이 삼원계 배터리 인증과 생산 라인 인증을 완료하여 2021년 말부터 대량 공급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총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후난위넝의 핵심 제품인 리튬인산철의 판매 단가는 톤당 2만 9,600위안에서 2021년에는 톤당 5만 7,300위안으로 상승했다. 평균 가격이 다이나노닉보다 톤당 약 4,600위안이 더 높으며, 가격 인상폭도 두 배에 가까워서 다이나노닉의 78%를 넘어선다.

판매량을 보면, 2020년 후난위넝과 다이나노닉의 리튬인산철 판매량은 모두 3만 톤이었지만, 2021년 후난위넝의 판매량은 2020년보다 약 3배 증가한 12만 톤에 달했다. 다이나노닉은 9만 톤에 그쳐 양측의 격차가 커졌다.

2021년 후난위넝 제품의 가격 인상폭과 매출 증가율은 동종 업계를 넘어섰다. 매출은 68억 9,700만 위안으로 2020년 동기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ROE도 다이나노닉보다 20여 포인트 높아 시장 선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셩이서(生意社)의 데이터에 따르면, 리튬인산철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톤당 15만 5천 위안에 달해 후난위넝의 2021년 하반기 평균 판매가격(톤당 6만 4,600위안)에 비해 14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이나노닉의 2022년 1분기 매출은 5.6배 늘고, 순이익은 14배 폭증했다. 후난위넝은 어떨까?

협력과 할인판매의 영향은?

CATL과 BYD는 후난위넝의 주요 주주인 동시에 최대 고객사이다.

지난 3년간, CATL과 계열사의 구매가 후난위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BYD는 항상 30% 이상에 달하고, 2021년에는 40% 이상으로 더욱 증가했다.

2021년 CATL과 BYD가 후난위넝 매출에 기여한 금액은 각각 37억 8,700만 위안과 29억 1,800만 위안으로, 후난위넝 전체 매출의 95.42%에 달한다. BYD의 2021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4번째로 큰 공급업체의 구매 금액이 29억 3천만 위안이며, 이는 후난위넝일 것이다.

2021년 CATL은 5대 공급업체로부터

후난위넝과 대조군 기업 핵심 재무 데이터 비교

회사명	3년간 매출증가율	3년간 이익증가율	2021년 매출 (억 위안)	2021년 순이익 (억 위안)	마진율	ROE	주가수익률(배)	주가매출액비율(배)
다이나노닉	359%	717%	48.42	8.01	28.85%	30.96%	47.0	14.66
당성커지(當升科技)	152%	245%	82.58	10.91	18.24%	16.46%	34.4	5.55
룽바이커지	237%	328%	102.59	9.11	15.34%	18.38%	53.5	5.65
창위안리커	159%	287%	68.41	7.01	16.85%	14.45%	43.4	5.38
후난위넝	4,238%	9,692%	70.27	11.75	26.35%	55.43%	6.0	1.00

자료: 신차이푸(3년간 매출증가율과 이익증가율은 2020년과 2018년 대비)

총 254억 3천만 위안을 구매했으며, 전체 연간 구매액의 15.42%를 차지했다. 판매 규모로 보면, 후난위넝은 2.36%를 차지, CATL에서 5번째로 큰 공급업체이다.

다이나노닉의 2021년 최대 고객사는 CATL로, 전체 매출의 약 70%에 가까운 33억 7,300만 위안의 판매고를 올렸다. 창위안리커의 2021년 최대 고객사는 30억 9,400만 위안으로 매출액 46%, 룽바이커지의 최대 고객사는 64억 7,200만 위안으로 매출액 63%에 기여했다. 동력 배터리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이들의 최대 고객사는 CATL일 가능성이 크다.

2021년 중국 상위 5대 리튬배터리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82.4%이다. 그중, 상위 2곳인 CATL과 BYD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한다. 리튬인산철 시장은 더욱 집중되어 있으며, 2021년 중국 리튬인산철 배터리 설비용량 측면에서 보면, CATL의 점유율은 51.3%, BYD의 점유율은 31.3%로 두 대형기업의 합계가 82.6%에 달한다. 이 두 기업의 후난위넝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2021년 후난위넝은 CATL, BYD, 이브에너지, 에스볼트와 고정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보증 계약에 따르면, CATL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후난위넝에서 매월 8,500톤 이상의 리튬인산철을 구매하고, 정해진 분량을 구매할 때까지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후난위넝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보증했다. BYD는 3년간 후난위넝으로부터 연평균 3만 6천 톤 이상을 구매 계약했다. 이는 후난위넝이 매년 확보한 리튬인산철 출하량이 13만 8천 톤임을 의미한다.

CATL과 BYD의 영향력

이번 주식 발행 심사에서 관리감독 당국은 후난위넝에 CATL 등 주주의 지분 투자에 이어 협력 규모를 확대한 이유와 합리성, 이익 이전 또는 상업적 이익 교환 상황, 협력 지속 가능성, 판매 제한 기간 만료 후 판매 감소 리스크 등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후난위넝은 회신서를 통해 CATL과 BYD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지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CATL과 BYD는 후난위넝에서 8억 6,200만 위안을 들여, 톤당 단가 2만 9,500위안에 약 2만 9,200톤의 리튬인산철을 구매했다. 2020년 다이나노닉의 리튬인산철 평균 판매가는 톤당 2만 9,600위안이고, 안다커지(安達科技)의 평균 판매가는 3만 500위안이다. 후난위넝의 판매가는 다이나노닉과 거의 비슷하지만, 안다커지와 비교하면 톤당 1천 위안 가까이 낮다.

또 다른 데이터는 판매 단가의 변동을 보여준다. 2020년, 후난위넝이 다른 고객사에 제공한 평균 판매가는 톤당 3만 2,100위안이었다. 즉 CATL과 BYD는 다른 고객사보다 톤당 2,600위안 더 저렴하게 구매한 셈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더 나아가 톤당 5,600위안 저렴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전인 2019년 CATL과 BYD는 가격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난위넝에서 14.3%의 프리미엄 가격으로 제품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후난위넝에 6,800만 위안의 매출을 더 가져다 주었다. 주목할 점은, 2019년 후난위넝의 모회사 귀속 순이익이 5,700만 위안으로, 추가된 6,800만 위안이 아니었다면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CATL, BYD, 후난위넝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며, 주주이자 주요 고객사가 되어 수익 경쟁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룽판커지는 산둥(山東) 쥐안청(鄄城)에 리튬인산철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CATL과 독점 프로젝트를 실행, 1년 반 내 모든 생산능력을 소화했다. CATL은 3억 5천만 위안을 선지급하며 충분히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룽판커지가 이에 대한 대가로 CATL에게 제공한 판매가는 톤당 2,150위안의 할인가였다.

후난위넝의 고객사는 매우 집중되어 있지만, 공급업체는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2021년 상위 5개 공급업체의 구매 비율은 41%이며, 진후이리튬(金輝鋰業)과 관계사, 톈치리튬(天齊鋰業)은 상위 2대 공급업체로, 후난위넝의 당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1.45%, 10.85%이다.

다이나노닉은 2019년 4월 IPO를 통해 약 4억 5천만 위안을 조달했고, 룽바이커지는 2019년 7월 IPO에서 약 17억 위안을 조달했다. 창위안리커는 2021년 8월 IPO를 통해 약 28억 위안을 조달했다. 후난위넝은 18억 위안을 조달할 예정이다.

후난위넝은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으로 쓰촨위넝(四川裕能) 3기(연간 리튬인산철 생산량 6만 톤 목표) 생산능력 증설 사업에 6억 위안, 쓰촨위넝 4기(연간 리튬인산철 생산량 6만 톤 목표) 사업에 7억 위안, 유동자금 보충 등에 5억 위안을 사용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난위넝의 연결 자산부채율은 35%, 44%, 69%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 밖에,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으로 얻은 현금은 각각 1억 1,700만 위안, 1억 1,100만 위안, 17억 7,900만 위안이다. 이를 당해년도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현금 매출 비율(상품 판매로 얻은 현금과 주영업매출액 간의 비율)은 각각 0.2, 0.12, 0.25로, 1보다 훨씬 더 낮다. 이는 회사가 상품을 판매했지만, 판매 금액이 제때 회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다이나노닉의 현금 매출 비율은 각각 0.78, 0.96, 0.35로, 전반적인 상황이 후난위넝보다 다소 좋았다. 2021년 말, 외상 매출과 미수 어음 규모는 23억 6,300만 위안으로 1년 전의 4억 5천만 위안보다 4배 증가했으며, 당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2021년 말, 후난위넝이 갖고 있는 CATL과 BYD로부터의 미수금은 각각 10억 위안과 11억 위안으로, 해당 매출액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최근 2년간 BYD에서 나온 판매액 대비 미수금 비율은 39%에 달하고, CATL의 지급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26%에 달했다.

이에 대해 후난위넝은 판매가 주로 4분기에 발생했고 결산 기간이 90일이어서 미수금이 많았지만, 1년 이내 결산이 99.6%를 차지해 미지급 리스크는 낮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난위넝의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각각 5,700만 위안, 4,600만 위안, 11억 7,500만 위안이며, 미수금은 각각 6,100만 위안, 2억 6,700만 위안, 21억 2,400만 위안이다.

> 미수금 외에 재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후난위넝의 재고는 2020년 말 1억 3천만 위안에서 2021년 말 9억 위안으로 늘어나 증가폭이 592%에 달했다.

같은 기간 CATL의 현금 매출 비율은 각각 1.14, 1.07, 1로 늘 1보다 컸으며, 이는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받음을 의미한다. BYD의 현금 매출 비율은 각각 0.84, 0.89, 0.94로 1 이하지만, 후난위넝보다는 훨씬 높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고속 성장하면 미수금은 악성부채가 되지 않겠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거액의 미수금이 대규모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리튬인산철 출하량 1, 2위 업체인 후난위넝과 다이나노닉의 상황도 이러한데, 다른 업체들은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수금 외에 재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후난위넝의 재고는 2020년 말 1억 3천만 위안에서 2021년 말 9억 위안으로 늘어나 증가폭이 592%에 달했다. 그 배경에는 생산 과잉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후난위넝 주요 재무 데이터(단위: 위안)

항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자산총액	87억 2,574만	27억 3,417만	9억 407만
모회사소유주주권익	27억 649만	15억 3,184만	5억 8,760만
자산부채율(모회사)	71.70%	29.37%	27.94%
매출	70억 2,668만	9억 5,461만	5억 8,142만
순이익	11억 7,465만	4,623만	5,737만
모회사귀속 순이익	11억 7,465만	4,623만	5,737만
비경상적 손익을 뺀 모회사귀속 순이익	11억 7,997만	4,222만	5,706만

생산능력 확대의 명암

2021년 말, 후난위넝이 이미 완공한 생산라인의 연간 생산능력은 총 19만 3천톤이다. 또한 후난(湖南),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에서 리튬인산철 생산 설비를

신규 건설 또는 증설하고, 부대적으로 인산철 생산 설비를 건설할 계획도 있다. 추가된 생산 설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사용되며, 모두 건설된 이후 예상 연간 총 생산능력은 2021년 말 수준의 4.6배인 89만 3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나노닉, 룽판커지, 후베이완룬(湖北萬潤)도 마찬가지로 생산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 1월 다이나노닉과 윈난 취징(曲靖)시는 연간 생산량 33만 톤 규모의 인산염계 양극재 생산 기지 사업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후베이완룬은 차스닥 IPO 심의를 통과해 조달한 12억 6,200만 위안을 자회사인 홍마이까오커(宏邁高科)의 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사업과 신에너지 리튬배터리 양극재 R&D센터 건설 및 유동자금 보충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중, 홍마이까오커 사업의 총 투자액은 8억 위안으로, 1기는 리튬인산철 3만 톤, 2기는 리튬인산철 2만 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2021년 12월 룽판커지는 자회사인 창저우리위안(常州鋰源)이 산둥성 쥐안청현 지방정부와 리튬인산철 양극재 사업의 신규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가 약 8억 위안에 이른다.

> 주요 기업의 계획 생산능력이 완전히 실현되면, 2023년 생산능력은 2025년 전 세계 수요량을 충족하며 생산 과잉이 2년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밖에, CATL과 이브에너지 등 다운스트림 기업도 업스트림 업계로 손을 뻗고 있다. 2021년 10월, CATL은 지주 자회사를 통해 이창(宜昌)에 320억 위안 규모의 방푸(邦普)일체형배터리 소재산업단지를 건설, 리튬인산철 및 삼원계 전구체 등을 생산하기로 했다.

2021년 3월, 이브 에너지와 다이나노닉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10만 톤 규모의 리튬인산철 사업에 투자하고, 이브 에너지와 그 자회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2022년 2월 이브 에너지, 언제구펀(恩捷股份), 윈톈화(雲天化), 저장화여우흘딩스그룹(浙江華友控股集團), 위시(玉溪)시정부는 공동으로 신에너지 배터리 사업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기와 2기 사업 금액은 총 517억 위안으로, 부대 사업에는 신에너지 배터리, 리튬배터리 분리막, 인산철, 리튬인산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리튬인산철 1위 기업은 생산능력을 연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신규 생산설비의 건설 주기는 18~24개월이다. 차이신증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리튬인산철 주요 기업의 생산규모는 62만 6천 톤이다. 2022년에는 120만 톤을 넘어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말에는 188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생산능력의 3배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향후 몇 년 동안 전체 업계의 투자 규모는 1천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장 수요는 얼마나 될까?

궈신증권(國信證券)은 2025년 전 세계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수요량이 710GWh(기가와트시, 한 시간당 사용되는 기가와트급의 전기량)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리튬인산철의 2,500톤/GWh 단위 소비량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2025년 리튬인산철 양극재 수요량은 180만 톤으로 계산된다. 앞서 언급한 주요 기업의 계획 생산능력이 완전히 실현되면, 2023년 생산능력은 2025년 전 세계 수요량을 충족하며 생산 과잉이 2년 앞당겨질 수도 있다.

대규모 자금이 양극재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생산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 다운스트림에선 재료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향후 업계의 시장 수요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요 양극재 제조사의 생산능력 확대가 너무 빠르면 구조적·단계적 생산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후난위넝 IPO 이전 10대 주주 지분 비율

순위	주주	지분 비율
1	덴화그룹	13.48%
2	진성신재료(津晟新材料)	10.57%
3	CATL	10.54%
4	샹탄덴화(湘潭电化)	8.47%
5	후난위푸(湖南裕富)	7.90%
6	광저우리후이(广州力辉)	7.04%
7	BYD	5.27%
8	창장천다오(长江晨道)	4.49%
9	난닝추다(南宁楚达)	3.95%
10	창장천다오(长江晨道)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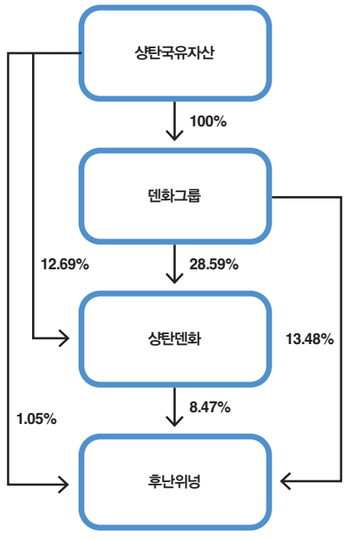
억만장자 탄생 기대감

2022년 7월 8일, 후난성에는 총 134개의 A주(중국 본토 증시) 상장회사가 있으며, 총 67개의 회사가 창사(長沙)에 집중되어 있다. 후난성에서 경제 규모가 중간 수준인 샹탄에는 중국A주 상장기업이 5곳에 불과하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방산기업 중빙홍젠(中兵紅箭, 강남홍전)으로 대략 440억 위안에 달한다. 이로써 후난위넝은 샹탄의 6번째 상장회사가 될 예정이다.

후난위넝의 상위 10대 주주 중, 샹탄전샹국유자산 경영투자유한회사(湘潭振湘國有資經營投資有限公司, 이하 전샹궈터우)는 덴화그룹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샹탄덴화(湘潭電化) 지분의 12.69%를 보유하고 있다. 덴화그룹도 샹탄덴화 지분 28.59%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연결 규모상 최대 주주(샹탄덴화, 덴화그룹, 전샹궈터우)는 후난위넝 주식의 총 23%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지배력은 없다.

그러나 후난위넝은 현재 이사 6명과 사외이사 3명을 두고 있으며, 탄신차오(譚新喬) 회장이 덴화그룹과 샹탄덴화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사들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루이하오(陸怡皓)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이사는 모두 덴화그룹과 샹탄덴화의 전현직 임원이다. 이 밖에, 후난위넝은 현재 9명의 고위 임원을 두고 있으며, 모두 덴화그룹과 관계사에 재직하였고, 셰쥔형(謝軍恒) 감사위원회 회장도 덴화그룹에서 재직한 적이 있다. CATL과 BYD는 모두 지분이 5% 이상이지만 이사를 지명하지 않았다.

후난위넝과 1대주주의 지배구조



자료: 후난위넝 투자설명서

후난위푸(湖南裕富), 징시위안쥐(靖西源聚), 샹탄위허(湘潭裕和) 등 8대 직원 보유지분 플랫폼은 후난위넝의 총 6.084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전 점유율은 10.7%가 넘었다. 이는 최대 주주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난위넝의 상장은 부의 창출 효과도 가져온다. 투자자 원위(文宇)는 두 차례에 걸쳐 투자해 총 투자금액이 2,996만 위안으로 1,998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9.52위안으로 추산하면, 시가는 약 1억 9,000만 위안, 수익률은 534%이다. 6년 동안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

후난위넝 CEO 자오화이추(趙懷球)는 1975년 출생으로, 샹탄덴화 황산망간 공장의 공장장이자 덴화그룹의 CEO 보좌관 등의 직위를 역임했다. 2016년부터 후난위넝의 CEO를 맡고 있으며, 현재 보유 지분은 500만 주가 넘는다. 상장 후 그의 자산은 약 5천만 위안이다.

고위급 임원 중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부사장인 저우서우훙(周守紅)이다. 그는 총 3.4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는 1억 9천만 위안 가까이 된다. 그가 이끄는 광시위넝(廣西裕寧)의 2021년 순이익은 1억 7천만 위안으로, 후난위넝 자회사 중 가장 큰 수익을 냈다.

상장 이전 후난위넝의 140여 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받았다. 예정된 발행가격에 따르면, 1인당 지분 시가는 약 500만 위안이다. 후난위넝의 IPO 금액은 더 후하다. 상장 후 주가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원 중에서 여러 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다. A주의 '부자 탄생' 바람은 중국 대도시에서 소도시 샹탄까지 불어올 듯하다.

BYD는 후난위넝의 주요 주주이자 고객사로서 긴밀한 공생관계에 있다.

시진핑 3기 시대의 중국경제,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시진핑의 3기 연임이 시작되었다. 불안과 의구심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투자는 계속된다.

글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사진 SHUTTERSTOCK

20차 중국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드디어 3기 연임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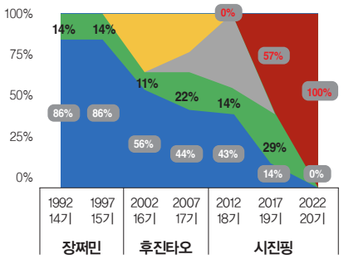
20대 당대회는 시자쥔(习家军) 단합대회

9,617만 명의 당원과 230만 명의 인민해방군을 거느린 공산당의 당대회가 10월에 끝났다. 19대 당대회 이후 5년 만의 이벤트다. 2022년 10월 16일에 열린 중국의 20차 당대회는 전당대회라기보다는 시진핑군단, 시자쥔(习家军, 습가군, 시진핑을 따르는 계파) 단합대회였다.

그간 중국은 상하이방, 공청단파, 태자당파 등 3개의 계파가 상호견제하면서 국가를 통치해 왔다. 하지만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온 집단지도체제와 그 속에서의 상하이방, 공청단파, 태자당파의 상호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시자쥔이 상무위원 7명을 싹쓸이했는데, 이들은 시진핑이 복건성과 저장성, 상하이에서 일할 때 맺어진 직연(職緣)으로 연결된 이들이다.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향후 5년을 통치할 지도부를 새 부대에 새 술이 아니라 오래된 술로 채웠다.

시자쥔 권력 독점의 배경에는 미국이 무역전쟁, 기술전쟁으로 전쟁터를 확대시켜 가는 과정에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다. 특히 미중 기술전쟁의 와중에서 행해진 핵심 지도부 정치국원 24인 인사의 특징을 보면 24명의 정치국원 중 1/4인 6명을 우주항공, 핵, 환경, 의료분야 전문가로 채워, 마치 미국과의 기술전쟁에 대비한 전시내각을 방불케 했다.

당 상무위원 계파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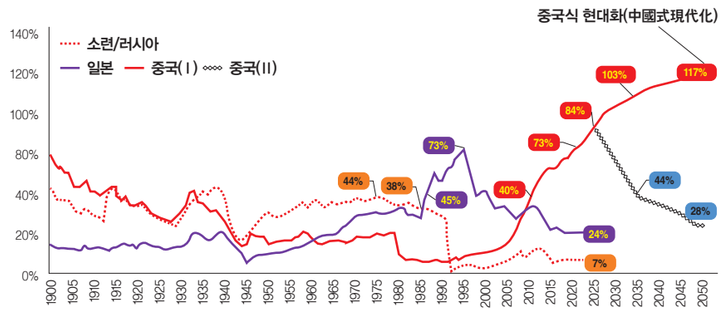


자료: 중국정부망,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식 현대화'와 '공동부유론'

그간 중국은 미국과 경제전쟁을 하면서 겁 없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떠들다가 코가 깨졌다. 예를 들면 2025년까지 중국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떠들다가 미중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좋은 시빗거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중국은 2018년 미중 경제전쟁 이후 모든 경제정책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는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모호하고 추상적인 중국식 표현으로 속내와 야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대비 각국 GDP 규모 추이(미국=100%)



자료: IMF, WB,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1시간 40분간 읽은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중국식 현대화'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시진핑 3기 정부의 핵심 어젠다다. 일반적으로 현대화는 서방의 근대화, 공업화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번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는 야망을 '중국식 현대화'라는 모호한 단어로 포장해 서방세계를 호도하고 있다.

보고서에 나오는 '중국식 현대화'란 세계 2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의 표현이다. 미국을 베껴서 2위까지는 왔지만 1위를 뛰어넘으려면 1위의 제도와 시스템 기술을 베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젠 1위와는 다른 제도, 시스템, 기술로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충돌,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 같은 경제전쟁은 불가피하고 여차하면 무력 충돌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이 중국에 있다. 중국은 이런 속내의 표현으로 '국가안전'을 이번 당대회 문건에서 가장 많이 반복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무엇인지도 실토했다.

당대회 문건에서는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식량, 에너지,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전이라고 명확하게 적시했다. 배고픈 군대는 싸울 의지가 없고, 에너지는 현대 산업의 생명수이다. 중국은 콩 소비의 90%, 석유 소비의 72%를 수입에 의존한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첨단 반도체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에 절대빈곤을 없앤 소강사회를 달성하고 나서 2035년까지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론'을 새로운 국정 어젠다로 부각시켰다. 4,200만 명을 아사시킨 사회주의 대약진운동을 교훈으로 1978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래 44년 만에 미국 GDP의 81%에 달하는 거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50%의 소득보다 큰, 심각한 소득 불평등도 함께 따라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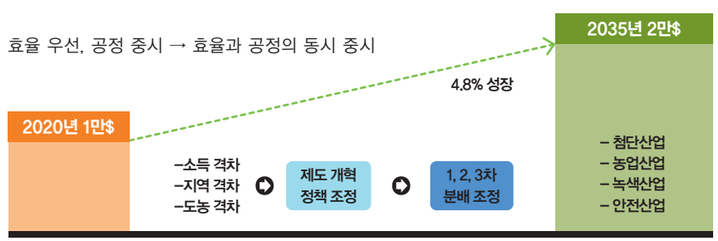
그러나 인류역사상 14억이 모두 같이 잘산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런 목표를 내세운 것은 그저 정치적 어젠다일 뿐이다. 중국의 공동부유는 알리바바, 텐센트의 오너 같은 부자들의 돈을 14억의 인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1위 부자는 세계 글로벌 500대 부자 순위 16위에 들어갈 정도이지만 상위 10대 부자의 재산을 모두 털어 14억 인민에게 나누어 주면 1인당 29만 5천원씩 돌아갈 뿐이다.

한국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중국의 공동부유론을 본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플랫폼기업이 반독점법과 데이터보안법에 걸려 주가가 50~90% 하락하는 바람에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기업의 매출액은 중국 GDP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 보고서에 나오는 '중국식 현대화'란 세계 2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야망의 표현이다.

중국의 2035년 경제목표와 공동부유론

자료: 중국정부망, 중국경제금융연구소



반독점법으로 알리바바, 텐센트를 제재하면 1위 기업의 점유율이 2위, 3위 기업으로 옮겨갈 뿐, 인터넷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국부의 유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국당국이 마음대로 제재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의 목표는 과도한 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부자를 털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1인당 소득 1만 2천 달러인 나라에서 나누면 더 가난해질 뿐이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의 목표는 2035년까지 1인당 소득을 현재의 2배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4.8%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데이터 독점과 시장 독점을 통해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산업, 예를 들면 인터넷, 부동산, 사교육기업을 제재하는 대신 고임금을 창출하는 첨단기술산업,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농촌진흥산업,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산업, 신에너지와 환경산업은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공동부유론의 진짜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플랫폼기업에 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정부 제재로 큰 투자손실을 입어 중국의 공동부유론이 기업을 죽이고 시장을 국유체제로 돌리는 것으로 오인한다.

8대 분야 강국 건설이 5년 후 목표

중국은 1인당 소득 10만 위안 이상을 중산층으로 보는데 이 소득계층 바로 아래에 있는 7만 위안대 소득계층 3.6억 명을 향후 15년간 10만 위안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국식 중산층 만들기가 중국 공동부유론의 진짜 목표다.

서방언론에서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두고 1인집권체제로 인해 피해가 컸던 마오쩌둥시대로의 회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번 중국식 현대화를 두고 40여년간 지속해 온 개방경제를 폐쇄경제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 보고 문건을 보면 향후 5년의 경제정책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산업현대화와 농촌진흥, 지역발전과 대외개방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천명하고 있고 어디에도 폐쇄경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없다. 오히려 교통, 제조, 인터넷, 디지털, 품질, 우주, 농업, 무역 8대 분야에서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나라를 세웠고 덩샤오핑이 돈을 벌게 했고 시진핑이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한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실험으로 4,200만 명을 굶겨 죽였지만 시진핑은 2003년 집권 이래 9,800만 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인구를 가난에서 탈출시킨 것을 치적으로 삼고 있고 이것이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세계 최대 무역대국, 제조대국인 세계의 공장, 중국이 폐쇄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중국은 먼저 경제강국이 되지 않으면 군사강국 문화강국이 될 수 없다. 시진핑 3기에도 중국은 여전히 개방경제를 지속하고 경제강국 건설이 최우선 순위다.

중국 위기론보다는 경기회복에 주목

이제 중국의 미래 30년은 이전 30년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중국이 아니다. 서방언론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다시 폐쇄경제로 돌아선다는 주장이 많지만 중국의 당대회 보고문을 읽어보면 중국은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의 플랫폼 위에서 사회주의 개발독재를 통해 미국을 넘어서려는 것이다.

돈을 앞에 두고는 냉정해지라는 말이 있다. 서방의 예측처럼 중국이 일인집권의 부정적 효과로 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개발독재를 하는 경우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하지만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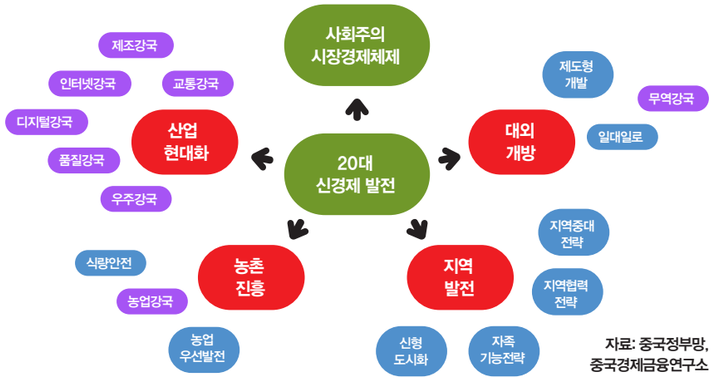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새로운 관리가 부임하면 세 개의 횃불을 흔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기세등등하게, 혹은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다.

시진핑 일인집권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오히려 집권 초기에는 신임 관리들의 잘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친다. 신정부가 들어서면 신임관리 간의 정책 경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2023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불황에서 코로나를 먼저 안정화시킨 중국이 서방세계의 비관론과 다르게 경기회복이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다.

2023년에 중국은 코로나 방역 철폐, 부동산 규제 완화, 통화 증가의 3종 세트를 쓸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감안하면 2023년의 중국 경제는 2020년과 같은 패턴의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2023년 경기 회복의 첫째 수혜업종은 음식료, 유통, 운송, 여행관광업이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중국이 추진할 '국가안전' 관련산업과 '공동부유' 관련업종도 주목할 만하다. 방산, 종자산업, 신에너지산업, 비철금속산업, 반도체업종이 국가안전과 공동부유 관련업종이다.

중국 사회의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시진핑과 중국 집권층의 선결 과제다.

20대 당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의 경제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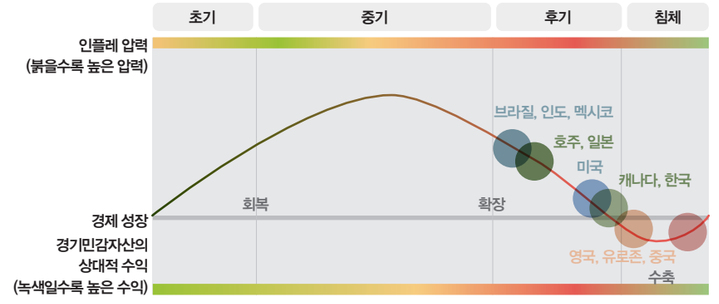


자료: 중국정부망, 중국경제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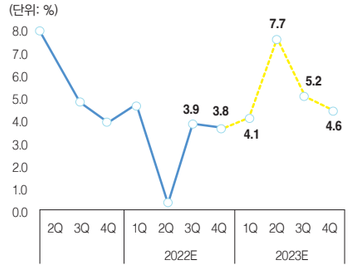
> 지금 세계 최대 무역대국인 중국이 폐쇄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주기상의 위치(2022년4Q)

자료: institutional.fidelity.com



중국 분기별 GDP성장률 전망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의 악전고투

중국 최초로 신선식품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미스 프레시가 파산했다.
코로나 봉쇄로 우울한 중국 시장에 전해진 또 하나의 비보다.

글 Rui Huixian 사진 Getty Images, Shutterstock

"시장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기업에게 기회를 준다."

중국 최초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기업 미스 프레시(Miss Fresh, 每日優鮮)의 실패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불과 15일 전, 회사는 산시(山西) 둥후이그룹(東輝集團)이 미스 프레시에 2억 위안 상당의 지분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7월 마지막 주에는 미스 프레시도 오랜만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다시 열었다.

과거 미스 프레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몇 차례 이전한 후, 본사 주소를 베이징 왕징(望京)에서 순이(順義)로 옮겼다. 새 사무실 인테리어도 완료되고, 모든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했다.

그러나 20분간의 온라인 회의는 부푼 꿈을 완전히 깨뜨렸다. 회의에서 직원들은 아직 투자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며 '업무는 오늘까지'라는 통보를 들었다. 800여 명의 직원이 퇴사당하고, 업무용 계정은 모두 사용이 금지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스 프레시의 30분 스피드 배송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미스 프레시 앱도 그날 밤부터 주문을 할 수 없었다.

SYNDICATION/SHANGJIE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기업의 실패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미스 프레시는 오프라인 업무를 재개했다. 텅 빈 책상을 바라보는 직원 샤오리(小李, 가명)에게는 바뀐 회사의 풍경이 너무 낯설었다.

사무실이 왕징에 있을 때는 사무집기를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배치할 정도로 북적였다. 그러나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무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임신 20주차였고, 새 사무실의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그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7월 27일 수요일, 샤오리는 회사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꼈다. 인사팀에서 갑자기 회사 건물의 대기 환경 정비를 위해 목요일과 금요일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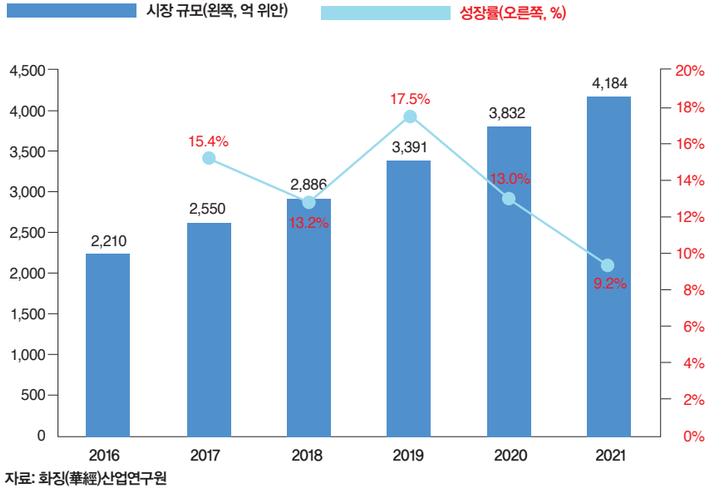
7월 28일 목요일, 샤오리의 좋았던 기분은 갑자기 열린 온라인 회의로 혼란스러워졌다. 사장 쉬정(徐正)은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인사 담당자가 나서서 회의를 주재했다.

"자금이 계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다수 동료들의 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8월이면 모두가 자체적으로 공적금(공동적립금)을 내야 합니다."

샤오리는 냉정을 찾으며 키보드로 분노에 찬 글자를 입력해 나갔다. "보상도 없고 퇴사증명서도 안 나오고 사회보험도 끊겼는데, 이런 상황에 경영진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나요?" 그녀가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진행자가 여러 사람의 항의를 못 이기고, '사후 업무의 원활한 소통 메커니즘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황급히 회의를 강제 종료했다.

'원활한 소통 메커니즘 보장'이라는 말이 귀에 맴도는 듯했지만, 회의가 끝난 후 약 5 분 만에 모두의 페이수(飛書: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기업용 협업 솔루션) 계정, 회사 이메일, 회사 VPN, OA시스템이 모두 차단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공급업체와 미스 프레시의 계약서에는 기업이 매월 15일 이전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미스 프레시는 30~60 일가량 지급이 지연되기 일쑤였다.

중국 콜드체인 물류 시장 규모와 성장률 (2016–2021년)



자료: 화징(華經)산업연구원

> 이런 변동의 이면에는 대주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주주 텐센트는 투자자 리스트에서 사라졌으며, 추가 투자 유치도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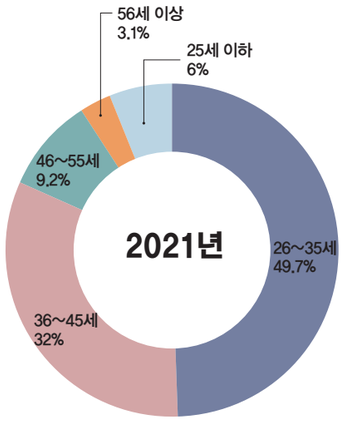
올해 3월부터 미스 프레시에는 잇달아 공급업체가 빚 독촉을 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은 미스 프레시의 본사 직원들이 떠나서 빈 건물이지만, 이 공급업체들은 남는 것을 선택했다. 빈 건물을 지킨다는 것은 손에 닿을 듯 보이지만 결국 헛된 희망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직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현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일부 공급업체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미스 프레시의 갑작스러운 철수가 사실은 처음부터 경영진이 주도한 음모라고 의심하는 이도 많았다. 회사에서 공식적인 고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로를 통해 회사의 주요 법인 대표가 이미 변경된 것이 발견됐다. 7월 18일 상업등록정보에 의하면, 메이르여우센의 여러 고위급 임원, 즉 쉬정, 정빈(曾斌), 리양(李漾), 쑨위안(孫原) 등이 잇따라 사퇴하고 법정 대표가 정빈에서 쑨위잉(孫玉英)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동의 이면에는 대주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시리즈 E 라운드의 자금 조달 이후, 대주주 텐센트는 투자자 리스트에서 사라졌으며, 아마도 미스 프레시도 투자시장에서 철수했을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미스 프레

중국 신선식품 소비자 연령 분포



자료: 화징(華經)산업연구원

시의 순손실은 각각 22억 3,200만 위안, 29억 900만 위안, 16억 4,900만 위안으로, 3년 누적 손실액은 67억 9천만 위안이었다. 회사 주식은 상장 당일 급락했고, 13달러였던 발행가는 7월 28일 0.14달러로 마감했다.

과거 미스 프레시에 열광했던 투자자들은 이미 지친 듯했고, 말만 번지르르한 PPT는 더 이상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다가 버려지기까지, 미스 프레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운영비가 높으며,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의 대규모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스 프레시의 몰락 원인으로 지적했다.

치열한 경쟁에 뛰어드는 천재들

배송지 근처에 소형 창고를 다수 설치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은 미스 프레시의 창립자 쉬정의 첫 작품이자 그의 야심작이었다.

2014년 쉬정이 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신선식품을 대형 창고에서 도시 지역사회 근처의 작은 창고로 이동시키고, 소비자가 주문하면 상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 모델의 장점은 빠른 속도로 신선식품 업계의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바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직장인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쉬정의 화려한 인생에 미스 프레시와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15세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2학년에 중국과학기술대학에 추천 입학하여 수학을 전공, 경영학을 부전공했다. 졸업 후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레노버(LENOVO)의 최연소 경영총괄을 맡았으며, 33세에 창업해 40세에는 기업 상장을 이끌었다.

운명이 천재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이 거물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스 프레시의 첫 5년간, 회사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심지어 쉬정이 회사명과 로고도 미처 정하지 못한 상태였을 때, 광신캐피털(光信資本)과 텐센트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 도심형 물류창고는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모델이다. 게다가 신선식품은 상품이 다양해서 품목을 확대하기 어렵다.

잘나가던 쉬정의 창업 인생 전반부는 그를 들뜨게 하고 적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천재 쉬정은 화려한 거품 속에서 맹목적으로 업계의 핫 트렌드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매장과 창고의 통합, 용과와 두리안을 중심으로 한 히트상품 제조, 소셜커머스, 무인 진열대 등 여러 시도는 예외 없이 흐지부지 끝이 났다.

천재가 내놓은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을 수많은 동종 기업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산업을 더 큰 비용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도심형 물류창고는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모델이다. 게다가 신선식품은 상품이 다양해서 품목을 확대하기 어렵다. 이 밖에, 단일 창고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의 총이익률이 높아지기 어렵고, 이는 바로 회사의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미스 프레시는 감원과 도심형 물류창고 축소 등 일련의 방법을 취해 비용을 줄였지만 사업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른 신선식품 유통업체들의 상황은 어떨까? 허마셴셩(盒馬鮮生) 창립자이자 CEO인 허우이런(侯毅任)은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은 비합리적이며,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물류비용을 회수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연구원 왕량(王良)에 따르면,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은 원가가 높지만 기업이 업스트림을 확장하여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하고, 사전 제작 음식 등 총이익이 높은 자체 상품을 개발하며 공급망의 배치와 운영 최적화를 이룬다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등 수익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을 벤치마킹한

라스트 마일을 장악하려 했던 미스 프레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실패로 돌아갔다.

딩둥마이차이(叮咚買菜)는 이런 방식에 정통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객단가의 총이익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줄였다. 2022년 딩둥마이차이가 발표한 1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딩둥마이차이의 총 매출은 54억 4,4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3.2% 증가했다. 순손실은 4억 7,700만 위안으로 65.5% 감소하여, 딩둥마이차이의 지난 7분기 중 손실이 가장 적은 분기가 되었다.

딩둥마이차이의 량창린(梁昌霖)은 재구매율이 증가한 배경을 회사가 채널의 편리함을 판매 포인트로 삼아 제품 중심 전략으로 조정한 것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딩둥마이차이는 가성비를 중시해 왔지만 이제는 품질이나 더 나은 제품을 강조해야 한다. 가성비가 높은 상품의 운영을 개선하고, 객단가를 높이는 것이 딩둥마이차이의 미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이 전략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 2018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딩둥마이차이 사용자의 월평균 주문량은 3건 이상을 유지했지만, 미스 프레시의 월 평균 주문량은 1건 미만이었다.

딩둥마이차이는 감원을 총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말하기 좋게 포장했지만,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량창린은 수익을 실현하기 전까지 편히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개행사에서 량창린은 딩둥마이차이의 목표는 진정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마셴셩의 허우이런은 "량창린은 너무 급하고 그의 투자자들도 급하다. 곧 창고에 과부하가 생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선식품 거래의 약점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 외에도,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다. 허

중국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의
경쟁자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골목 시장이다.

마(盒馬)를 대표로 하는 창고-매장 통합 모델, 메이퇀여우쉬안(美團優選)을 대표로 하는 커뮤니티 공동 구매 모델, 징둥다오쟈(京東到家)를 대표로 하는 플랫폼 전자상거래 모델, 중량워마이망(中糧我買網)을 대표로 하는 수직형 식선식품 전자상거래 모델 등이 그 예이다.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에 비해, 창고-매장 통합 모델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더 높다. 허우이런은 딩둥마이차이에 수차례 쓴소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허마셴셩 역시 수익성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지 못했다. 허마셴셩은 올해 난징, 칭다오, 청두 등의 도시에서 매장 몇 곳의 문을 닫았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메이퇀여우쉬안의 손실은 더욱 확대되었다. 2022년 4월 메이퇀은 감원을 실시했으며, 그중 메이퇀여우쉬안 사업 라인이 주요 대상이었다.

징둥다오쟈의 라이더는 대부분 정규 라이더가 아니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부 분석가는 해당 플랫폼의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 중량그룹(中糧集團)이 만든 워마이망은 공급체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업계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다.

어떤 모델이든 높은 비용, 낮은 객단가, 낮은 이익이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밖에 신선식품 전자상거래는 태생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다. 비용이 높아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의 단가는 낮지 않다. 가격에 매우 민감한 중장년층 고객들은 신선식품 시장의 주요 타깃이지만, 이들은 집 앞 채소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신선식품 전자상거래는 현재 외로운 고급 틈새시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2018년과 2019년, 투자가 얼어붙었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업계는 짧은 봄을 맞이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 이 레드오션은 안정을 되찾았다. Mob 연구소 애널리스트는 현재 신선식품 구매장소는 여전히 전통 채소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플랫폼 거래규모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보급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성장 둔화도 경쟁을 교착상태로 만들었다. 대형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업

증권업계 최초!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투자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개인연금 랩어카운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어렵고 신경쓰이는 개인 연금투자!
이제, 연금저축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객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와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글로벌 투자 전문가가 관리해드립니다.
[고객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제공]
개인연금 Wrap70+/40+/30+/20+
개인연금 랩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랩계약은 고객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 랩계약은 위탁매매 수수료와 랩계약의 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781호 (2022.11.09~2023.11.08)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체들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지만 선두 기업 사이에서도 절대적인 지배자는 없다. 업계 애널리스트는 딩둥마이차이와 미스 프레시가 합병되더라도 전체 신선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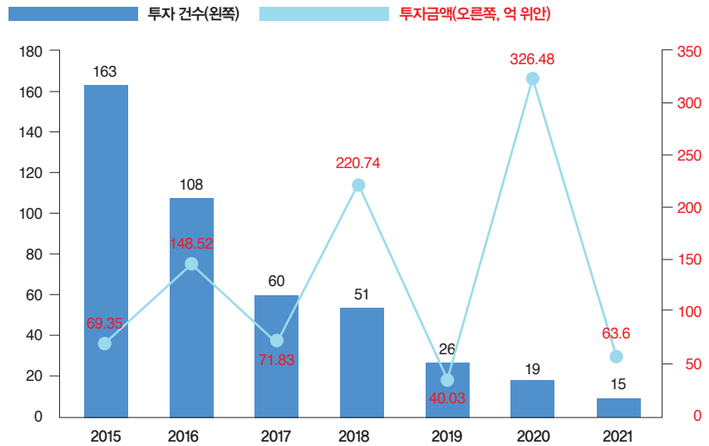
현재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업계는 이미 거물 투자자의 게임판이 되어서, 중소기업은 감히 끼어들 엄두도 내지 못한다. 대기업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는 틈새 속에서 일부 지역사회의 작은 신선식품 매장은 좋은 입소문에만 의존하여 인지도를 높이며 생존 기회를 찾고 있다.

실패의 본질

투자자들은 초조하면서도 열광적이지만, 신선식품 전자상거래는 본질적으로 마진이 작고 회수주기가 긴 사업이다. 신선식품 전자상거래를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디지털+농업'의 전형적인 발전 모델이다. 농업 산업사슬, 공급체인, 콜드체인 등 다방면에 노하우가 필요하다.

왕징서(網經社) 전자상거래연구센터의 특임 연구원이자 바이롄컨설팅(百聯諮詢) 창립자인 좡솨이(莊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끈 도심형 물류창고 모델은 전통적인 종합전자상거래와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높은 재구매율 및 사용자 규모에는 훨씬 뒤떨어진다. 사실,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회사는 야심을 줄이고, 작고 좋은 장사만 해도 무방하다. 신선식품 전자상거래가 고려해야 하는 경쟁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길모퉁이의 채소시장, 동네 상점, 슈퍼마켓이며, 규모의 경쟁이 아닌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신선식품 전자상거래는 전체 산업 사슬에 대한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업계 투자 상황 (2015–2021년)



자료: 화징(華經)산업연구원

좡솨이는 인터뷰에서, 영세사업자의 경우 메이퇀샨거우(美團閃購), 징둥다오자, 어러머(餓了麼), 타오셴다(淘鮮達) 등 대형 플랫폼에서 매장을 열고, 전체 소셜 전자상거래 부문 중 한 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 높은 비용,
> 낮은 객단가, 낮은 이익이
>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 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 것은 부인할 수 없는
>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여러 방식을 동시에 취하는 것도 좋다. 소매시장도 관리하면서 슈퍼마켓, 호텔, 전문점 등에 공급하는 식이다. 가격, 서비스, 제품 및 마케팅 혁신이 잘 이루어지면 영세사업자도 틈새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다.

좡솨이는 "시장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기업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말하며 "사장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인재가 얼마나 있는지,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제대로인지 등 하루 세 가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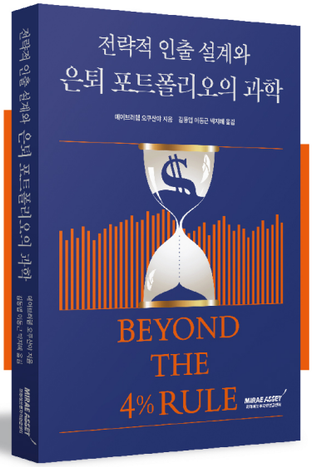
돈이 충분하지 않고, 인재가 너무 적으면, 영세사업자는 한두 가지 채널만 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동네 슈퍼마켓에만 공급하는 것이다. 이윤은 적지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쉬정이 미스 프레시를 설립한 초기에 아들이 반에서 놀림을 당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친구들은 "네 아버지는 농부이고 채소를 판다"며 비웃었다. 당시, 쉬정은 코웃음치며 "채소 파는 것이 어때서? 채소를 팔아서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쉬정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전략적 인출 설계와
은퇴 포트폴리오의 과학

에이브러햄 오쿠산야 지음 | 김동엽 이동근 박지혜 옮김

국내 금융권 최초 노후자금 인출 지침서
노후자금 '인출' 전략은 '적립' 전략과 다르다!



BEYOND THE 4% RULE

✓ 인출 전략의 권위자, '4% 법칙' 창시자 윌리엄 벤겐의 강력 추천!
✓ 수명과 지출, 물가 변화를 고려해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는 전략은?
✓ 자산배분을 어떻게 해야 노후자금의 인출 기간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중국 청년을 읽는 12가지 유행어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들은 중국 젊은 층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웃픈 초상화다.

글 **곤도 다이스케** 사진 SHUTTERSTOCK

현재 중국의 젊은 층을 이해하려면 12가지 유행어에 주목하면 좋을 것이다.

우선 현재 40세 이하 중국인은 대부분 외동이다. 자녀 1명이 부모 2사람과 조부모 4사람 손에 금지옥엽으로 사랑받는 '**421가정**'(四二一家庭)에서 자랐다. 그래서 사치스럽거나 이기적인 면모를 가진 젊은이들을 남자는 '소황제', 여자는 '소공주'라 부른다.

더구나 한 자녀 정책의 폐해로 현재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가량 많다. 성비 불균형으로 일부 여성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젊은 여성을 지칭해 '**백련화**'(白蓮花)라고 부른다. 원래 중국 사극에서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성 캐릭터를 부르던 말인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젊은 여성을 뜻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젊은 남녀가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 결혼을 두려워하는 '**공혼족**'(恐婚族)도 생겨났다. 중국에서는 10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2020년 최신 조사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가 나왔다. 첫째, '평균 초혼 연령'이 2010년 24세에서 2020년 28세로 4세 가까이 올랐다. 둘째, 초혼자의 수가 2,200만 9천 명에서 1,288만 6천 명으로 10년 만에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선 결혼뿐 아니라 사회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현상을 사회공포증, 줄여서 '**사공**'(社恐)이라고 부른다.

이들 중 일부는 적극적이었던 부모 세대와 달리 얌전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대부분 외동으로, 집과 차를 소유한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라나 별다른 불만이 없다. 그런 이들에게 붙은 호칭이 '**불계**'(佛系)다. 마치 부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란 뜻이다.

불계 젊은이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 소파에서 뒹굴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그런 모습을 두고 '**당평족**'(躺平族)이란 말이 나왔다. 이른바 '뒹굴족'이란 뜻이다. 당평을 위한 굿즈가 있는데 소파, 담요, 과자, 마지막은 귀이개다. 이들은 부모의 등골에 빨대를 꽂고 산다. 연로한 부모의 재산과 에너지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습로족**'(啃老族)이라고도 부른다.

중국 사회학자들은 습로족을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 순수한 습로족, 일시적 습로족, 부모와 불화를 겪고 있는 습로족, 어떤 목표·목적을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습로족, 가사에 전념하는 습로족이다. 뚜렷한 통계는 없지만 수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젊은이만 탓할 수는 없다. 졸업 시즌인 2022년 7월, 중국에서는 1,076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했다. 그러나 같은 달 청년층(16세~24세) 실업률은 19.9%로, 현재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필업즉실업**'(畢業即失業)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졸업은 곧 실업이라는 뜻이다.

현재 중국의 취업 전선은 극심한 빙하기에 놓여 있다. 그동안 채용에 적극적이었던 IT 대기업도 상당수가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2022년 10월 현재, 7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5%라는 비공식 통계를 인용한 기사가 인터넷에 나왔다가 바로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청년 구직자 증가 문제와 함께 '블랙 기업'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사례지만 대형 IT기업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 출근하는 회사 규정이 사회문제가 됐다. 이를 보여주는 말이 '**구구육**'(996)이다.

심지어 '007'이란 말도 생겨났다. 흔히 아는 제임스 본드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유행어인데,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0시까지, 일주일에 7일을 출근한다는 뜻이다. '회사=자택'인 셈이다.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타공인**'(打工人)이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타공은 중국어로 '아르바이트'라는 뜻인데, 정규직임에도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받는 현상을 개탄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공구인'(工具人)이라는 슬픈 유행어도 생겨났다. 공구는 바로 도구를 의미한다. 즉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도구 취급을 받는 사원이라는 뜻이다.

중국 취업 시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젊은이를 회사에 입사'시켜 준' 느낌이고, 취업자 입장에서는 회사에게 선택받은 느낌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업무상의 실수가 있거나 상사의 뜻을 거스르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 때문에 젊은이들은 입사 후에도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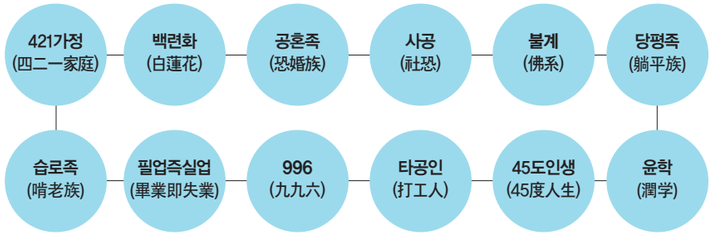
그런 젊은이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유행어가 '**45도 인생**'(45度人生)이다. 90도로 수직 상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0도의 방바닥을 굴러다니며 당평족으로 지낼 수도 없는, 45도 방향을 향해 떠다니는 것 같다는 의미의 자조적인 단어다.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은 유학밖에 없다. 그래서 '**윤학**'(潤学)이란 말이 생겼다. '윤'(潤)은 원래 '매끄럽다, 윤이 나다'의 의미이지만 중국어 병음이 'run'이라 영어의 run과 같아서 '유학을 핑계로 해외로 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 유학이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보면 중국 젊은이들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을 이끌어나가는 일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 '필업즉실업'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졸업은 곧 실업이라는 뜻이다.

중국 젊은 층을 지칭하는 12가지 유행어



베트남에서도 BNPL이 유행이다!

전자상거래 결제시장에 또 다른 다크호스가 등장했다.

글 Tra my 사진 SHUTTERSTOCK

2022년 8월 발표된 시장조사기관 리서치 앤 마켓의 '베트남 BNPL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BNPL 결제금액이 연간기준 79% 성장하여 올해 20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한 베트남의 BNPL 규모가 2022~2028년 기간 동안 31.9%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트남에서 BNPL 방식의 총매출액은 2021년 11억 7천만 달러에서 2028년 1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NPL이란?

Buy Now Pay Later의 두문자로 온라인 외상거래를 가리킨다. 카드 결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카드와 달리 이용하는 데 제한이 별로 없다. ▲분할 상환해도 이자를 물지 않는다. ▲연회비나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다만,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일반 카드에 비해 조금 더 비싸다. 카드 발급이 까다로운 외국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결제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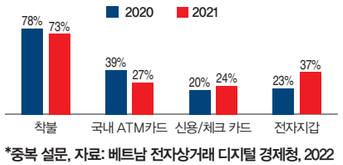
성장하는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BNPL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는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성장이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2022' 보고서에서 베트남 전자상거래 부문이 2021년에 20% 이상 성장하여 1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활발한 성장으로 많은 BNPL 업체가 온라인 상거래 업체와 손을 잡았다. 8월에는 기술기업 KMS가 베트남에서 BNPL 앱인 케이페이(Kaypay)를 출시하여 스포츠웨어와 화장품에 대해 BNPL 방식의 구매 옵션을 제공했다. 앞서 지난 7월 네덜란드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키와 손잡고 BNPL 서비스인 홈 페이레이터(Home PayLater)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최초의 BNPL 스타트업인 펀디인(Fundiin)도 베트남에서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가맹점과 제휴를 맺었다.

펀디인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응우옌 쿠옹은 리테일 부문의 지오이 디동(Gioi Di Dong) 및 디엔 마이 싸인(Dien May Xanh), 일용소비재 부문의 유니레버, 그리고 패션 및 화장품 브랜드 등 많은 분야의 다양한 고객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매자의 선호 지불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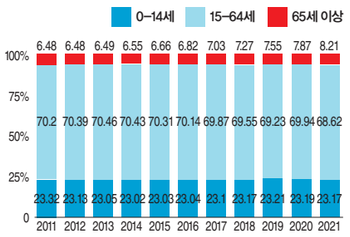
*중복 설문, 자료: 베트남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청, 2022

> BNPL은 향후 모든 상점 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핵심 결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카드 후불 결제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외에도 베트남의 인구 통계학적 조건이 BNPL 서비스가 번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젊은 소비자는 BNPL 업체의 좋은 타깃이다. 쿠옹은 펀디인이 주로 23~30세 사이의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BNPL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많은 은행과 온라인 결제 업체도 경쟁에 합류했다. 쿠옹은 "베트남에서 BNPL이 갖고 있는 큰 잠재력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는 금융회사, 은행, 전자지갑업체를 비롯한 많은 신규 참가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유니콘 기업 4개 중 하나인 전자지갑업체 모모(MoMo)는 티피뱅크(TPBank)와 손잡고 500만 동(210달러) 한도 내에서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다른 전자지갑업체 스마트페이와 말레이시아의 은행 CIMB도 소비자 쇼핑을 촉진하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3천만 동(1,270달러) 한도의 BNPL 상품을 출시했다. 한편 비엣텔 머니(Viettel Money)와 FE 크레딧은 단 30초 만에 온라인에서 완벽히 작동하는, 200만 동(85달러) 한도의 페이나우(Paynow)를 출시했다. "소비자, 소매업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BNPL은 향후 모든 상점 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핵심 결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카드 후불 결제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라고 쿠옹은 말했다. 그는 BNPL이 후불 결제 비용, 특히 주문 취소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인구 구조(2011~2021년)



자료: Statista, 2022

해결해야 할 과제

베트남의 BNPL 시장은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쿠옹은 펀디인이 베트남의 BNPL 시장에서 첫 번째 스타트업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BNPL은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고객은 BNPL이 뭔지 잘 모른다. 또한 무료 혹은 무이자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선뜻 믿지 못한다. 투자자는 무료 BNPL 모델이 베트남과 같이 신용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지속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케이페이도 BNPL 서비스가 베트남 고객에게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주이 래는 "BNPL 서비스와 기타 결제 방식을 혼동하는 고객이 많이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BNP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불평했다. 고객이 BNPL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케이페이를 평판 좋은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식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과 투자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법적 기반의 부재다. 일반적으로 핀테크 부문, 특히 BNPL 시장의 경우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은 다른 법 규정에 의존해야 한다. "펀디인 및 기타 핀테크 스타트업은 시장 운영을 감독하는 법적 제도가 빨리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쿠옹은 말했다. 베트남의 법무법인 인도차이나 카운슬(Indochine Counsel)의 변호사인 래 반 즈엉은 BNPL 서비스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사업모델이 새롭기 때문에 아직 법적 틀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가 합법적이라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구매자,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BNPL의 잠재력

2021년 펀디인은 제네시아 벤처, JAFCO 아시아 등의 투자자로부터 18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펀딩 이후 펀디인의 거래 트래픽이 7~8배 증가했다"고 그는 말했다. 베트남의 BNPL 시장이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경쟁자가 생겨나겠지만, 펀디인은 이미 선구자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케이페이의 경우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 교육하는 것 외에도 가격 경쟁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주이 래는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번창하고 있지만 품질과 원산지가 보장되지 않는 제품이 많은 것이 약점이다"라고 말했다. 케이페이의 제품이 좀 더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가격차에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베트남 풍력 발전 붐!

해안선이 길고 바람의 질이 좋은 베트남은 풍력 발전을 위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글 Ha Thanh 사진 SHUTTERSTOCK

재생 에너지 분야의 풍부한 잠재력에 정부의 인센티브가 더해지면서 베트남의 해상 풍력 발전 분야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해안선 기점 200km 이내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에 대한 베트남의 잠재적 기대치를 약 475GW로 추정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수치가 좋은 편에 속한다.

또한 베트남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2021년 994MW에서 2030년까지 5~19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2021년의 베트남 총 전력 생산능력 76GW와 비교해 볼 때 해상 풍력 발전이 갖고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베트남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해외 기업

외국 기업은 베트남의 해상 풍력 발전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베트남 주재 노르웨이 대사 힐데 솔바켄은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며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3천km가 넘는 해안선과 풍부한 해상 풍력 자원을 감안할 때 베트남은 해상풍력의 이머징 마켓이기도 하다.

9월에 총리가 주최한 외국인 투자 기업 회의에서 오스테드(Ørsted)의 베트남 지사장인 세바스찬 할드 볼은 오스테드가 처음으로 베트남에 설치한 두 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2030년 이전에 가동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유력한 에너지 그룹인 오스테드는 베트남에 55억 달러를 투자하고 약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작년에 오스테드는 베트남의 대기업 T&T 그룹과 중남부 빈 투안 및 닌 투안 성에 용량 10GW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불 지사장은 베트남이 긴 해안선, 얕은 수심, 높고 일관된 풍속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고 비용 경쟁력이 있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에너지 기업 AES 코퍼레이션은 베트남에서 풍력 발전 용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약 130억 달러의 투자로 빈투안 성에 건설되며 총 용량은 4GW다.

베트남 닌 투안의 해상 풍력 단지 건설 현장.

2021년 5월에 노르웨이 최대 에너지 회사인 에퀴노르(Equinor)도 하노이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했다. "베트남은 해상 풍력 발전의 흥미로운 성장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하노이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에퀴노르의 베트남 대표 아니타 홀거슨은 말했다.

노르웨이의 또 다른 전력 기업인 스카텍(Scatec)도 2019년부터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기업은 닌 투안 성의 담나이 풍력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소비자에게 연간 123GWh의 청정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솔바켄 대사는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노르웨이 기업이 본국의 업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업이 이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코펜하겐 인프라 파트너(CIP)는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뉴마켓펀드 I, 베트남의 에너지기업 아시아페트로와 노바시아 에너지(Novasia Energy), 빈 투안 인민위원회(베트남의 지방단위 집행기관)를 대표하여 라간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3.5GW의 예상 용량과 100억 달러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최초의 대규모 현대식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다.

라간 풍력발전개발공사의 대표인 스튜어트 리브지는 베트남이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했을 뿐이고 진정한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를 위한 최고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남부지역, 특히 빈 투안과 닌 투안은 해상 풍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새로운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와트(W)와 와트시(Wh)의 차이

와트는 발전 설비 용량을 뜻하는 말로 단위 시간당 생산 가능한 전기의 양을 말하며, 와트시는 1시간 동안 생산된 전기의 양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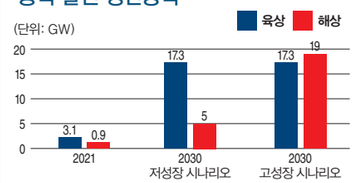
속도가 중요하다

베트남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면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COP 26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 풍력 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원 중에서도 주요한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은 해상 풍력 발전 부문을 더욱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총리에게 제출한 국가전력개발계획 초안에 따르면 풍력발전 용량은 2022년 약 4GW에서 2030년까지 육상 및 연근해상 풍력으로 약 16.1GW, 해상 풍력 발전으로 약 7GW까지 늘릴 것이라고 했다. 2045년까지 총 풍력 발전 용량은 약 122.4GW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66.5GW의 해상 풍력이 포함된다.

2월에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203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개발 전략 방향과 2045년까지의 전망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모든 경제 부문, 특히 민간 부문이 에너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빠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및 2030년 베트남의 풍력 발전 생산능력



자료: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의 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통계 2022, 세계은행의 베트남 해양 풍력 발전 로드맵 2021.

베트남 기상수자원청의 베트남 해상 풍력 및 조력 에너지의 잠재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 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해역은 빈 딘에서 닌 투안, 빈 투안, 메콩 삼각주의 까마우, 그리고 통킹만 중앙 해역의 일부까지다.

불 지사장은 베트남의 해상 풍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했다. 첫 번째는 부지 조사 허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부지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약 3년이 걸리고 세부 설계 및 조달이 완료될 때까지 착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과도기적 경쟁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고 해상 풍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력 구매 계약을 개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개발하는 데 6~8년이 걸리기 때문에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하다.

리브지는 "베트남이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지침을 시급하게 발표하고 개발자들이 시장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한 후 이 지침을 조정 및 수정하여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증여할까?
부담부증여 VS 저가 양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하는 데에 유리할까?

글 김정은(미래에셋증권 VIP 컨설팅팀) 사진 SHUTTERSTOCK

2022년 5월 세법 개정으로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즈음 집이 잘 팔리지 않는데다가 부모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이려는 목적에서, 집을 파는 대신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2023년부터는 특수관계자 간 부담부증여 또는 매도를 할 때 취득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또한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저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까?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라 함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중위소득의 40% 이상(약 월 70만원)인 경우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자녀는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낼 수 있다.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또는 매도를 하게 되면 자녀 또한 2주택자이므로 매매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외의 다른 아파트 하나를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각 상황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증여하려는 아파트는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최근 거래가격은 15억원이며 10년 전 5억원에 매수했고, 전용면적 84㎡, 전세 8억원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먼저, 자녀에게 8억원의 전세금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2022년의 경우 자녀의 증여세 및 취득세는 총 2억 695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여의 취득세 계산 시 공시가격이 아닌 최근 실거래가나 감정가격을 사용한다. 이 경우 2023년에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는 약 1억 1,32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 대비 372만원이 오르게 오르게 되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증여세+취득세)는 약 2억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는 2023년 5월 9일 이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약 1억 5,869만원을 부담하지만, 2023년 5월 9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시 시행되면 양도소득세도 늘어난다.

	증여세*	양도세 (~2023.5.9)	취득세	계
납부 의무자	자녀	부모 (현재 소유자)	자녀	
금액	약 1.31억원	약 1.59억원	0.76억원 (2022년) 1.13억원 (2023년)	약 3.66억원 약 4.03억원

*10년 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한다.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싸게 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 저가 매매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시가는 15억원이므로, 3억원과 15억원×30% 중 더 적은 금액인 3억원을 15억원에서 뺀 12억원까지는 저가매매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부모는 시가에 맞춰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는 매도이므로 부모만 양도소득세를 약 3.3억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자녀는 전세보증금 8억원과 매매가 12억원 차액인 4억원과 취득세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증여세*	양도세 (~2023.5.9)	취득세	계
납부 의무자	자녀	부모 (현재 소유자)	자녀	
금액	없음	약 3.3억원	0.4억원 (2022년) 0.5억원 (2023년)	약 3.69억원 약 3.79억원

이때에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가 적용된다. 2023년부터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특수관계인 간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시가인정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의 기준가격을 12억이 아니라 15억원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위의 사례를 요약해 보면, 2022년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세액이 거의 비슷하지만 부담부증여가 조금 유리했으나 2023년에는 저가 양도가 세액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해진다. 그러나 저가 양도 시 필요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와 저가 양도 모두 2023년부터는 취득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2023년부터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특수관계인 간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시가인정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와인의 호흡

와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호흡을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이들이 와인의 신비로움에 빠져드는 것 같다.

글 박찬일(로칸타몽로 셰프 겸 음식 칼럼니스트)

사진 SHUTTERSTOCK

와인의 호흡과 변화

와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호흡을 한다. 숨을 쉰다는 뜻이다. 일례로 일단 병입된 증류주는 더 이상 숙성이 진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안 장식장에 오래된 위스키나 증류주, 리큐르가 몇 병 있을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면 희소가치는 높아지겠지만 숙성이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코르크 마개의 경우 조금씩 증발되면서 맛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알코올 도수가 40도라면, 나머지의 상당수는 역시 수분이기 때문이다.

또 증류주는 열을 가해서 얻은 스피릿이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반면 와인은 발효주라 병입 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변질'이다. 와인은 때가 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와인이 고급으로 치부된다. 와인의 신비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와인은 양조 과정에서 이미 숨을 쉰다. 오크에 담아둔 와인은 변화를 겪는다. 오크통을 완전히 밀봉하지 않는 이유다. 숙성이 되어 병입한 후에도 숨을 쉰다. 앞서 말한 대로 이때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 온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습도 문제가 일어난다. 균에 의해 변질되기도 한다. 살균이 덜 된 코르크 때문에도 생겨날 수 있다.

와인은 병 안에서도 호흡한다. 숨을 쉰다는 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예민하다. 병에 들어간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생물학적인 호흡이 아니다. 다만 와인애호가들이 '와인이 살아 있다, 죽었다'고 표현할 뿐이다. 와인이 병 안에서 타닌과 산, 당에 의해 일으키는 변화를 생물학적 변화 즉 숙성, 노화, 변질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말하든 와인이 문학적 수사로 살아 있다고 하는 건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증류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알코올 도수 50도짜리 증류주는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밀봉이 되어 있으면 변화가 없다고 한다. 대항해시대에 위스키를 담아서 다닌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나 증류주는 물(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마시면 더 목이 마르다. 와인은 그렇지 않다. 식수 대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항해시대 초기에 와인을 싣고 갔는데, 시간이 흐르면 상해서 버렸다. 적도 등 더운 지방을 지나면 견디지 못했다. 식수로도 알코올로도 쓸 수 없고, 변질되어 버려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건 불리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항해시대가 아니다. 와인을 적당한 온도, 습도에 보관할 수 있다. 식수도 충분하다. 그러니 와인을 와인으로 즐길 수 있다. 숨쉬면서 변화를 겪는 와인을 기대하게 된다.

에어링과 관련된 진실

와인이 숨을 쉰다(?)는 증거로 많은 이들이 에어링을 예로 든다. 와인이 열린다, 안 열린다는 말도 바로 에어링과 관련이 있다.

과연 와인은 에어링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실험이 많았다. 결론은 에어링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에어링해서 와인 맛이 좋아지기도 하고, 밋밋해지기도 한다. 나쁜 에어링 효과는 우리가 술하게 겪는 일이다. 먹다 남은 와인을 마실 때다. 향이 날아가 버려서 맛이 심심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와인을 가르는 기준을 갖게 된다. 개봉 후 며칠을 두었는데 맛이 여전히 괜찮다거나, 최소한 별 차이가 없다면 좋은 와인이라는 견해다. 옳은 말씀이다. 열어두어도 맛이 나빠지지 않는 와인이 좋지 않은 와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체로 타닌이 강한 와인, 젊은 와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고급 와인이 열어두어도 버티는 경향이 강하다. 아무리 고급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년기에 접어든 와인은 열어두면 호흡(?)이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보통 이런 와인을 '즉시 마셔야 할 와인'이라고 분류하고, 와인 가이드들이 주요 와인은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1998 샤토 라투르를 구했다고 치자. 자료를 보면, '즉시 마실 것'이라는 견해를 만나게 된다. 물론 더 두어도 된다. 와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숙성기를 지나 저무는 와인은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생산 초기에도 와인이 얼마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가 예측하기도 한다. 좋은 와인인데도 장기 숙성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로 빈티지 하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더 오래 보관하라"고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이런 것이 와인의 신비다.

와인이 제대로 숨을 쉬지 않는다, 즉 열리지 않는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애호가의 대처는 보통 이렇다. 더 오래 에어링한다. 심지어 하룻밤을 둔다. 공기 접촉을 늘리기 위해 볼륨이 큰 디캔터로 옮긴다. 아주 큰 매그넘 잔에 와인을 부어서 천천히 마신다. 어떤 분은 와인이 '안 열린다'는 평을 듣자 디캔터도 아닌 큰 대접에 와인을 부어두는 것도 보았다. 내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맛이 심심해질 뿐 와인이 극적으로 맛있어지는(열리는) 건 보지 못했다. 잘못 보관된 걸 샀다거나, 원래 그 와인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와인일 가능성이 크다.

> 와인이 제대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애호가들의 대처는 보통 이렇다. 더 오래 에어링한다. 심지어 하룻밤을 둔다. 공기 접촉을 늘리기 위해 볼륨이 큰 디캔터로 옮긴다. 아주 큰 매그넘 잔에 와인을 부어서 천천히 마신다.

와인을 숨쉬게 해서, 맛있게 마시기 위해 하는 에어링은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준다고들 한다. 실은 예민한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90퍼센트는 이미 정해진 맛, 거기에 에어링에 의해 10, 9, 8… 등 작은 변수를 만날 수 있다. 와인을 개봉하여 잔에 따르는 순간 이미 에어링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10점 중의 6, 7점은 그때 이미 따고 들어간다. 그러니 에어링의 극적인 효과는 심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기야 심리적 영역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어쨌든 열심히 에어링하는 것은 흥미롭다. 나도 물론 에어링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려고 한다. 그게 와인의 재미이니까.

이 달의 와인

264 청포도와인 광야 2019

처음으로 국산 와인을 소개하는 듯하다. 한국의 와인 생산은 오랜 역사를 지녔다. 특히 수도사, 선교사들에 의해 제조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높은 품질은 보장받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양조용 포도 재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질, 기후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에도 근래 몇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 와인도 그렇다. 풍부한 향, 목넘김, 피니시까지 상당하다. 디저트 와인이나 가벼운 파티 와인으로 좋다. 이런 와인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어? 하는 놀라움이 있다. 생산지인 안동군 도산면은 시인 이육사의 고향이기도 하며 그의 작품 중에 '청포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다.

가격 3만원 문의 054-859-0264

기본, 먼저!

새 시즌이 돌아왔다.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프로 골퍼도 새로운 시즌을 위해 먼저 준비한 쪽이 이듬해 성적도 좋다. 2023 시즌을 위해 점검하고 준비할 내용을 정리했다.

글 JoinSung 사진 SHUTTERSTOCK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다

골프 컨디셔닝 전문가인 JK골프컨디셔닝 정광천 원장은 "많은 골퍼가 골프를 체력보다 기술이 더 필요한 운동으로 인식하고 기술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서 "골프는 클럽을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휘두르는 운동이다. 따라서 기술보다 파워가 더 필요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신체의 균형 감각과 체력이 떨어지면 실력 향상이 더디고 스코어도 좋지 않을뿐더러 통증과 부상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도 했다.

프로 골퍼도 체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체력을 보태는 것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기술도 익히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를 포함한 주말 골퍼는 운동에 전념하기 어렵다. 시간도, 마음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한다. 등산이나 조깅도 좋고 계단 오르내리기나 플랭크, 스쿼트,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도 좋다. 하루에 10~20분 정도 호흡이 가쁘고, 약간의 땀이 날 정도라면 좋다. 이렇게라도 운동을 한다면 골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활력도 조금은 찾을 수 있다.

기본을 점검하고 그 다음 기술을 입힌다

기본을 재확인한다. 기술은 그 다음부터이다.

'골프의 제왕' 잭 니클라우스도 시즌이 시작되기 전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기본기'였다. 그립, 셋업, 얼라인먼트, 정확한 스윙 동작 등이다. 이 영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되도록 레슨을 받자. 한 달 레슨도 좋고, 원 포인트 레슨이라도 좋다. 프로 골퍼도 기본을 확실히 점검한 이후에 기술을 입힌다.

퍼팅과 쇼트 게임에 투자한다

골프에서 주말골퍼가 프로 골퍼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퍼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말골퍼가 퍼팅 연습에 관심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퍼팅 연습을 시작해보자. 늦지 않았다. 투어 프로에게도 퍼팅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번에도 잭 니클라우스를 소환한다. 니클라우스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모든 것은 처음에 짧은 퍼팅을 몇 번 실수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자 먼 거리 퍼팅이나 그린 주변 쇼트 게임을 반드시 컵에 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곧이어 아이언으로 반드시 그린을 맞혀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머지않아 티 샷을 꼭 페어웨이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코스에서 하는 모든 플레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드라이빙 거리가 짧은 박인비가 세계 '넘버원'에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퍼팅을 잘했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도 투어에서 퍼팅을 포함한 쇼트 게임을 가장 잘하는 선수였다. 멀리만 치던 더스틴 존슨도 우수한 쇼트 게임과 퍼팅 아이템을 장착한 후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연습은 이렇게

연습이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코리안투어에서 12승을 거두고 현재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 골퍼 강욱순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보자.

연습장에 도착하고 타석을 배정받은 이후에 클럽을 바로 잡지 않는다. 타석에 도착한 후 스트레칭을 한다. 충분히 몸을 풀어야 더 좋은 샷을 할 수 있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도 수월하며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몸을 푼 후에는 7번 아이언을 잡는다. 스탠스를 좁히고 하프 스윙으로만 10개 정도 볼을 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한 후 풀 스윙을 한다. 약 10분 동안 한다. 이후 웨지를 사용해 헤드의 바운스(Bounce)를 이용해 볼을 치는 연습부터 한다. 이때는 왼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오른손잡이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많이 쓴다. 바운스만을 이용해 볼을 치면 오른손을 적게 쓰는 데 도움이 된다.

바운스로 볼을 치는 연습 후 10야드, 20야드, 30야드 등 거리별로 연습을 한다. 순서대로가 아니라 마음 속에 거리를 생각하고 연습한다.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인 셈이다.

> 기본을 재확인한다. 기술은 그 다음부터이다. '골프의 제왕' 잭 니클라우스도 시즌이 시작되기 전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기본기'였다.

쇼트 게임 연습은 20분. 쇼트 아이언부터 본격적인 샷 연습을 한다. 한 클럽당 20~30개 정도 친다. 연습장에선 페이드를 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드 샷은 오른팔을 적게 쓰고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드로 구질이더라도 페이드를 치려고 노력한다. 멀리 치려 하지 말고 리듬대로, 스윙을 다듬는다는 기분으로 볼을 친다.

아이언 연습은 20분 정도. 우드류는 번호별로 연습한다. 적정 탄도와 거리를 위해 백스윙을 약간 안쪽으로 낮고 길게 끌고 가는 데 집중한다. 우드 역시 리듬과 템포가 중요하다. 최대한 힘을 빼고, 클럽을 이용해 볼을 보낸다는 생각을 가진다. 연습장에서는 스윙을 만들고 교정하는 데 집중한다. 페어웨이우드와 유틸리티 연습은 20분. 드라이버 샷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는다. 감각을 유지하는 수준이 좋다.

장비는 관리도 중요하다

골프화는 신지 않을 때는 탈취 스프레이를 뿌리고, 슈트리를 사용해 외관이 변형되는 것을 막는다. 오염된 곳은 클리너를 마른 천에 묻혀 원을 그리며 닦거나, 스펀지에 가죽 크림을 묻혀 1차로 문지른 후 마른 천으로 닦는다. 스파이크는 분리 후 이물질을 솔로 털어내고 물기를 건조해 다시 끼운다. 골프클럽은 전용 클리너로 닦는다.

아이언이나 웨지 그루브의 이물질은 말끔히 제거한다. 클럽을 구입한 이후에 그립을 교체한 적이 없을 것이다. 먼지, 때, 손기름 등이 남으면서 그립이 마모되거나 부식됐을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40라운드 이후에는 그립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룰 북을 가지고 있는가?

골퍼의 필수 아이템 중 하나가 룰 북이다. 없다면 바로 구입한다. 정확한 룰을 알고 골프를 즐기는 것은 골퍼의 심리적 자신감과도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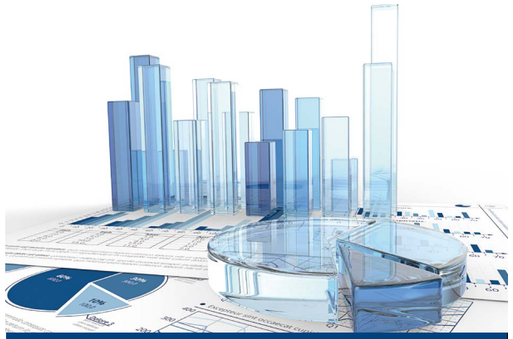
골프는 광활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살펴야 할 것이 많아 적용되는 룰도 다양하다. 룰의 핵심은 4가지다. '1번 홀에서 시작해 18번 홀에서 끝내고', '볼은 있는 그대로 치고', '티 샷한 볼로 홀아웃하고', '꼭 홀 아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널티에 대한 개념은 이렇다. 코스가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했을 때는 페널티가 없다. 수리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지주목, 조명탑, 카트 도로, 맨홀 뚜껑, 스프링클러 헤드 등에 볼이나 스탠스가 걸리거나 의도하는 스윙에 방해될 때 그렇다.

골퍼의 기술이 미숙해 볼을 있는 그대로 칠 수 없을 때는 페널티를 받는다. 1벌타다. OB, 볼이 페널티 구역에 들어가 치지 못할 때 그렇다. 플레이어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2벌타를 받는다. 스윙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나뭇가지를 꺾거나, 디보트 자국에서 살짝 볼을 옮겨 놓는 행동 등이다.

PRICES & RATES

2022년 12월 12일 기준으로 본 주가, 금리, 채권, 환율, 원자재



주식

	거래소	전일 종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미국	DOW JONES	34,005.04	0.76	5.01	8.32	-5.47	20.88
	S&P 500	3,990.56	-0.06	-2.92	2.3	-15.31	25.94
	NASDAQ	11,143.74	-1.59	-9.15	-1.73	-28.71	27.83
유럽	DJ Euro STOXX 50	3,921.82	1.38	7.55	8.96	-6.6	5.81
	영국 FTSE 100	7,445.97	1.75	-0.36	1.76	2.11	2.37
	프랑스 CAC40	6,650.55	0.85	5	7.49	-4.88	13.02
	독일 DAX	14,306.63	0.57	6.75	3.96	-8.43	8.21
	이태리 FTSE MIB	24,303.68	-0.62	7.49	7.79	-9.05	3.9
	스페인 IBEX 35	8,258.9	1.99	0.79	-1.57	-1.21	-12.77
	스위스 SMI	11,033.64	-0.84	0.39	-0.46	-12.49	5.57
동유럽	러시아 RTS	1,088.86	-5.99	-14.98	-14.18	-32.46	-27.26
	터키 Istanbul 100	5,193.3	16.56	42.31	104.21	155.14	371.63
	폴란드 WIG 20	1,755.34	3.84	12.38	1.75	-20.71	-16.5
	체코 프라하 PX	1,168.1	-7.22	-4.55	-11.19	-16.88	6.99
중국	중국 상하이 종합	3,179.04	2.97	-2.6	-2.35	-13.64	7.12
	중국 상하이 A	3,332.19	2.98	-2.58	-2.31	-13.64	7.15
	중국 상하이 B	290.92	-0.17	-7.52	-5.81	1.55	18.3
	중국 선전 A	2,157.07	2.18	-2.97	-1.12	-19.54	24.17
	중국 선전 B	1,156.66	2.66	-4.84	2.35	-3.84	28.18
	홍콩 항셍	19,463.63	12.34	0.71	-7.61	-18.75	-29.7
	홍콩 항셍 중국기업주 (H)	6,628.3	12.97	-0.07	-9.70	-22.49	-38.84
	홍콩 레드칩	3,663.81	10.43	-1.08	-2.19	-6.22	-16.62
한국	KOSPI	2,373.02	-4.44	-3.12	-5.25	-20.94	9.34
	KOSDAQ	715.22	-2.19	-10.24	-13.7	-28.9	11.15
	KOSPI200	309.64	-4.16	-2.8	-6.14	-22.06	6.73
아시아	일본 NIKKEI 225	27,842.33	-1.49	-2.7	3.17	-2.79	15.9
	일본 TOPIX	1,957.33	-1.03	-1.47	-1.05	12.49	-1.76
	인도 SENSEX 30	62,130.57	0.54	2.57	17.57	6.6	51.5
	대만 TWSE	14,612.59	4.32	-1.89	-9.07	-17.76	22.51
	베트남 호치민	1,032.07	8.12	-17.33	-15.89	-30.09	6.82
	싱가포르 STI	3,239.66	0.35	-1.53	3.2	3.84	0.8
	타이 SET	1,623.13	-0.86	-2.56	-0.58	0.3	3.79
	말레이시아 KLCI	1,474.38	0.42	-0.9	0.65	-1.37	-6.16
	인도네시아 JCI	6,734.45	-5	-7.97	-3.73	1.07	8.67
	호주 ASX 200	7,180.83	0.32	2.44	3.59	-2.69	6.55
	뉴질랜드 TOP10	1,849.45	2.74	-1.61	5.04	-11.83	-5.05
중남미	브라질 BOVESPA	105343.33	-6.16	-7.11	-0.13	-2.24	-6.11
	멕시코 BOLSA	50466.25	-2.87	5.44	4.12	-1.46	16.83
	아르헨티나 MERVAL	166466.5	12.54	17.64	85.07	86.53	355.30
	칠레 IPSA	5257.07	-1.75	-6.06	0.37	19.32	9.17
중동 아프리카	남아공 아프리카 Top40	68277.93	2.75	8.19	11.30	4.42	37.65
	이집트 HERMES	1624.68	23.55	38.74	45.88	30.37	31.58
	이스라엘 TEL AVIV 25	1835.82	-7.33	-9.07	0.84	-3.50	8.53
MSCI 지역별 (USD)	MSCI 세계지수(AC World)	622.59	0.64	-1.33	0.37	-16.57	12.75
	MSCI 선진국지수	2662.86	-0.42	-2.07	0.80	-16.48	15.31
	MSCI 이머징마켓	978.28	4.55	-0.08	-7.24	-21.01	-8.63
	MSCI 아시아퍼시픽(ex. Jap)	512.27	5.22	0.44	-6.85	-19.05	-4.16
	MSCI 동남아시아	647.87	2.08	-0.06	0.56	-6.70	-16.89
	MSCI 이머징유럽	30.21	1.84	10.52	-3.56	-83.58	-83.87
	MSCI 중남미	2145.61	-4.8	-4.27	-4.33	0.97	-23.75
	MSCI 브릭스	261.98	6.65	-2.76	-7.45	-24.89	-19.73
	MSCI 브라질	1453.98	-4.74	-8.22	-7.18	-1.02	-35.95
	MSCI 러시아	-0	-6.91	-6.91	-6.91	-100.00	-100.00
	MSCI 인도(INR)	2120.86	0.46	0.83	13.07	3.58	57.93
	MSCI 중국(HKD)	64.13	13.16	-1.96	-13.01	-26.68	-21.57
	MSCI EM EMEA	189.97	-3.88	-4.36	-7.90	-30.28	-25.57
MSCI 섹터별 (USD)	MSCI 에너지	239.32	-7.70	2.48	-5.02	36.17	25.24
	MSCI 소재	319.48	1.66	5.57	-2.97	-8.41	19.87
	MSCI 산업재	305.92	1.40	4.63	7.41	-11.54	11.24
	MSCI 경기관련소비재	308.73	-2.65	-11.04	-1.39	-30.05	13.68
	MSCI 필수소비재	274.55	4.00	2.48	5.64	-3.29	11.26
	MSCI 헬스케어	352.03	4.54	5.80	8.96	-0.64	29.07
	MSCI 금융	131.51	-1.06	1.58	4.81	-10.88	5.92
	MSCI IT	422.08	-0.09	-3.90	1.64	-26.42	40.16
	MSCI 통신	68.83	-0.89	-10.87	-12.91	-35.32	-9.55
	MSCI 유틸리티	155.32	5.43	-4.87	-0.79	-1.62	7.17

환율

통화	전일 종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달러인덱스	104.81	-1.21	-3.06	0.83	9.27	7.82
원/달러	1307.71	1.44	5.77	-1.79	-9.7	-9.25
원/엔	9.50	-0.27	1.46	1.18	9.83	13.11
원/유로	1375.23	-0.40	1.44	-2.05	-3.13	-3.90
원/위안	187.42	0.13	6.55	1.45	-0.93	-9.60
엔/달러	137.67	1.63	5.04	-2.34	-17.51	-20.53
달러/유로	1.05	2.02	5.68	1.22	-6.63	-5.26
위안/달러	6.98	1.31	-0.73	-3.20	-8.75	0.10
루피/달러	82.54	-1.55	-3.64	-5.45	-8.21	-14.18
헤알/달러	5.25	0.62	-3.78	-3.33	7.25	-22.70

상품 & 부동산

	분류	전일 종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원유	WTI 원유 (US$/bbl)	73.17	-17.00	-15.13	-31.13	7.76	42.33
	브렌트유 (US$/bbl)	76.10	-17.19	-13.72	-28.13	9.79	37.88
금속	금 현물 (US$/troy oz)	1781.44	0.57	4.66	-2.08	-0.29	20.66
	은 현물 (US$/troy oz)	23.31	7.4	20.57	10.59	4.37	37.67
	구리 현물 (cents/lb)	8507.00	4.84	7.36	-11.57	-10.84	40.69
	런던 상품거래소 금속 지수	4065.20	2.43	8.02	-8.88	-6.25	43.69
농산물	CBOT 옥수수(cents/bu)	654.00	-1.36	-6.50	-9.76	17.15	-
	CBOT 소맥(cents/bu)	754.75	-9.64	-13.57	-31.88	-4.52	-
	CBOT 대두(cents/bu)	1465.50	0.81	-1.64	-5.65	19.1	-
	로저스인터내셔널 상품 지수	3707.11	-5.99	-5.10	-16.68	19.85	55.01
	S&P GSCI 농산물 지수	453.09	-3.32	-7.37	-17.53	2.45	54.96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79.21	0.88	1.76	-1.86	-29.01	53.81
상품 & 운임	CRB 상품 지수	269.37	-4.52	-6.35	-17.32	19.24	47.26
	발틱운임지수 (BDI)	1386.00	2.29	10.35	-	-57.64	-0.14
부동산	FTSE 글로벌 부동산 지수	214.03	-0.71	-10.50	-6.89	-21.07	-4.61
	TSE 리츠 지수	1935.67	-2.14	-4.94	-2.74	-5.53	-9.00
헤지펀드	글로벌헤지펀드 지수	1369.22	0.34	-0.93	-1.67	-4.27	7.08
비트코인	비트코인(US$, 현재시간 기준)	17161.18	3.63	-23.86	-28.30	-64.78	137.01

금리

분류	현재%	분류	현재%
미국 연방금리	4.00	한국 국고채 3년	3.61
유럽 재할인금리	1.50	미국채 2년	4.38
한국 기준금리	3.25	미국채 5년	3.79
러시아 재할인율	7.50	미국채 10년	3.61
중국 1년 대출 금리	3.65	영국 국채 10년	3.20
인도 Repo 금리	6.25	독일 국채 10년	1.94
브라질 Selic 금리	13.75	그리스 국채 10년	13.06
일본 기준금리	-0.10	브라질 국채 10년	3.98
리보 금리 (US$, 3개월)	4.73	인도 국채 10년	7.29

채권

분류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머징 로컬	-0.70%	2.02%	1.99%	-0.60%	-12.83%	-17.02%
이머징 소버린	0.01%	5.46%	2.62%	0.46%	-17.04%	-13.32%
선진국 정부	-0.01%	1.70%	-0.08%	-1.00%	-10.7%	-6.73%
글로벌 하이일드	0.03%	3.43%	2.21%	0.96%	-10.01%	-1.43%

잘나가는 글로벌펀드를
수시로 추가하고 바꿀 수도 있고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e-Must Have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일부 펀드에 따라 변경횟수 제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비과세로 투자하고
[관련 세법 충족 시]

글로벌MVP60펀드 누적수익률
56.62%
[2014.04.01~2022.04.07, 생명보험협회 공시]

연금 투자하는 좋은 방법,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 잘 나가는 글로벌펀드 수시 추가·교체
- 비과세 혜택,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가능기간 및 횟수제한, 수수료 발생 가능, 중도인출 전후 환급금 동일하지 않음)
-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에서 영상광고도 확인하세요 life.miraeasset.com

[e-Must Have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상품은 KB국민은행에서 판매 중입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약관에서 정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2-02920호 (2022-06-27 ~ 2023-06-26)

행복한 은퇴설계의 시작 –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 TDF, 그냥 1위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글로벌 운용 역량! 미래에셋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세요.

TDF 설정액 1위 국내 TDF 최강자, 미래에셋자산운용

(2021년 말 금융투자협회 기준)

●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 미래에셋 자산배분 TDF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금리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2451호 (2022-07-25 ~ 2023-07-24)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